

יכר
הו

14

김민기 아침이들 50 년

발행인 강현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발행일 2021. 6. 10
편집인 전인미
디자인 이룸
이 색 이룸

※ 이 책에 게재된 모든 자료는 저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전제 또는 복사를 금합니다.



김민기
아침이트

50
년

김민기,
아침이슬
50주년

C O N T E N T S

서문 – 김창남	008
서문 – 김준기	012
트리뷰트 아티스트	016
김민기 아카이브	066
김민기 디스코그래피	112
아침이슬 디스코그래피	120
트리뷰트 음반	126
김민기 연보	132

김민기, 아침이슬 50년

전시
서문

김창남

성공회대 교수,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장, 김민기한정사업추진위원장

김민기 아침이슬 50년
008

한국 대중음악의 100년 역사에서 김민기란 이름은 여전히 홀로 우뚝한 봉우리다. 그의 음악이 방송 무대를 주름잡는 인기 가요였던 적은 단 한 순간도 없었고, 그가 이른바 '가수'로서 활동한 기간은 길어야 2, 3년을 넘지 않으며, 그 기간 동안 발표한 정규 음반은 단 한 장에 지나지 않음에도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 현재에 이르는 긴 세월 동안 그의 이름은 다양한 맥락에서 끊임없이 소환되어왔다.

김민기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노래는 물론 '아침이슬'이다. 이 노래는 1970년에 작곡되었고 1971년 양희은의 데뷔 음반과 김민기의 유일한 정규 음반에 수록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꼭 50년 전의 일이다. 그 50년 동안 한국 현대사를 수놓은 수많은 현장에서 이 노래는 되풀이되어 불려졌다. 1970년대의 대학가 시위에서부터 1980년 5월의 봄, 1987년 6월의 광장, 나아가 2016년 겨울 광화문의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저항의 열정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이 노래가 함께 했다. 그렇게 '아침이슬'은 지난 50년의 한국 현대사를 상징하는 노래가 되었다.

역사가 된 것은 비단 '아침이슬'만이 아니다. 김민기의 스무살 시절 목소리가 담긴 그의 유일한 정규 앨범은 한국 대중음악사의 걸작을 꼽을 때 늘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는 명반 가운데 하나다. 1971년 10월에 나온 이 음반이 시장에 모습을 드러낸 기간은 채 몇 달이 되지 않는다. 1972년 봄 김민기가 서울대 문리대 신입생 환영회에 초청받아 '우리 승리하리라(We Shall Overcome)'와 '해방가' 그리고 '꽃 피우는 아이'를 부른 후 동대문경찰서에 연행되었고 그의 음반은 전량 압수되었기 때문이다. 불과 몇 달 만에 사라진 그의 음반은 이후 수집가들의 표적이 되면서 엄청난 가격으로 거래되는 '전설'이 되었다.

하지만 1971년 김민기 정규 음반의 의미는 단지 팝박과 금지의 수난에서 비롯된 희귀성에 있지 않다. 이 음반은 당시까지 외국 곡의 번안 수준에서 그리 벗어나지 못했던 한국 통기타 포크 음악이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부르는 싱어송라이터의 시대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은 음반이었

다. 무엇보다도 대중음악이 단지 사랑과 이별, 낭만과 위안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 시대에 대한 성찰과 비판적 시선을 담아내는 예술적 산물일 수 있음을 보여준 음반이었다. 이 음반이 나온 1970년대 초는 3선 개헌으로 이루어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당선되면서 극악한 군사 독재의 영구집권 체제로 향해가고 개발독재의 모순이 터져 나오면서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는가 하면, 이른바 퇴폐풍조를 추방한다며 젊은이들의 장발과 미니스커트까지 단속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당대의 젊은이들이 이 질식할 듯한 분위기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불만을 느끼고 자유를 꿈꾸기 시작했을 때, 새롭게 유입된 통기타 포크음악과 록음악, 그리고 장발과 청바지 같은 힙피 스타일이 그들의 욕망을 분출시키는 수단으로 채택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들을 흔히 청년문화라 부르지만 단지 캠퍼스 통기타와 청바지, 장발뿐이었다면 청년문화란 명칭은 적절치 않았을 것이다.

1971년 음반에 담긴 노래들, 그리고 이후 다른 가수들의 목소리로 표현된 김민기의 노래들은 이 새로운 사조에 하나의 짧은 자의식을 새겨 넣어 주었다. 단순하고 즉물적인 기존 대중가요와 달리 깊은 정신적 울림을 가진 그의 노래말은 당대의 젊은 대학생들이 사회와 현실 속에서 느끼는 정신적 갈등을 대변해 주었다. 그의 노래가 없었다면, 그의 음반이 없었다면, 1970년대의 청년문화는 그저 하나의 소비적 유행사조 정도로 치부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음반은, 김민기의 노래들은, 1970년대 청년문화에 젊은 세대의 비판적 자의식을 아로새기며 그 '청년다움'을 완성시킨 문화적 산물로 기억되어야 마땅하다.

첫 음반이 권력에 의해 강제 퇴출된 후에도 그는 지속적으로 노래를 만들었다. 그에게 노래는 일기와도 같은 것이었다. 당대의 현실을 사는 청년으로서 세상을 보는 그의 시선은 많은 노래들 속에 담담히 혹은 치열하게 표현된다. 그 가운데 '가을편지', '백구', '아름다운 사람', '작은 연못' 등 일부 곡들은 양희은을 비롯한 다른 가수들의 목소리로 발표되었지만 다른 많은 곡들은 겸연에 걸려 세상에 나올 수 없었다. 1978년에 나온 양희은의 음반은 '상록수', '늙은

전시
서문

김민기 아침이슬 50년
009

군인의 노래’, ‘고무줄놀이’, ‘식구생각’, ‘천릿길’ 등 김민기의 곡들로 채워졌지만 어느 한 군데도 그의 이름을 밝힐 수 없었다. 1970년대 후반 그는 대한민국의 공식 문화권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이름이었다.

1978년 겨울 김민기는 노동조합을 세우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곡 〈공장의 불빛〉을 내놓는다. 노동자들의 처참한 현실과 투쟁 의지를 담은 이 작품은 겸열을 받지 않은 비합법 카세트테이프로 발표되었고 이 테이프 앞면에 김민기는 비로소 자신의 이름 석 자를 당당하게 명기할 수 있었다. 〈공장의 불빛〉의 출현은 한국 문화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다. 〈공장의 불빛〉은 노동자의 현실을 음악이라는 형식에 정면으로 담아낸 최초의 성과물이고 노래라는 양식이 얼마나 강력한 서사성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준 작품이며 특히 카세트테이프라는 새로운 매체가 가진 가능성을 일깨워준 작품이었다. 카세트는 비교적 값싸게 음악을 향유할 수 있고 수용자 자신이 능동적으로 녹음하고 편집할 수 있는 유용성이 있는 매체였다. 복제와 복제를 거듭하며 세상에 퍼진 〈공장의 불빛〉은 이후 1980년대 민중문화운동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공장의 불빛〉은 음악적으로 놀라운 작품이다. 동요적인 포크의 감성을 담고 있는 ‘공장의 불빛’이나 민요적 감수성을 현대화시킨 ‘두어라 가지’, 클래식한 느낌의 ‘이 세상 어딘가에’, 거기에 주로 군대사회에서 구전되던 가락을 차용해 음악적 변주를 시도한 ‘야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적 자원이 촘촘히 얹히며 전혀 새로운 음악적 진경을 보여준다. 음반산업의 자본주의적 질서에서 벗어나 있고 가장 저항적인 주제를 담고 있으며 가장 새롭고 실험적인 음악적 시도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한국 최초의 진정한 인디펜던트이자 얼터너티브라는 평가에 값한다.

김민기의 이름이 공식 문화권에서 사라진 이후 그의 노래들은 학생운동권을 비롯한 저항 세력에 의해 적극적으로 전유되었고 그런 가운데 노래운동 혹은 민중가요라 불리는 전혀 새로운 음악 문화의 흐름이 형성되었다. 1980년대 수없이 제작된 민중가요 노래집에는 늘 그의 작품들이 가장 많은 비중

으로 담겨 있었고 그의 영향을 받은 많은 노래운동가들이 등장했다. 바로 그런 깨닭에 김민기는 오랫동안 저항문화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김민기의 음악세계를 ‘저항’과 ‘민중’의 의미망 속에 가두는 것은 결코 온당한 평가라 할 수 없다. 그는 통기타 포크의 기반 위에 동요, 민요, 구전 가요, 클래식 등 다양한 음악적 자원을 아우르는 실험적 시도를 끊임없이 보여주었다. 특히 김민기 음악이 한국 대중음악에서 보여준 최고의 업적 중 하나는 한국어가 갖고 있는 어감과 리듬을 가장 최적의 방식으로 담아내는 창작의 경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 있다. 김민기의 노래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개인의 내밀한 의식을 통해 현실 상황을 드러내는 탁월한 시적 형상화 능력과 노래말의 흐름을 정확히 포착하여 재현해내는 음악적 표현력이다.

그는 한국어의 의미와 어감을 누구보다도 깊게 고민하면서 가장 낮은 곳에 사는 동시대인들의 정서를 담아내는 노랫말을 쓰고 우리말에 내재된 선율과 가락을 가장 적절한 음악적 구조와 결합시킨다. 그가 만든 노래에서는 노랫말과 가락이 함께 숨 쉬며 따라서 어떤 한국인이라도 선율과 가사의 밀착도를 단번에 느낄 수 있다. 김민기의 가사를 영어로 번역한 하버드대 교수 카터 에커트(Carter J. Eckert)가 지적한 대로, “김민기의 노래에서 가사와 멜로디는 동시에 만들어진 것처럼 긴밀하게 어울린다.” 이는 이후 〈지하철 1호선〉과 같은 뮤지컬에서도 그대로 구현된다. 주지하다시피 〈지하철 1호선〉은 1993년 첫 공연을 시작한 이래 4000회 이상 공연하고 71만명 이상의 관객들이 관람한 한국의 대표적인 뮤지컬이다. 〈지하철 1호선〉은 외국 원작을 번안한 작품인데도, 동시대 한국인들의 정서와 한국어의 어감을 음악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다. 〈지하철 1호선〉의 원작자인 독일인 폴커 루드비히가 학전의 〈지하철 1호선〉을 번안 작품이 아니라 김민기의 순수 창작으로 인정하고 1000회 공연 이후 저작권료를 완전히 면제해줬다는 사실도 이런 의미에서 우연이 아니다.

김민기는 1991년 학전 소극장을 개관한 이후 소극장 운영과 뮤지컬 작업에

전념하고 있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일관되게 유지된 김민기의 문제의식과 창작 방식은 〈지하철 1호선〉 이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어린이 뮤지컬에서도 변함없이 구현된다. 학전의 어린이 뮤지컬은 그저 순수하고 맑기만 한 동심의 판타지를 그려내지 않는다. 가난한 농촌과 탄광촌을 배경으로 한 〈연이의 일기〉나 〈아빠 얼굴 예쁘네요〉는 물론이고 장애 아동을 주인공으로 차별 없는 세상의 가치를 보여주는 〈슈퍼맨처럼〉, 유기견을 주인공으로 소외된 존재들의 이야기를 동물 우화로 풀어낸 〈도도〉, 엄마 없는 며칠 동안 좌충우돌하며 자립심을 찾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리얼하게 담아 낸 〈고추장 떡볶이〉 등 학전의 뮤지컬들은 실제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어린이와 가족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낸다. 창작이든 번안이든 학전의 모든 어린이 뮤지컬에서도 한국어의 풍부한 표현과 어감을 생동감 있게 살려내는 김민기의 창작 방식은 여지없이 관철되고 있다.

김민기는 지난 50년 간의 활동을 통해 수많은 예술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포크 음악인들부터 1980년대 민중문화운동의 흐름을 이끌었던 문화운동가들, 그리고 소극장 학전을 무대로 다양한 콘서트 활동을 벌였던 수많은 후배 음악인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김민기의 개성적인 음악세계와 그 고집스러운 예술가적 태도로부터 영향 받으며 자신의 예술 세계를 형성했다. 이런 영향은 비단 음악 영역에 그치지 않았다. 학전의 뮤지컬 무대를 통해 연기 인생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황정민, 김윤석, 설경구, 방은진, 조승우, 장현성 등은 이후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연기자로 성장했다.

지난 50년간 김민기는 단 한 순간도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끝없이 새로운 창작물을 내놓고 새로운 형식을 고민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 통기타 포크의 창작과 연주로 시작된 그의 여행은 마당극, 국악과 민요, 동요와 구전가요, 노래곡, 록 뮤지컬로 확대되었고 한국에서 예술적으로나 상업적으로 가장 소외되어온 영역 중 하나인 어린이 뮤지컬에까지 다다랐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를 지탱해 온 것은 상업적이든 정치적이든 결코 타협하지 않으

면서 스스로의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해 온 예술가적 고집이다. 그는 어떤 작품이든 관념적이거나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이를 정확하게 담아내기 위해 치밀하고 집요하게 노력하는 예술가적 태도야말로 지난 50년 간 그가 쉽 없이 현재진행형의 예술가로 살 수 있었던 힘이다.

노래는, 음악은 가장 강력한 기억의 매체다. 우리는 어느 한 시점을 함께 한 노래를 통해 그 시대를 기억한다. 노래를 잊는 것은 곧 그 노래가 담고 있는 역사를 잊는 것과 같다. 김민기의 많은 노래들은 우리에게 지난 역사를 끊임 없이 환기시키면서 현재를 새롭게 돌아보게 만든다. 지난 50년 간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혹은 변화하지 않았는지 성찰하게 한다. 우리가 그의 노래들을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은 그 때문이다. 7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는 역사적 격랑을 겪으며 그의 음악을 듣고 불러온 사람들로부터 학전의 어린이 뮤지컬을 보며 자라는 어린 세대에 이르기까지 50년 세월을 아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경배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민기의 삶과 예술에 바치는 헌사

김준기
미술평론가

김민기 개인에 대한 정보 이외에 그가 활동해온 시대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담은 자료들을 만날 수 있다. 그의 내면과 주변의 인물들, 당대의 사회환경 등

〈아침이슬〉을 발표한 지 50년을 맞은 올해, 트리뷰트 앨범과 콘서트 등 여러 가지 현정 프로젝트들 가운데 하나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그동안 볼 기회가 없었던 김민기의 내밀한 세계를 만날 수 있다. 어릴 적 그린 스케치와 앤 베제작을 위하여 활용한 인물 사진들을 비롯하여 그의 활동을 담은 기록사진들도 다수 선보인다. 이 가운데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자료는 1961년에 그린 김민기 어린이의 그림들이다. 전설의 화가 최옥경을 사사하여 그린 연필 드로잉과 크레파스화, 수채화 등은 국민학생의 그림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오로지 그림을 통해서만 자신의 정체를 확인하고 했으며, 화가의 꿈을 키워 미술대학에 진학했던 김민기는 미술작품을 남지기 안/못한 미술전공자인데, 이번 기회에 어린이 김민기의 그림을 만나는 것은 뜻밖의 행운이다.

1.

여기 한국의 저항문화를 상징하는 위대한 예술가 김민기에게 바치는 헌사가 있다. 1970년대 이후 지난 50년간 한국 현대사에 나타난 문화현상을 꼽을 때 필수불가결하게 등장하는 요소들 중의 하나가 저항문화이다. 그것은 비단 20세기 후반의 문제만이 아니다. 식민지와 분단, 전쟁, 개발독재와 산업화, 군사독재와 민주화 과정을 지나온 20세기 내내 한국인들은 억압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거대권력과 맞서면서 저항문화를 창출했다. 스무살 청년기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김민기는 저 유명한 국민가요 〈아침이슬〉을 비롯하여 수많은 명곡을 발표한 싱어송라이터로서, 노래곡 〈공장의 불빛〉으로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한 사회적 실천가로서, 〈지하철1호선〉을 비롯한 수많은 뮤지컬의 예술감독으로서, 나아가 한국 현대사의 면면에 서린 저항정신의 상징하는 예술가로 자리매김했다.

2.

김민기의 세계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수 있는 자료들도 다수 전시한다. 김민기가 직접 그려놓은 악보들을 비롯하여 메모와 편지, 연출노트 등의 자료들 통하여 거장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체계적인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일부 공개하는 것인데, CD와 LP 앨범들을 비롯하여 VHS 비디오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등의 창작물과 기록물들을 만날 수 있다. 대본집이나 악보집, 프로그램 북과 포스터 등 학전극단의 활동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도 그의 방대한 예술활동을 가늠하게 해준다.

미술인들은 음악인들보다 음악을 많이 듣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작업실에서 그림이나 소조작업을 하는 시간동안,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각과 촉각의 교감과 긴장 사이에 음악이라는 청각적 자극은 일종의 긴장 완화 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영감을 위한 제3의 소통기제로 작동한다. 미술과 음악의 이러한 상관 관계는 때때로 감상자 수준을 넘어 창작의 길을 열어주기도 한다. 〈맴도는 얼굴〉의 이일호나 〈모란동백〉의 이제하에서 현지 화가이자 가수인 백현진에 이르기까지 미술과 음악은 시각과 청각이라는 각각의 감각기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도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전시에는 노래를 사랑하는 미술인들의 각별한 애정이 담겨있음은 두말할 필요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음악에 대한 미술의 친연 관계만으로 이번 전시에 출품한 미술인들의 동인을 설명할 수는 없다. 장르의 친연성 수준을 넘어서는 예술과 사회의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김민기의 시간에 담긴 그 무게와 깊이에 공감하는 미술인들에게 '아침이슬 50년'은 한국사회에서 예술의 정치적 함의와 사회적 힘을 헤아리는 하나의 상징 같은 것이다. 김민기의 예술이 사회-정치적 성향을 띠는 것은 그 시대가 요청하는 예술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예술작품의 생산과 매개와 향유가 달라지는 이른바 예술과 사회의 상동성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1970년대라는 저 극악무도한 군부독재의 시대가 아니었다면, 이 노래〈아침이슬〉은 저항의 노래로 등극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일제강점기의 청년시인 윤동주의 시들은 정치-사회적인 저항정신을 논하기 이전에 식민지시대를 살아간 한 청년의 맑은 정신세계가 담겨있는 서정시로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른바 참여냐 순수냐의 잣대로 본다면, 윤동주의 시는 순수시에 가깝다. 이육사나 심훈과 같이 본격적인 저항시를 써보지 못한 윤동주는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저항정신을 대표하는 저항시인으로 호명당하곤 한다. 윤동주를 저항시인으로 호명하는 것에 대한 호오를 떠나서, 윤동주의 시는 그 자체로 한 시대를 대표하는 문학적 성취로 남아있지만, 그것이 저항시로 해석되곤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작품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알려주는 대목이다.

김민기의 〈아침이슬〉도 마찬가지다. 군부독재의 엄혹한 탄압 아래, 표현의 자유를 빼앗긴 채, 점멸의 사슬에 묶여있던 이 노래는 1980년대를 지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대표하는 저항의 노래로 자리잡았다. 그것은 지난 50년간 한국의 권위주의의 권력이 예술가와 예술작품을 억압하고 탄압했으며, 이에 맞선 시민과 예술가들이 표현의 자유를 행취하기 위하여 지난한 상징투쟁을 벌여왔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번의 현정 사업을 벌이는 계기점으로 작동한 '아침이슬 50년'이라는 언어 속에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국인들이 경험해온 무수한 서사가 깔려있다. 이 노래 한 곳에 담긴 음악사적 가치와 예술사적 흐름과 문화사적 의미는 그 자체로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상징하는 일대 사건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시가 〈아침이슬〉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니다. 1970년대라는 폭압의 시대가 만들어낸 억압기제 때문에 이 노래가 주목받고 더욱 더 큰 울림으로 되살아났다는 점은 분명 위대한 사건이다. 하지만

그게 김민기의 전부일 수는 없다. 김민기는 아침이슬 이후에도 끊임없이 예술가로서 창작을 통하여 사회적 실천을 이어갔다. 그 가운데 〈아침이슬〉 못지않게 위대한 작업을 꼽으라면, 〈공장의 불빛〉을 언급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김민기가 극작과 작사, 작곡하여 1978년에 발표한 비합법 창작물이다. 이 노래곡은 20세기 한국의 문화사 전체를 통틀어서 예술의 사회적 참여를 가장 선명하게 목적의식적으로 실천한 사례이다.

1970년대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조합 결성과 탄압, 해고 등을 그린 이 음악곡은 당시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전위적인 음악성을 선보였다. 포크와 록, 국악과 재즈 등 다양한 음악장르를 두루 담았으며 동서양의 악기들을 뒤섞은 융합예술의 일대 실험장을 펼쳤다. 게다가 21편의 노래를 카세트테이프 한 면에 담고 다른 한 면에 반주음악을 담았는데, 이는 자신의 음악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중이 스스로 음악곡을 꾸릴 수 있도록 양면을 사용한 것이다. 유신통치가 극에 달했던 당시로서는 노동운동의 현장실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와 같은 활동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김민기는 〈아침이슬〉의 서정성과 함께 〈공장의 불빛〉의 사회참여적 선동성을 함께 지닌 문제의 예술가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의 질곡을 넘어서던 1980년대의 김민기는 문득 자신의 노래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노래곡 〈공장의 불빛〉을 만난다거나, 87년 6월항쟁의 거리에서 〈아침이슬〉을 들으면서 그는 살아있는 예술가로서 부활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이후 김민기의 활동은 〈지하철1호선〉을 비롯한 뮤지컬에 초첨을 맞춘다. 지금 까지 이어오고 있는 극단학전의 활동을 통하여 김민기는 과거가 아닌 현실을 사는 예술가로서 존재하다. 미술인들은 〈아침이슬〉에서 〈공장의 불빛〉, 〈지하철1호선〉에 이르는 50년의 시간을 김민기 개인만이 아닌 한국예술 전체의 위대한 성취로 상찬하며 이번 현정 전시에 참가했다.

3.

미술대학을 나왔지만 화가의 꿈을 접고 음악활동을 해온 김민기의 예술을 기리는 일에 미술인들과 음악인, 동세대와 후배세대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했다. 이번 전시에 출품한 작가들은 다음과 같은 묶음으로 나눠볼 수 있다. 1) 김민기와 동문수학한 미술가들, 2) 김민기와 동세대의 작가들, 3) 붓글작품으로 함께 하는 음악인들, 4) 김민기 예술세계에 공감대를 가진 후배 작가들 등이 그것이다. 김민기와 함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를 다닌 동문 선후배 작가들로 임옥상, 박재동, 이강화 등의 화가들이 있다. 김보중, 이종구, 이태호, 홍성담 등의 작가들은 1950년대 초중반 출생으로서 김민기와 동세대의 감성을 기반으로 한 작품들을 출품했다.

김민기와 함께 작업했던 작가들로는 김수남, 최호철, 임채욱 등이 있다. 시각예술 분야에 있어 어릴 때부터 탄탄하게 훈련받은 만큼 김민기는 뮤지컬 연출에 있어 시노그래피를 완벽하게 창출해왔는데, 무대 안팎에서 시각예술가들과 협업을 해온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사진가 김수남은 김민기 앨범 사진을 찍은 작가이기도 한데, 사진 찍히기를 꺼려는 김민기를 거의 유일하게 카메라에 담은 작가이다. 최호철은 특유의 만화기법으로 〈지하철1호선〉의 장면을 출연자 캐릭터 기반으로 그려냈다. 설안산, 북한산, 지리산 등의 산 사진 작업을 하고 있는 임채욱은 김민기의 노래 〈봉우리〉를 위한 사진 슬라이드쇼로 협업을 하기도 했다.

음악인들 가운데는 김민기와 같은 세대로서 1980년대 중후반부터 사회적 짙은 가사의 노래를 지어 불러왔으며 '김민기를 가장 존경한다고 말하는 싱어송라이터 정태준은 이번에 출품한 붓글에서 '그이의 노래를 한 번도 누워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썼다. 〈김민기〉라는 제목의 연구서를 출간한 음악평론가 김창남은 신영복체로 노래 가사를 적어 출품했으며, 전시포스터에 쓰인 '아침이슬 50'이라는 타이포그래피도 그의 붓글이다. 평화를 지향하는 싱어

송라이터이자 탁월한 서예가로 활동하는 홍순관도 특유의 유려한 서체로 '거친 들판에 푸르른 솔잎처럼'을 적었다.

또한 1970년대부터 김민기 음악의 영향을 받고 자란 1960년대 이후 출생의 작가들도 다시 있다. 박경훈, 박영균, 이상엽, 이원석, 이중재, 이하 등 이른바 586 작가들은 김민기의 음악이 자신들에게 미친 영향을 재해석한 작품을 출품했다. 30~40대 작가들로는 레오나드, 서원미, 양동규 등이 있는데, 이들은 각각 다른 감성으로 20세기 후반의 위대한 예술가에 대한 오마주 작업으로 참가한다. 이들은 김민기의 모습을 회화와 사진, 판화, 조각, 영상, 그래피티 등으로 재현한 작품들을 비롯하여 김민기의 시대정신이 담긴 리얼리즘 계열의 작품들을 통하여 깊은 암흑의 시대를 비춘 선구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현했다.

이 전시에 출품한 미술가들의 작품은 김민기 예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의 시대와 동행한다. 임옥상은 1970년대에 그린 구작을 통하여 같은 세대를 살아온 김민기에 대한 공감을 표현했다. 박재동은 김민기 캐리커처로, 김보중과 박영균은 회화로, 이태호는 목판화로, 이원석은 소조작업으로 김민기 모습을 담은 초상 작업을 선보인다. 이중재의 비디오아트와 스트리트아티스트 레오나드의 그래피티도 김민기의 형상과 서사를 담은 신작들이다. 구작을 통하여 김민기의 시대와 동행하거나, 선구자의 길에 현사하는 작품들 또한 이번 전시가 지난 50년간 한국인의 마음 깊이 새겨진 고마움을 담아내고 있다. 김민기의 삶과 예술을 상찬하는 자리를 빌어 새삼 확인한다. 위대한 예술은 사람들의 눈과 귀와 입을 통해서 살아있는 사회적 연대라는 점을.

TRIBUTE ARTISTS

트리뷰트 아티스트

김민기
여침이슬
50주년

- Kim, Bo-Joong 김보중
Kim, Soo-Nam 김수남
Kim, Chang-Nam 김창남
Leodav 레오다브
Park, Kyong-Hoon 박경훈
Park, Young-Gyun 박영균
Park, Jae-Dong 박재동
Seo, Won-Mi 서원미
Yang, Dong-Gyu 양동규
Lee, Kang-Hwa 이강화
Lee, Sang-Youp 이상엽
Lee, Won-Suk 이원석
Lee, Jong-Gu 이종구
E, Joong-Jae 이중재
Lee, Ta-Eho 이태호
Lee, Ha 이 하
Lim, Ok-Sang 임옥상
Lim, Chae-Wook 임채욱
Joung, Tae-Choon 정태춘
Choi, Ho-Chul 최호철
Hong, Sung-Dam 홍성담
Hong, Soon-Gwan 홍순관

김보중

| KIM, BO-JO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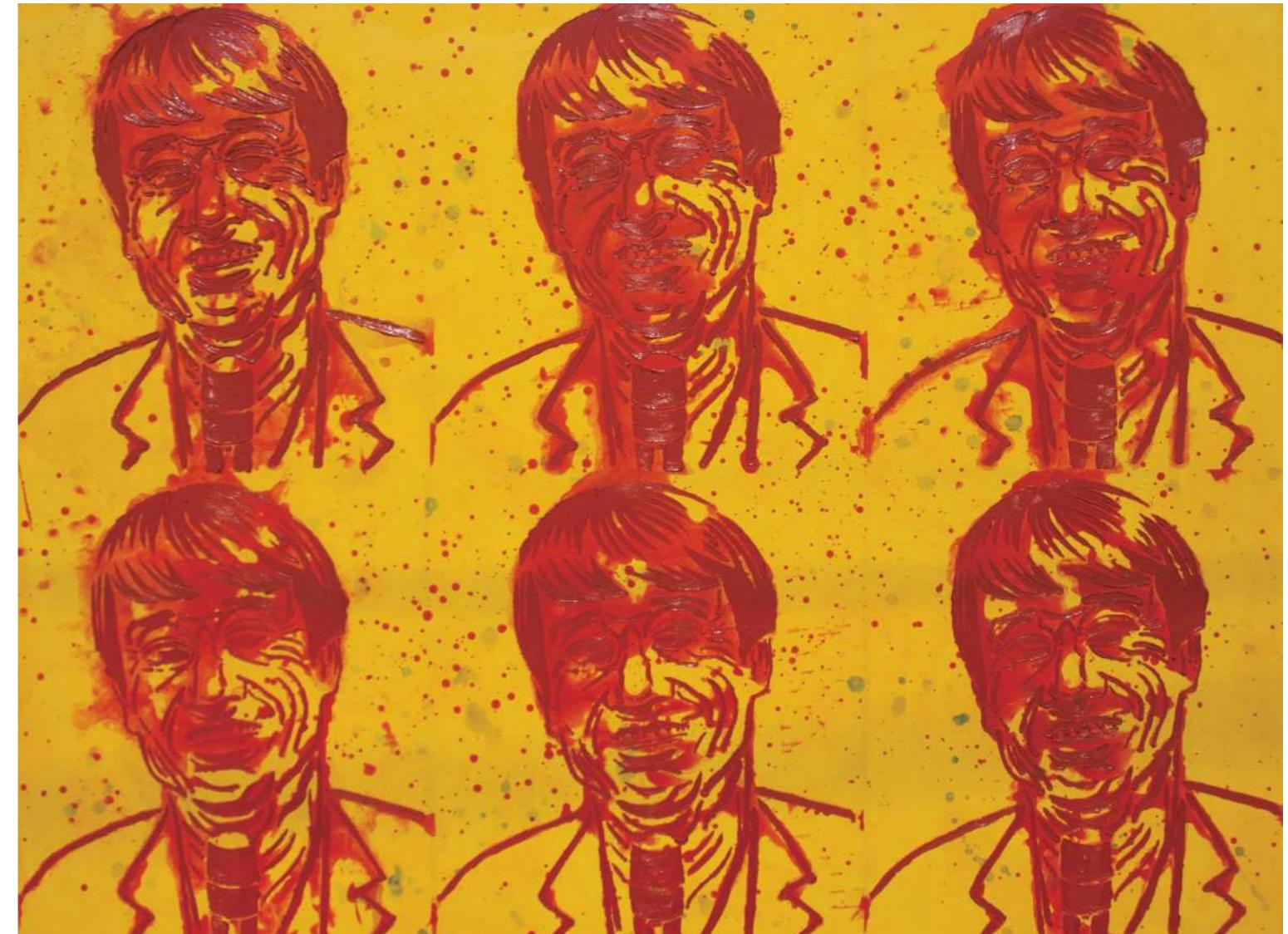
트리뷰트 아티스트

김민기 아침이슬 50년 018

냉정과 열정 | 97.0×130cm | Oil on Canvas | 2021

김민기, 아침이슬 –

젊은날 애창하던 가요중에서 가수 김민기의 아침이슬은 단연 유품이였다. 아직도 기억에 뚜렷한 여운을 남기는 그의 노래를 간절히 노래한 것은 3번 있었고 그리고 1번의 만남이 있었다. 첫 번째 노래는 20대 군 입대 전야 이었으며, 두 번째는 30대 인생의 전환점을 위해 기약 없이 해외로 출국하던 직전이었다. 그리고 1번의 만남은 강원도 원주 토지문화관 레지던시에 머물 때 아주 우연히 그곳 식당에서 매우 짧은 만남과 몇 마디의 대화가 전부였다. 지지고 볶는 오랜 피곤한 만남과 달리 그의 아침이슬노래 와 매우 짧은 만남은 더없이 간결했다. 그러나 그의 아침이슬은 잊혀질 듯 잊혀질 듯 나의 감성 저깊은 곳에 자리 잡고 마침내 3번째 아침이슬 노래는 며느리가 될 아희와 우리 가족과의 만남 그리고 식사 후 여흥에서였다. 3번째 아침이슬은 앞에 2번의 비장함과 달리 덤덤한 기쁨이었다.



트리뷰트 아티스트

김민기 아침이슬 50년 019

냉정과 열정 | 97.0×130cm | Oil on Canvas | 2021

김수남

| KIM, SOO-NAM



김민기 | Digital Print | 1980~90년대

트리뷰트 아티스트

김민기 | 이원이슬 50년
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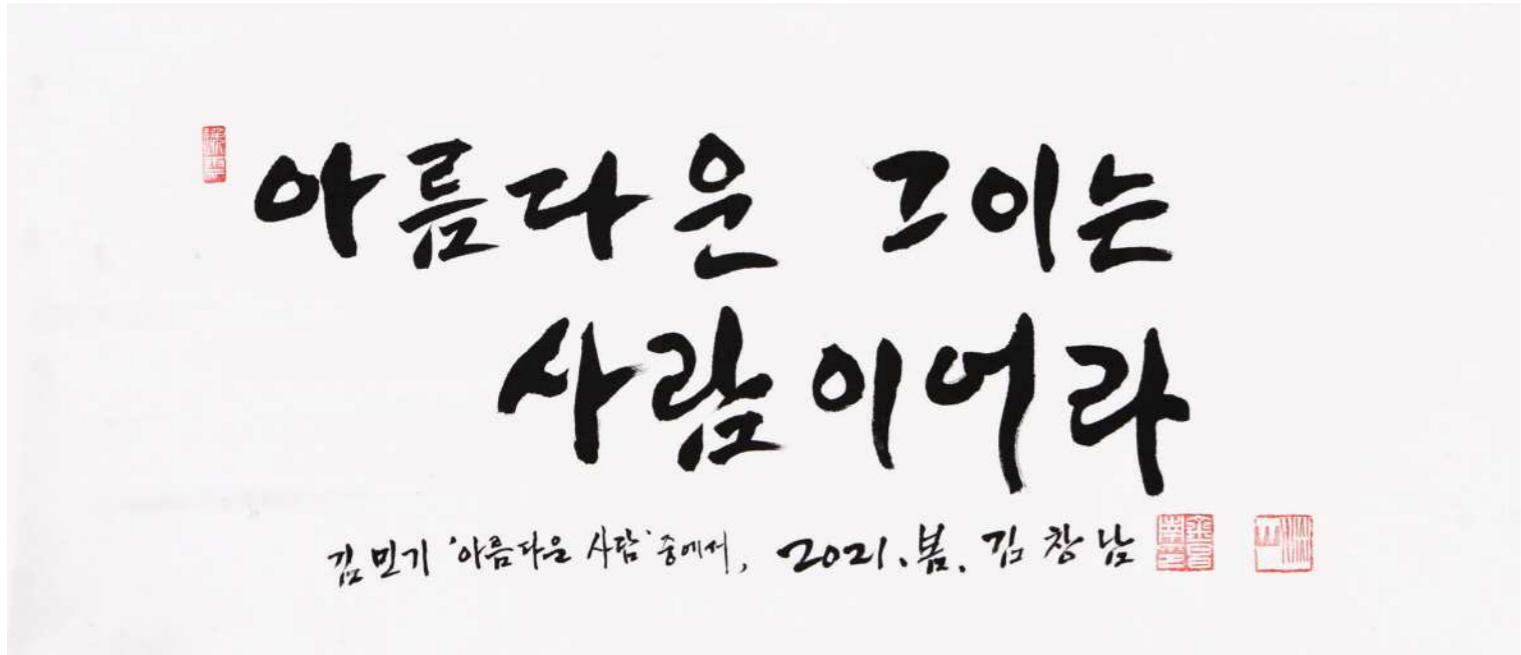
트리뷰트 아티스트

김민기 | 이원이슬 50년
021



김민기 | Digital Print | 1980~90년대

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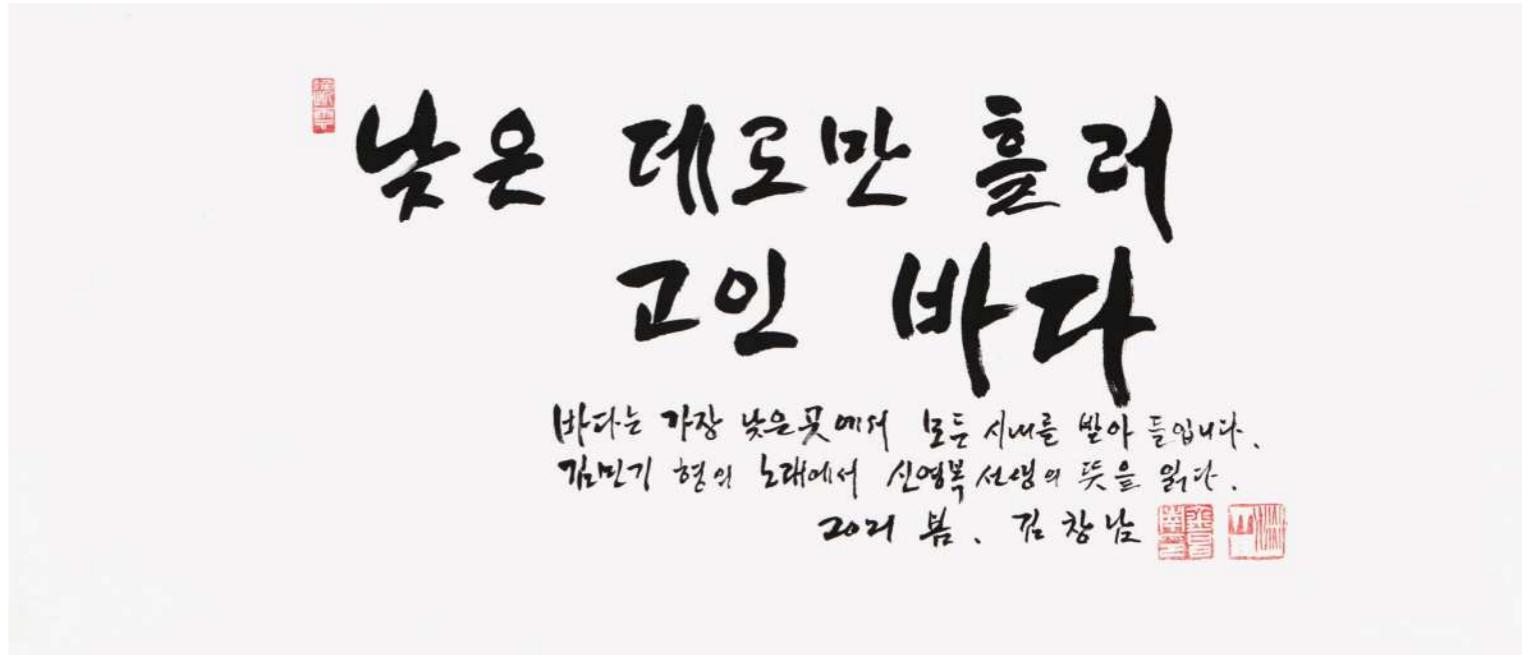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라 | 35.0×78.0cm | 화선지에 붓글씨 | 2021

김민기의 노래 '아름다운 사람'의 후렴구. 이 노래는 '사람'에 대한, 인간의 존재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성찰이 담긴 노래다.

그렇기에 이 노래는 죽가로도, 조가로도, 송가로도 어울린다.

특히 이 구절은 김민기의 작품들이 담고 있는 다양하고 폭넓은 세계를 가장 간결하게 압축하고 있다.



낮은 데로만 흘러 고인 바다 | 35.0×81.0cm | 화선지에 붓글씨 | 2021

김민기의 노래 '봉우리'의 한 대목이다. 나는 이 노래에서 이 구절을 들을 때마다 신영복 선생의 말씀을 떠올린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시내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다'입니다."

낮은 곳의 사람들,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들을 보듬는 이 노래는 그렇게 신영복 선생의 사상과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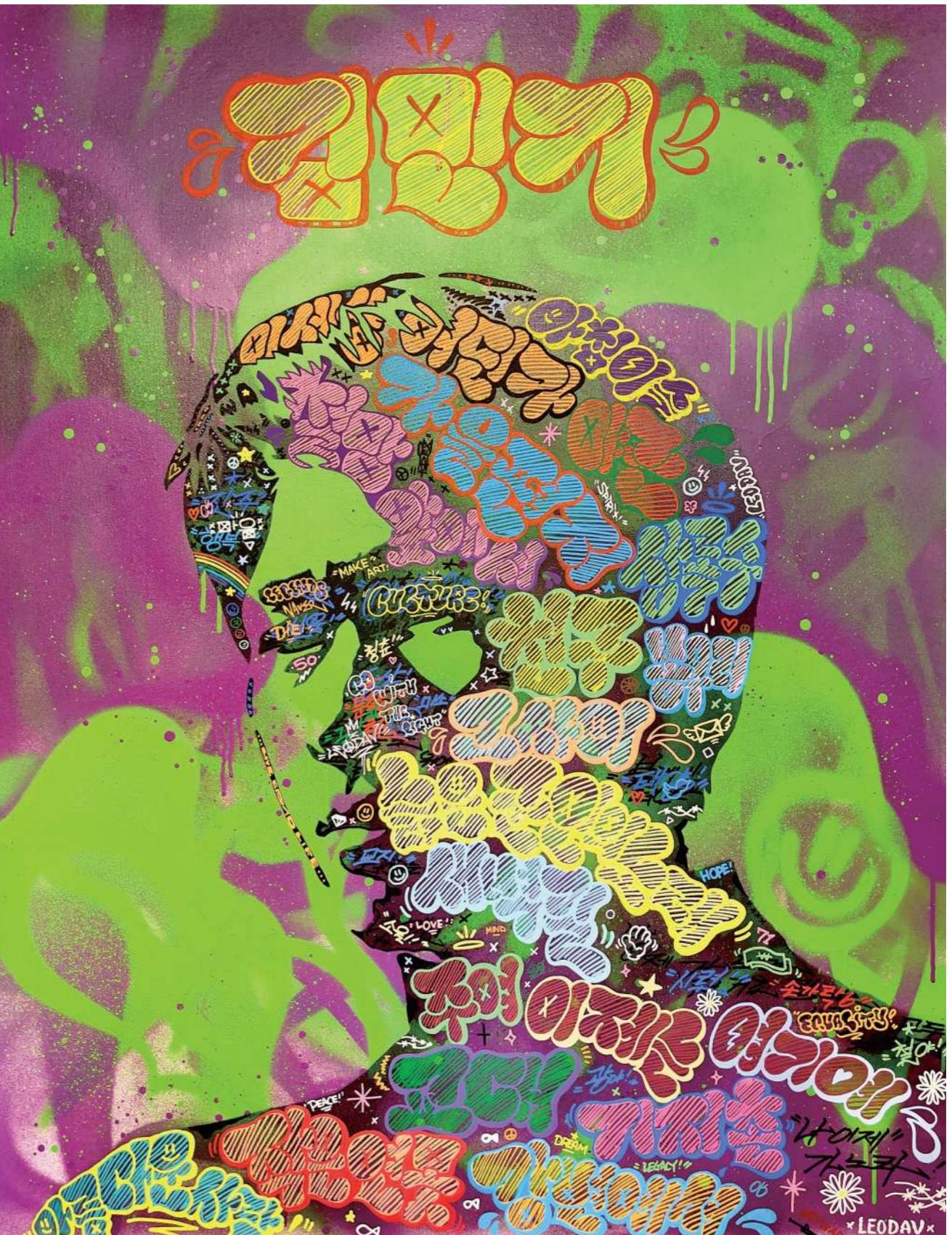
레오다브

| LEODAV

1971년 앨범 자켓에서 영감을 받아 2021년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한 작품이다.

거리에서 불렀던 노래, 거리에서 그리는 그래피티는 현시대의 시대상과 저항정신을 표현한다.
내가 태어나기 전 음악이며 살아가면서 우연히 듣게 되었던 음악이었고, 그 노랫말과 선율 속에
담긴 의미들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느꼈던 감정을 다양한 색깔들과 글자, 아이콘들로 표현하였다.

▶ 거리에서 시작되다 (Born on the street) | 116.8×91.0cm | Spray paint, Marker |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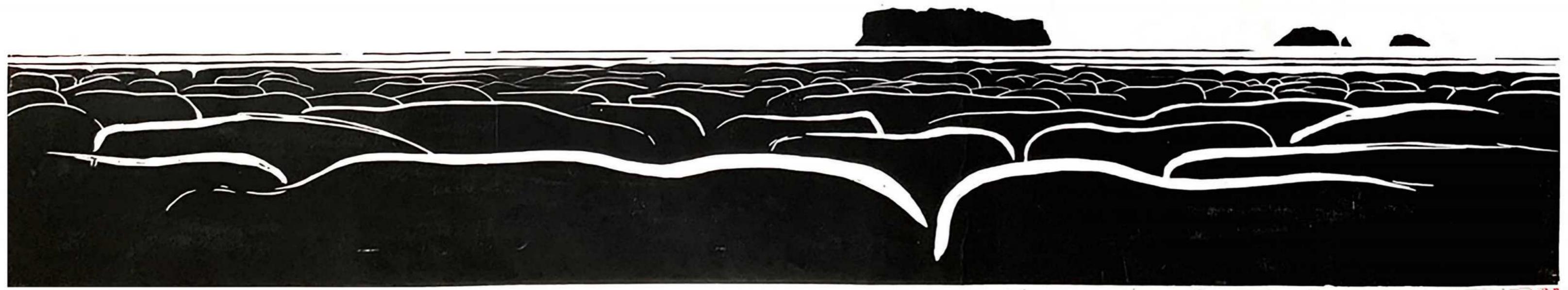


박경훈

| PARK, KYONG-HOON

출품작은 지금은 볼 수 없는 강정 구름비의 풍경을 목판으로 새긴 것이다. 물론 이 작품의 원화는 구름비가 다이너마이트로 파괴되고 해군기지가 들어서기 전에 만든 것이다. 구름비의 현무암 널짱바위들은 지금은 잘게 부서져 콘크리트의 일부가 되어 각진 해군기지의 콘크리트 블록으로 변하고 말았다. 정확히 이 판화는 이제는 '기억의 풍경'이 되어 버린 셈이다.

김민기의 노래들 역시 '기억의 노래'들이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젊은 날의 기억을 담은 선율이며, 가사들이다. 학부 시절 그의 노래는 늘 가슴을 후벼 파는 감동이 있었다. 군부독재 시절의 암울함과 울분을 이겨내는 무겁지만 강한 내성을 지닌 감성의 우물이었다. 펴 올려도 펴 올려도 마르지 않는 감성의 우물 말이다. 덜덜거리는 카세트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그의 노래들은 늘 작업실을 가득 채우는 공기 같은 것이어서 지금도 그의 노래 대부분은 어렵지 않게 따라 부를 수 있으며, 몇몇 곡은 젊은 날의 18번이 되어 내 음악취향을 드러내는 대표곡이 되기도 했다. 유순했던 학가지망생은 그의 노래와 함께 미술에 대한 생각도, 세상을 느끼는 방식도, 그려내는 그림도 세상을 향해 열리기 시작했으며, 노래와 함께 단련되어 같던 것 같다. 그의 노래는 나의 화업 초기, 평생을 끌고 나갈 생각과 그림의 무두질과 담금질의 동지였다.



삭제된 풍경, 강정 구름비 (Deleted landscape, Gangjeong Gurumbi) | 120×55.0cm | 한지 위에 목판 |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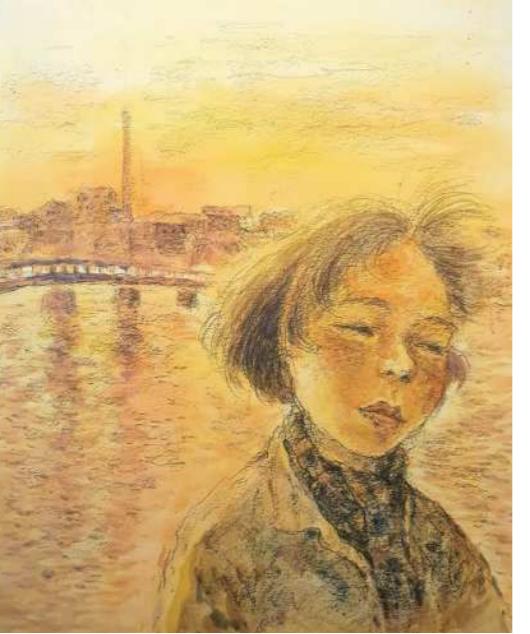
거리에서 광장에서 불렀던 노래
나를 뜨겁게 만들었던
고마움을 그림으로 전합니다

▶ 아름다운 사람 (a beautiful person) | 130×97.0cm | Acrylic on Canvas | 2021





종이연 | 72.7×53.0cm | Acrylic on Canvas | 2021



강변에서 | 72.7×60.6cm | Acrylic on Canvas | 2021



아름다운 사람 | 72.7×60.6cm | Acrylic on Canvas | 2021

트리부트 아티스트

당시의 가슴 아리는 사회상에
어머니 떠난 집 어린아이가
종이연을 날리고 철로를 뛰어 가는
모습을 그림.

농촌에서 올라 온 16살 순이가
공장일을 마치고 가뭇가뭇
지친 몸으로 돌아오는 장면.
김민기 작가의 작품 '강변에서' 노래를
그림으로 그린 것.

역시 같은 이름의 노래를 그림으로 그린 작품.
우는 아이. 뛰는 아이. 우뚝 선 아이가
마치 우리나라의 운명을 이야기한 듯하여
특별한 의미와 감동을 가지고
경탄하고 있음.



아침이슬 | 60.6×72.7cm | Acrylic on Canvas | 2021

트리부트 아티스트

김민기 아침이슬 50년 031

서원미

| SEO, WON-MI

서원미 작가는 잊혔거나 계속 소환되는 기억을 역사적 사건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회화의 언어로 풀어낸다.

사실적으로 묘사된 풍경은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는 듯하지만,

이미지 위로 덧발라지고 뭉개진 물감은 과거에 대한 기억의 무게를 느끼게 한다.

서원미 작가가 “얽힌 시간들의 폐허 속 잠글 수 없는 유령들”이라고 표현한 회화 속 인물들은

생의 존재로 살아 숨 쉬던 과거의 인물이자, 그 인물의 삶을 마주한 현재 우리의 모습이다.

이처럼 작가의 작품은 과거의 그들과 오늘의 우리를 서로 바라보게 한다.



▶ 흰 산(White Mountain) | 130.3×193.9cm | Oil on Linen | 2019

애써 찾아듣지 않아도 어떤 순간에 불현듯 읊조리게 되는 노래가 있다.
그 노래는 어느새 모든 사람이 함께 부르는 광장의 노래가 된다.
그 해 겨울이었다.
두 손 모아 촛불을 들고 내리는 눈을 맞으며 읊조렸던 노래,
그리고 함께 불렀던 노래.
사진을 보면 생각나는 그 날의 풍경과 노래.
그 노래가 '아침이슬'이다.

▶ 제주 광장 20170211_촛불로 타오르던 혁명의 날 (_The Day of the Revolution Burned with Candles)
80.0×120cm×2 | 한지에 장기보존염료 프린트 | 2017



이강화 |

| LEE, KANG-HW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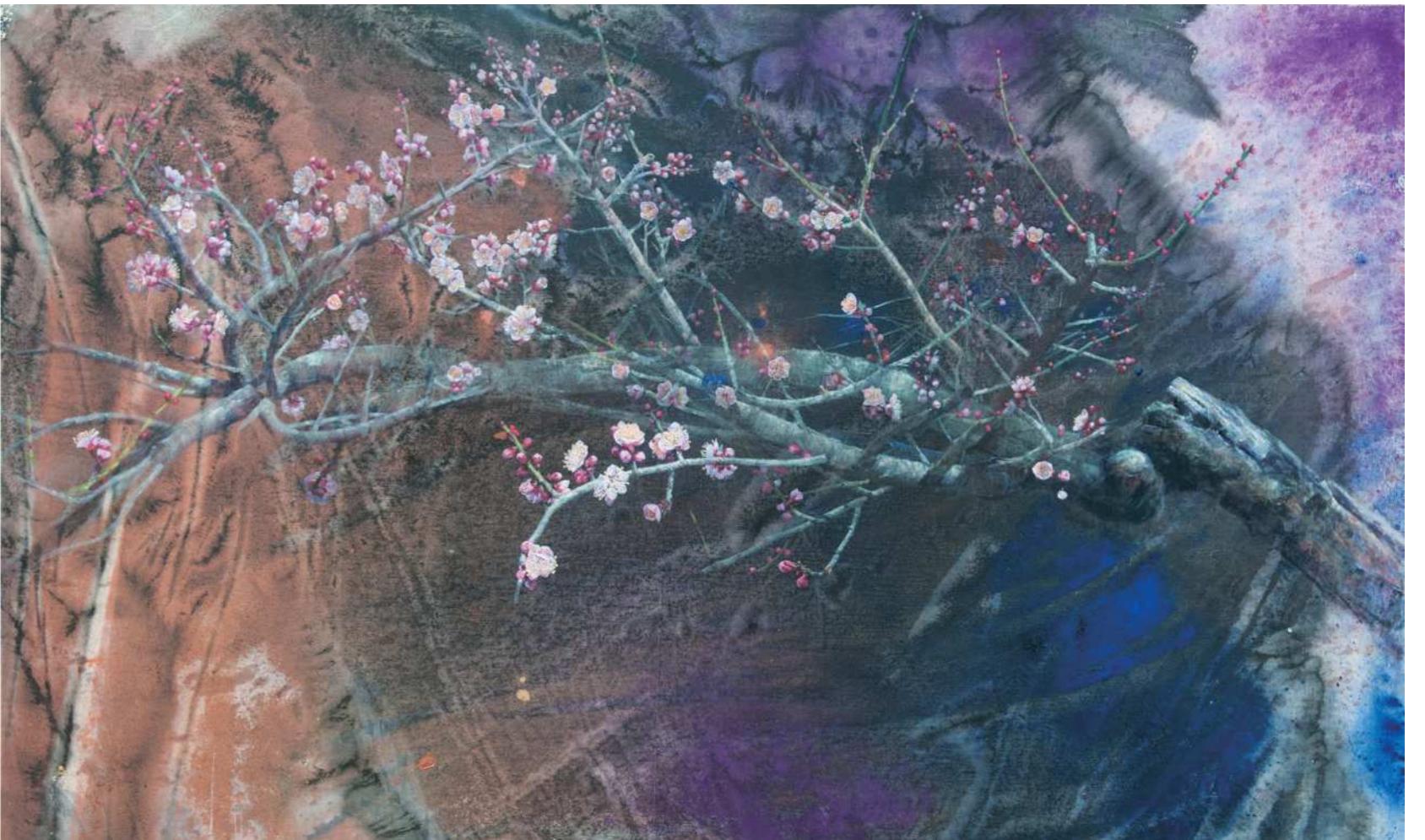
고요한 산자락 고찰 선암사에서 만나는 650년 수령의 선암매.

그 매화의 자태와 향기에 취하는 이른 봄 탐매여행은 언제나 설렘이다.

오랜 세월 버티고 선 고목의 비장함은 은은한 향기가 되기도 하고 굳은 기개가 되기도 하는 것처럼 김민기 님의
시대적 정신 또한 선암사 원통전 담장 옆 선암매처럼 울림과 향기를 전함에 있어 다를바없지 않을까..

바늘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고요해야 진정한 향기를 느낄 수 있다는 뜻에서 귀로 향을 듣는 꽃 매화라 한다면,

김민기 님의 조용한 울림 또한 선암사 돌담길에서 만나게 되는 이른 봄의 설렘이다...



강원도 정선의 사북은 오랫동안 광산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서린 곳이었다. 60~70년대 산업

성장의 밑거름이었던 석탄은 수 많은 노동자를 간도 안에 묻어 버렸고 폐를 망가뜨렸다.

80년 사북에서는 거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일어났고 이는 한국 노동운동의 새로운 출발이었다.

하지만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는 이들의 저항을 철저하게 탄압했고 오랜 시간이 흐른 1992년에야

처음으로 진보정당의 후보인 성희직이 강원도의회 의원으로 선출됐다.

이 사진은 그 이듬해인 1993년 지하 간도 안에서 촬영 된 탄광 노동자의 사진이다.

김민기 선생도 한 때는 보령 탄광의 광부였다.



이원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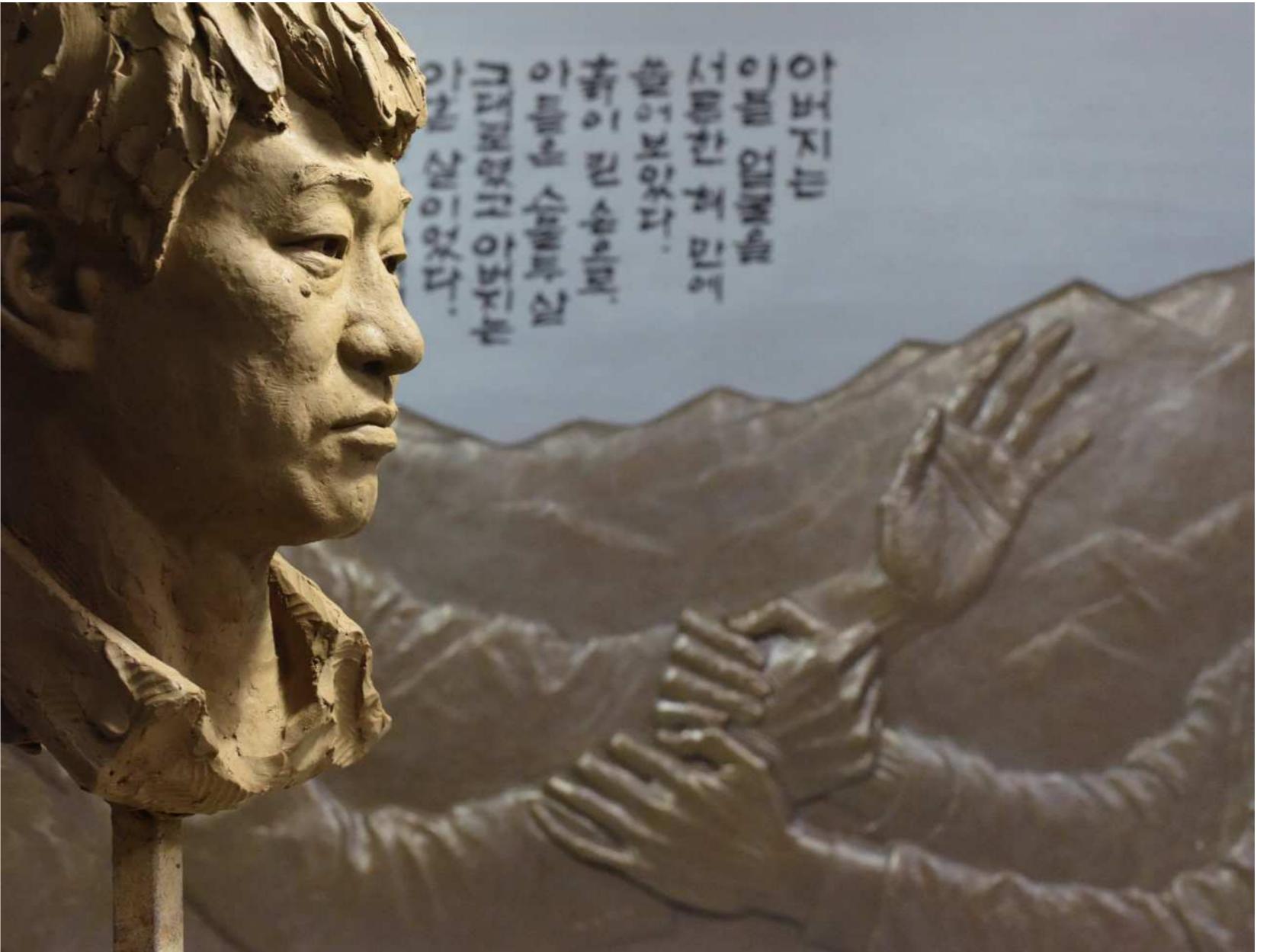
| LEE, WON-SUK

87년,

박종철 열사가 터 준 역사의 새벽길
습관처럼 길거리를 뛰어다니고
그 길바닥에 누워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아침이슬>은 길에서 먼저 함께했다.

일찍부터 아들의 무덤 옆자리 준비해두셨다
한평생 가슴에 묻어둔 아들 곁으로 떠나신 박정기아버님.
두 분의 벅찬 해후를 염원하며 제작했던 기념비

30년 시간 마르지 않은 아침이슬이 낮게 내려앉는다.



이종구

| LEE, JONG-GU

대지는 농부의 육신이며 곡식을 생산하는 농부의 몸은 곧 땅이다.

〈대지의 손〉은 노동하는 농부의 손이다.

거친 손위에 한 줌의 볍씨들이 놓여있다.

노동으로 얻은 곡식이다.

비록 적은 양의 양식이지만 우리 모두 함께 나누어야 하는 거룩한 양식이다.

남한도 북한도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한다.

김민기 노래에도 〈대지의 손〉이 있다.

땀 흘려 거둔 음식 함께 나눠요 힘들여 일하려든 많이 들어요

형님도 아우님도 모여 앉아 함께 들어요

길가는 저 분네도 잠시만 쉬고 함께 들어요

땀 흘려 거둔 음식 함께 나눠요 힘들여 일하려든 많이 들어요

- 김민기, 노래곡 "개똥이"에서 -



▶ 대지의 손-벼 | 105×70.0×10.0cm | 한지부조에 채색 볍씨 | 2004

이중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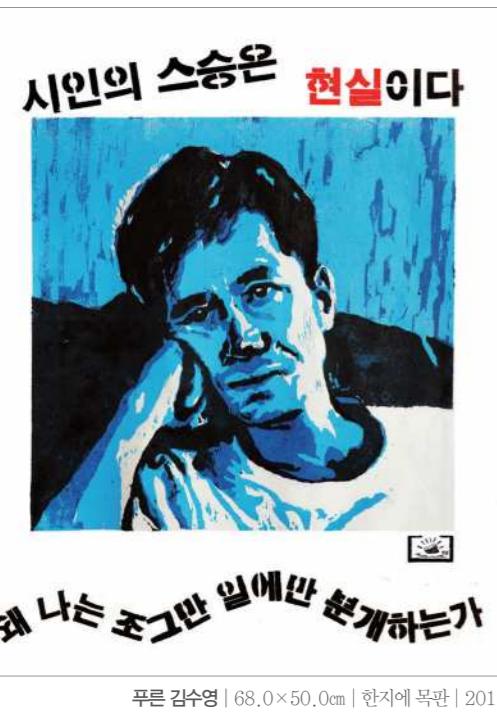
| E, JOONG-JAE

재현의 양이 실재의 양을 넘어선지 이미 오래
지도가 세상을 덮어버린 것은 아닌가
시선은 언제나 기대를 앞지르고
...
그저 '본다', 어쩌면 그것 뿐일지도



이태호

| LEE, TA-EHO



트리뷰트 아티스트

앞장서 예술의 지평을 넓혀온 예술인들.
이들은 세상에 눈뜨기 시작한 젊은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쉼 없이
나의 의식을 일깨우고 있다.
나는 이 분들에 존경의 뜻을 담아
조상을 제작해오고 있다.



김민기 아침이슬 50년
046

오래 전,
기타 반주하던 그의 모습을 떠올리며,
번잡함을 피하는 그의 성격을 생각하며,
최소한의 인물 묘사를 시도함



트리뷰트 아티스트

김민기 아침이슬 50년
047

이 하

| LEE, HA

난 아직도 아침이슬을 들으면 뭉클해진다.
그리운 사람들이 생각난다.

긴 밤 지새우고 풀앞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이슬처럼 내 맘에 설움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동산에 올라 작은 미노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불게 떠오르고 한낮에 째는 더위는 나의 시
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서 러
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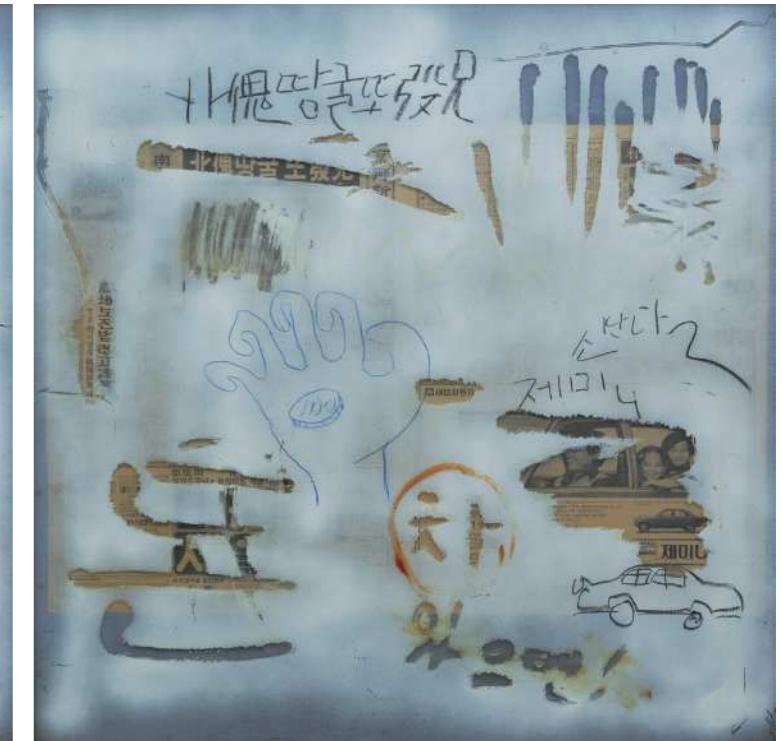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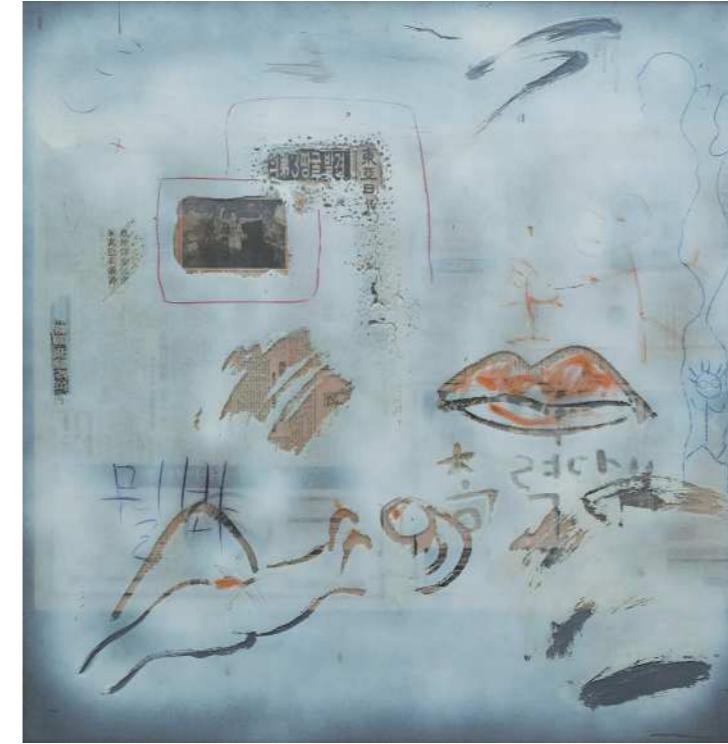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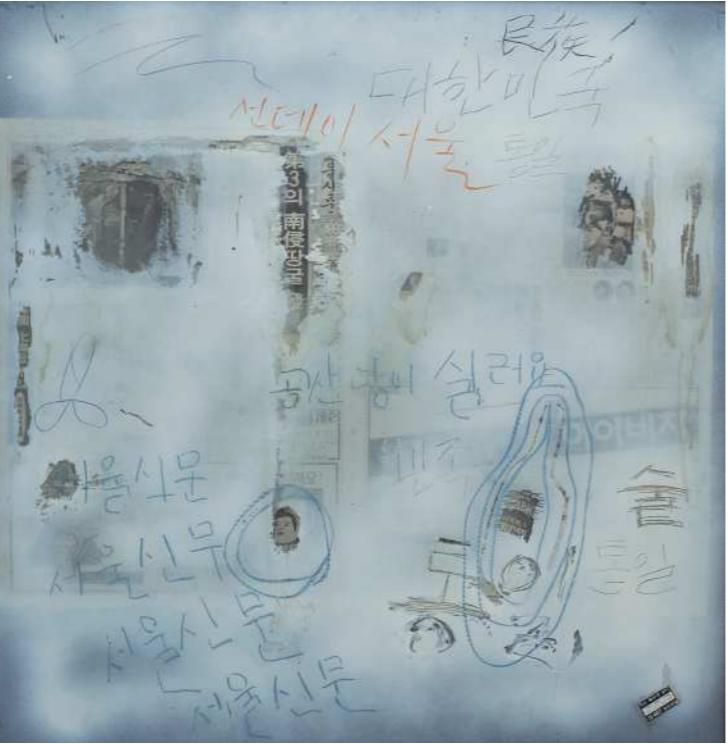
내 맘에 설움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동산에 올
라 작은 미노를 배운다 묘지위에 불게 떠오
르고 더위는 더위로 더위로 더위로 더위로
기운 거친 광야에서 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임옥상

| LIM, OK-SANG

박정희 유신정권은 체제유지를 위해
집권 내내 북한카드를 반복적으로 꺼내들었다.
언론은 앵무새처럼 정권이 부르는 대로 받아썼다.
'땅굴'도 마찬가지였다. 정말 좋은 소재였다.
북한군이 곧 쳐들어 올 악몽에 시달려야했다.
공포의 암울한 1970년대.
그러나 과연 지금의 언론은 어떠한가.



임채우

| LIM, CHAE-WOOK

71년에 발표한 김민기의 아침이슬은 한국 가요사에서 암울했던 시대에

한줄기 빛처럼 어둠을 밝혀준 가장 상징적인 노래가 되었다.

그런 상징성과 역사적인 가치를 담아내고자 그 당시 발매한 LP 판과

커버에 사용된 김민기 이미지를 모티브로 1미터 크기의 보라색 LP 판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정태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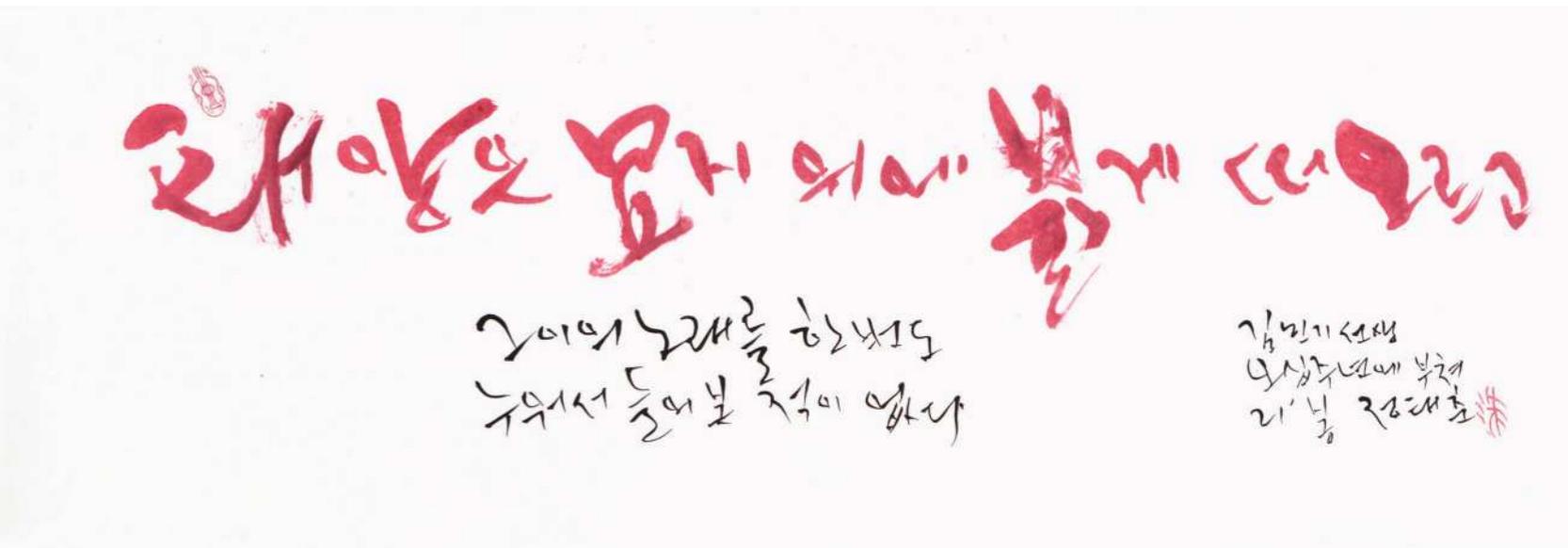
| JOUNG, TAE-CHOON

그이의 노래를 한번도 누워서 들어본 적이 없다.

트리부트 아티스트

▶ 태양은 묘지위에 | 32.0×100cm | 잉크, 먹물, 캘리그라피 | 2020

김민기 아침이슬 50년
054



김민기 아침이슬 50년
055

최호철

| CHOI, HO-CHUL

서울역사박물관에서 2011년 박물관으로 간 지하철 1호선 기획전에 출품한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의 기억을 그린작품.

김민기 선생님의 뮤지컬 지하철 1호선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90년대 서울 지하철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다.



'야간작업-2'는 1984년에 제작한 본인의 고무판화 그림 (43X54cm)이다.

당시 동대문 창신동과 청계천 일대에 있었던 소규모 봉재공장의 일상을 그린 그림이다.

이러한 열악한 노동현장의 이야기는 김민기 작자 작곡한 노래곡 "공장의 불빛"으로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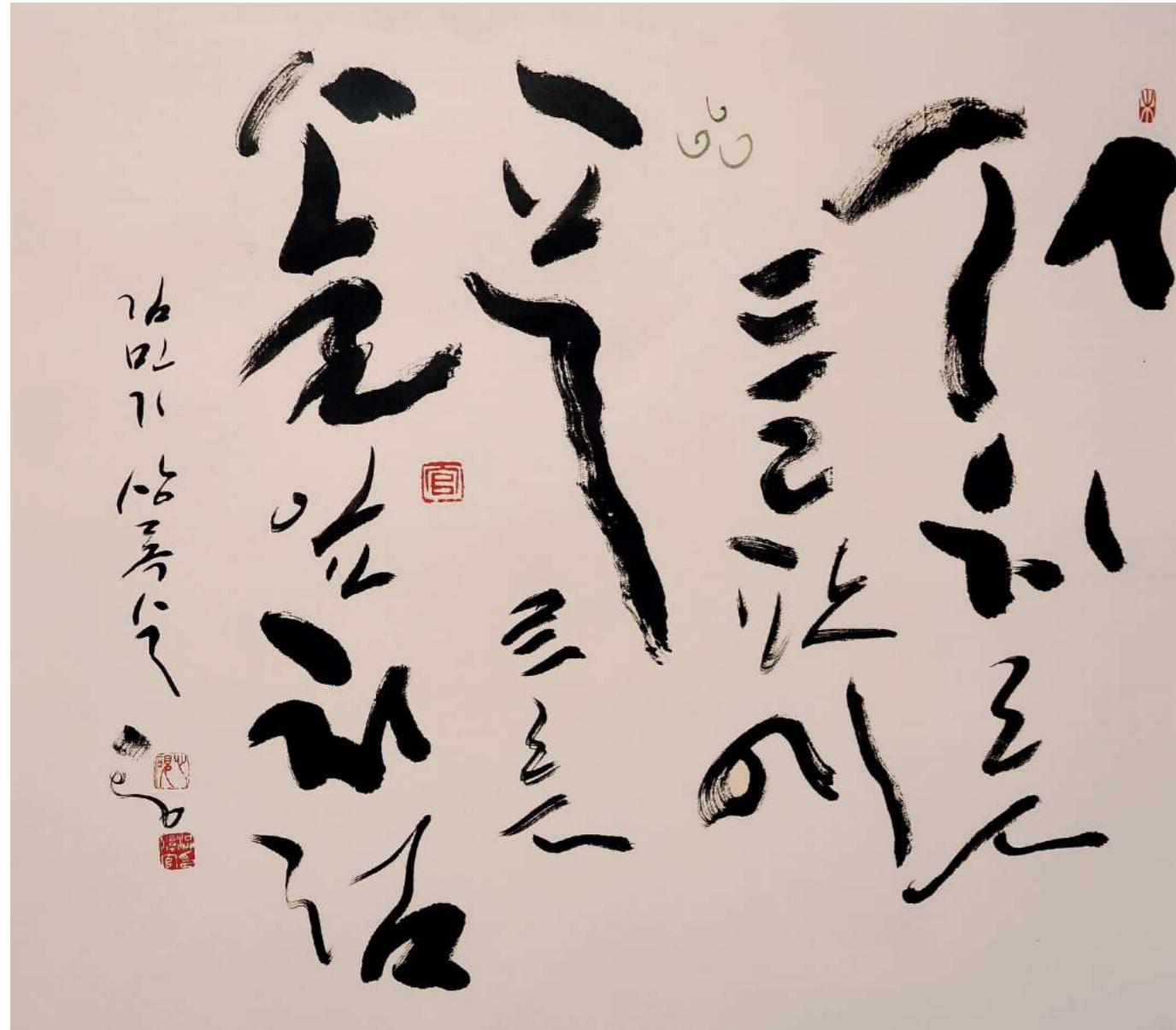
이것은 소위 '불법' 노래테이프로 복사되어 전국에 뿌려졌으며 대학가나 진보적인 교회단체에서 수없이 공연되었다.

〈김민기, 아침이슬 50년〉 전시회를 앞두고 당시에 그렸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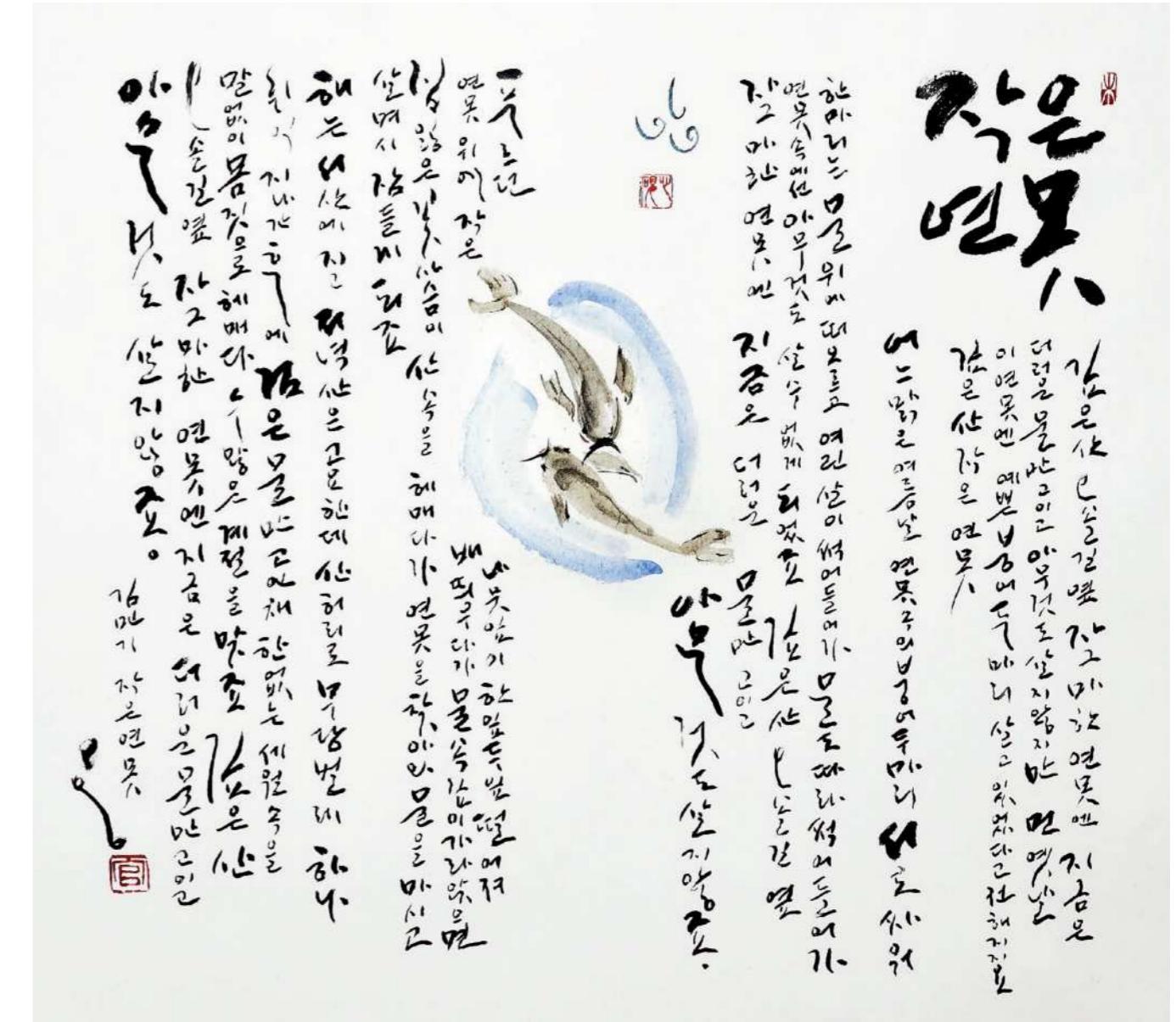
고무판화그림 '야간작업-2'를キャン버스천에 아크릴 물감으로 리메이크했다.



김민기가 쓴 '상록수'는 김민기 그 자체이다. 김창남이 쓴 <김민기> 86년 초판본에 '상록수' 제목아래 마치 원제목처럼 붙어있는 '거치른 들판에 푸르른 솔잎처럼'을 썼다. 그의 노래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작은 연못'이다. 곡의 완성도나 노랫말의 완성도를 말한다면 이 노래가 으뜸이라고 생각한다. 노랫말 전문을 쓰며 또 한 번 감동이었다.



거치른 들판에 푸르른 솔잎처럼 | 90.0×100cm | 한지, 먹 | 2021



작은 연못 | 100×110cm | 한지, 먹 | 2021

TRIBUTE ARTISTS PROFILE

트리뷰트 아티스트 연혁

김수남 Kim, Soo-Nam



(1949~2006) 제주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를 입학, 연세춘추 편집장을 맡으며 광주 철거민 수용소 촬영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동아일보 출판사진부에 입사하여 '공간'지에 '전통의 현장'을 연재하였고, '한국의 굿'을 출간하여 제13회 오늘의 책 수상하였으며 '일본 하시가와(東川)상 해외작가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한국의 굿- 만신들 1978-1997>, <살아있는 신화 ASIA>, <아시아의 하늘과 땅> 등이 있으며, 주요 단체전으로는 <빛과 소리의 ASIA>, <Schamaninnen in Korea>, <삶의 경계> 등이 있다.

김창남 Kim, Chang-Nam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신문학과에서 석사와 박사과정을 마쳤다. 1980년대부터 문화평론가, 대중음악평론가로 활동해왔고 한국대중 음악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성공회대학교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및 문화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장, (사)더불어숲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의 문화편력기>, <대중문화의 이해>, <신영복평전>(공저) 등 여러 책을 썼고 <김민기>, <대중음악과 노래운동 그리고 청년 문화>, <대중음악의 이해> 등 여러 책들을 엮었다.

김보중 Kim, Bo-Joong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를 졸업하고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M.F.A.)을 졸업하였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3개방에 의한 풍경>, <흐르는가주지 - 길>, <전현림미술상 수상기념전> 등이 있으며 주요 단체전으로는 <명불허전 #2 미술상 수상작가를 말하다>, <2019 사람-강>, <기족의 정원> 등으로 200여회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2018에 전현림미술상을 수상하였다.

박경훈 Park, Kyong-Hoon



제주도에서 나고 자랐으며, 제주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했다. 4.3미술운동을 전개했으며, 탐라미술 인협회, 제주민예총 등의 예술인단체활동을 했다. 40여점의 4,3연작 판화를 제작하였고, 2010년에 제주도 알뜨르비행장에서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격납고에 작품을 설치한 개인전을 열기도 했으며, 4.3미술제를 비롯한 다수의 단체전에 출품했다. 현재 동아시아평화프로젝트 준비위원회 위원으로서 평화예술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박영균 Park, Young-Gyun



경희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후 동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하였다. 1997년 1회 개인전을 시작으로 14회의 개인전을 진행하였다. 최근 개인전으로는 <들여다 듣는>, <꽃밭의 역사>, <어른동화> 등이 있다. 최근 단체전으로는 <오월전 봄. 그리고, 봄>, <어떤풍경>, <전태일50주기 노동미술전>, <시점時點·시점視點: 1980년대 소집단 미술운동 아카이브> 등이 있다.

박재동 Park, Jae-Dong



울산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초 중 고시절을 보냈는데 집이 민화가게라 민화를 많이 보고 그리며 자랐다. 미술대학을 나와 미술교사를 하다가 한겨레신문 시사만화 공모에 당선되어 한겨레시사만평 '한겨레 그림판'을 담당하였고 애니메이션 제작도 하였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를 하다가 정년퇴임 하였다. 현재 경기신문 시사만평 '박재동의 손바닥 아트'를 연재하고 있으며 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에서 개리커처도 그려 주고 그 밖의 작품을 하고 있다.

레오다브 Leodav



1998년부터 그래피티를 시작하여 2013 본격적으로 삼청동 정독도서관 외벽에 독립운동가 그래피티를 시작하였다. 주요 활동으로는 SM엔터테이먼트 NCT DREAM "갓 HOT SAUCE" 그래피티, 광복 75주년 기념식 <독립영웅 11인의 청춘전>, 광복 75주년 기념 특별전 <위인덕분에> 등이 있으며, 3.1운동 100주년 기념 태극기 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현재는 LAC대표이면서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다.

서원미 Seo, Won-Mi



주요 개인전으로는 <블랙 커튼>, <Facing> 등이 있고, 주요 단체전으로는 <제7회 종근당 예술자상>, <또 다른 밤>, <동아시아 평화 예술 프로젝트 2019: 섬의노래>, <회화의 시간> 등이 있으며 미국 <International Biennial Portrait Competition>과 홍콩 <Asia Contemporary Art Show>에 참여하였다. 2019년에는 Wausau Museum of Contemporary Art (IBPC)작가로 선정되었다.

양동규 Yang, Dong-Gyu



주요 개인전으로는 <섬, 섬> 대안공간 아트포럼리 이종교배 프로젝트 등이 있으며 주요 단체전으로는 4.3미술제 <어떤풍경>, <봄이 왔습니다>, 제27회 4.3미술제 <레일>, <꽃땅별하늘>, 미술관 등에서 40여회의 개인전 및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최근에는 모나무루 갤러리, 돈화문 갤러리, 예술의 전당, 뉴욕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현재 세종대학교 예체능대학 회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강화 Lee, Kang-Hwa



서울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국립8대학 조형예술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였다. 서울, 프랑스 파리, 독일 핫센 주립 미술관 등에서 40여회의 개인전 및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최근에는 모나무루 갤러리, 돈화문 갤러리, 예술의 전당, 뉴욕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현재 세종대학교 예체능대학 회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상엽 Lee, Sang-Youp



사진가, 르포라이터, 기획자이다. 다큐멘터리사진가, 프레시안 기획위원, 시사인,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칼럼니스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를 맡고 있다. 전 전보신당 정책위부의장, 문화예술위원회 준비위원장. 8년 넘게 다큐멘터리사진 전문 웹진 〈이미지프레스〉를 운영했다. 〈레닌이 있는 풍경〉, 〈낡은 카메라를 들고 떠나다〉 등을 쓰고 〈변경의 역사〉 등을 전시했다. 네이버 '오늘의 포토' 심사위원, 한국판 〈내셔널지오그래픽〉 심사위원을 지냈다. 백제예술대 등을 출강했고, 지금은 서울시립미술관 사진아카데미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중재 E, Joong-Jae



1992년 시지각생산집단 '푸른사람들' 조직, 95년 〈K박사의 연구〉를 시작으로 부조리의 시각화를 꽤하고 이어 웹에 기반한 각양 각종의 실험을 도모하며 스트리밍아트, 메일아트, 네러티브게임 등등을 개발, 이른바 예술의 세이브save를 기획하였다. 97년부터 2004년까지 〈피해보고서〉 3부작을 제작하여 국가-시장-가족을 통관하는 아이디올로지에 주목하고 여기서 일련의 시지각생산활동을 일단락하였다. 06년부터 2013년까지 도시기록작업을 진행, 이와 관련한 여러 기관, 단체 등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 진술들을 긴행하였다.

이원석 Lee, Won-Suk



경주 출생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및 동 미술대학원 조각과를 졸업하였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비대한 숨〉, 〈야만〉, 〈슬픈 집〉 등이 있고, 2000여 회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주요 공공미술로는 일제강점기 징용노동자상 제작, 〈인물 초상 그리고 사람〉, 〈광장〉, 〈소화: 한국 근현대 드로잉전〉, 〈코리아 투모로우 2017: 해석된 풍경〉, 〈광복 70년 위대한 흐름 "소란스러운, 뜨거운, 넘치는"〉 등이 있다. 현재 중앙대학교 미술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종구 Lee, Jong-Gu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졸업하였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광장 봄이 오다〉, 〈리얼리즘의 복권〉, 〈국토: 세 개의 풍경〉, 〈올해의 작가〉 등이 있으며, 주요 단체전으로는 〈공·현대불교미술전〉, 〈인물 초상 그리고 사람〉, 〈광장〉, 〈소화: 한국 근현대 드로잉전〉, 〈코리아 투모로우 2017: 해석된 풍경〉, 〈광복 70년 위대한 흐름 "소란스러운, 뜨거운, 넘치는"〉 등이 있다. 현재 중앙대학교 미술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임옥상 Lim, Ok-Sang



1950년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회화과 및 동대학원, 프랑스 앙굴렘 미술학교를 졸업했다. 광주교대, 전주대 미술학과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민족미술협의회 대표를 지냈다. 〈나는 나무다〉, 〈아프리카 현대사〉, 〈In the Spirit of Resistance(NY)〉, 〈바람일다〉, 〈The Wind Rises(LA)〉, 〈Heurk(HongKong)〉 등 개인전 21회 〈십이월전〉 현재 (사)세계문화연구소 대표이사, (사)자문박물화포럼과 (사)흙과 도시에서 부이사, 임옥상미술연구소 대표이다.

임채욱 Lim, Chae-W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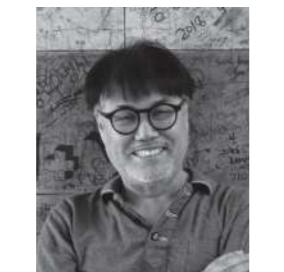
1970년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를 졸업하였다. 자하미술관, 실상사, 금보성 아트센터, 아리아트센터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으며, 주요 개인전으로는 〈블루마운틴〉, 〈지리산 가는 길〉, 〈인수봉〉, 〈인터넷 설악선〉 등이 있다. 주요 단체전으로는 〈꽃땅별하늘〉, 〈창원조각비엔날레 2018〉, 〈신동유도(新夢遊圖)〉, 〈신동유도(新夢遊圖)〉 등이 있다.

정태춘 Joung, Tae-Choon



사회성짙은 '한국적 포크'를 추구해온 대한민국의 가수, 시인, 사회운동가이다. 1978년 첫 앨범 〈시인의 마을〉을 발표, MBC 신인가수상과 TBC 가요대상 작사상을 수상하였다. 한국의 대표적인 음유시인으로 불린다. 〈기요 검열제 폐지 운동〉을 전개하여 1996년 헌법재판소의 '기요 사전심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으며 '민족예술상' (박은옥과 공동수상), 2007년에는 '한국대중음악상'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2000년 경부터 노래 창작을 접고 〈붓글〉 작업을 하고 있으며, 소전시를 열기도 하였다. 2010년에는 〈사람들 2010〉을 발표하였고, 40년 동안 100여 곡이 넘는 곡을 만든 싱어송라이터로서 대표곡으로는 〈촛불〉, 〈떠나가는 배〉, 〈북한강에서〉, 〈92년 장마, 종로에서〉, 〈5.18〉 등이 있다.

이태호 Lee, Ta-Eho



홍익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근대 짱들의 역사II〉, 〈Seeding Arts, Flowering Hope: 藝耕我城〉, 〈일기〉, 〈The Four Seasons〉 등이 있으며 주요 단체전으로는 〈나무, 그림이 되다〉, 〈미술로 보는 한국 근현대역사전〉, 〈말하고 싶다〉, 〈시대를 보는 눈 : 한국근대미술〉, 〈그림과 말 2020〉 등이 있다.

이 하 Lee, Ha



다수의 개인전 및 단체전에 출품했으며, 특히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믿고 행하는 풍자전문 길바닥 화가'라고 자칭하며 행동주의예술로 사회참여적인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성주, 목포 신항, 봉하마을을 비롯하여 전국 20여개 도시에서 '이하의 아트투어' 행사를 진행하였다. 2014년에는 진도 팽목항에 세월호 희생자 추모포스터를 부착하였고 개판 박근혜 스티커, 문재인&안철수 포스터 부착, 2011년에는 종로 일대에 이명박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의 스트리트아트 활동을 해왔다. 현재 SNS에 '이하의 풍자일기'를 연재 중이다.

최호철 Choi, Ho-Chul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하였고 청강문화산업대학원 만화콘텐츠클 교수를 역임하였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기억이 담긴 공간〉, 〈동네화기전〉, 〈곁에 있는 풍경전〉 등이 있고 최근 주요단체전으로는 〈족쇄와 코뚜레〉, 〈만화로 보는 대한민국 (인권특별전)〉 (키워드 한국미술2017: 광장예술-햇불에서 촛불로) 등이 있다. 저서로는 『최호철의 걷는 그림: 최호철의 크로키북 1984~2010』, 『펜 끝 기행』 등이 있다. 현재 서울웹툰아카데미(SWA) 교수로 재직 중이다.

홍성담 Hong, Sung-Dam



조선대학교 미술과를 졸업한 후, 광주자유미술인 협회를 결성하여 현장미술을 중심으로 한 민중 미술운동을 전개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광주오월민중항쟁 연작판화 〈새벽〉, 환경생태 연작그림 〈나무물고기〉, 동아시아의 국가주의에 관한 연작그림 〈아니쿠니의 미망〉, 제주도의 신화 연작그림 〈신들의 섬〉, 예수 수난그림 14처 〈오월의 예수〉 연작, 신문사진 분석법에 관한 연작그림 〈사진과 사의〉, 국기폭력에 관한 연작그림 〈유신의 초상〉, 세월호 연작그림 〈들숨 날숨〉 등이 있다. 국제 엔비스타가 1990년 '세계의 3대 양심수로' 선정하였으며, 뉴욕의 국제정치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가 '2014년 세계를 뒤흔든 100인의 사상가 THINKER로' 선정하기도 했다.

홍순관 Hong, Soon-Gw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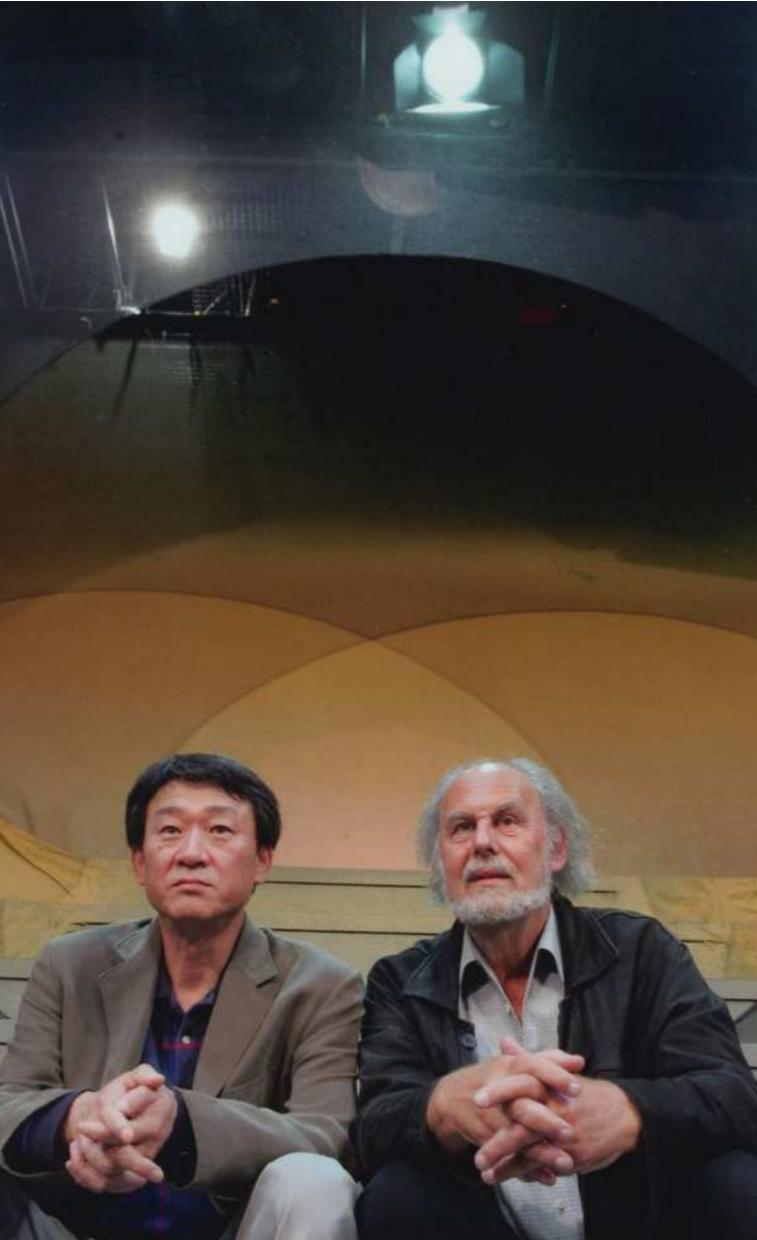
열 살에 서예와 미술을 시작하여 대학에서 조소를 전공했다. 이후, 무용무대미술가, 방송진행자, 기획연출가,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했다. 지금까지 생명·환경·평화를 주제로 독일, 러시아, 미국, 일본을 비롯한 15개 국가에서 공연하였고 10장의 정규음반과 5권의 책을 발표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시간은 나무처럼〉, 〈역설의 꽃 평화전〉 등이 있다. 현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홍보대사, 비영리단체 '춤추는 평화'의 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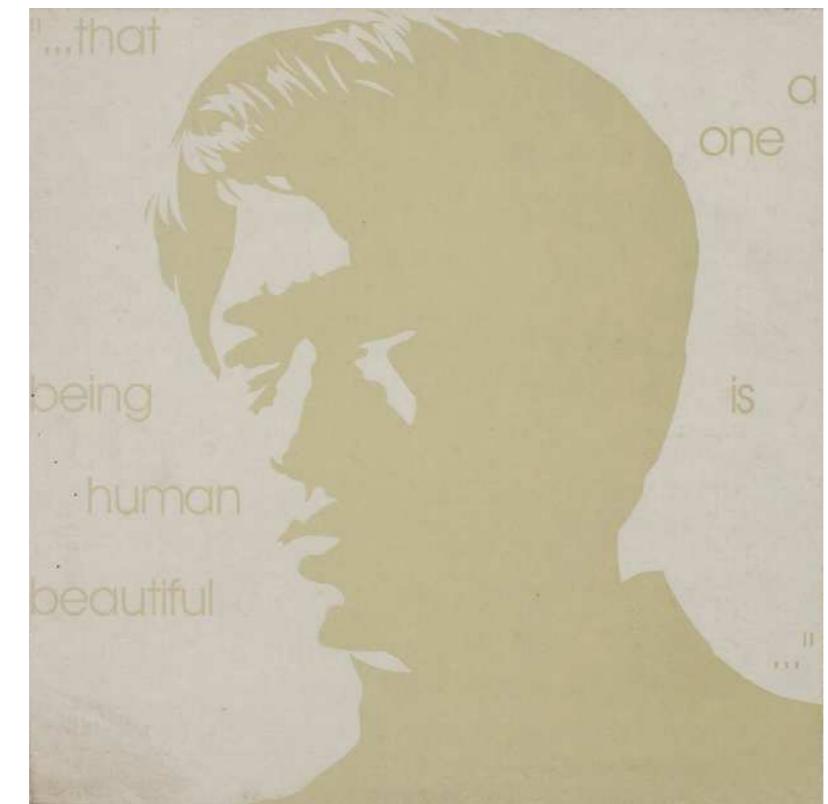
KIM MINGI ARCH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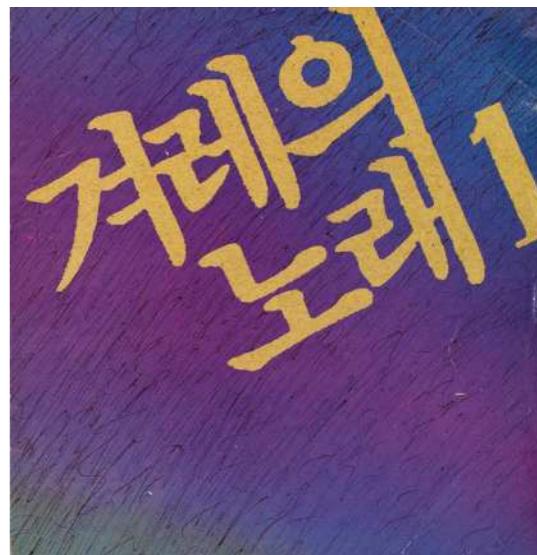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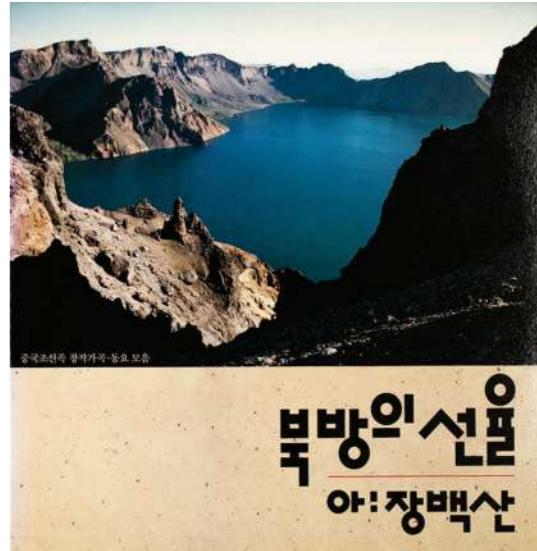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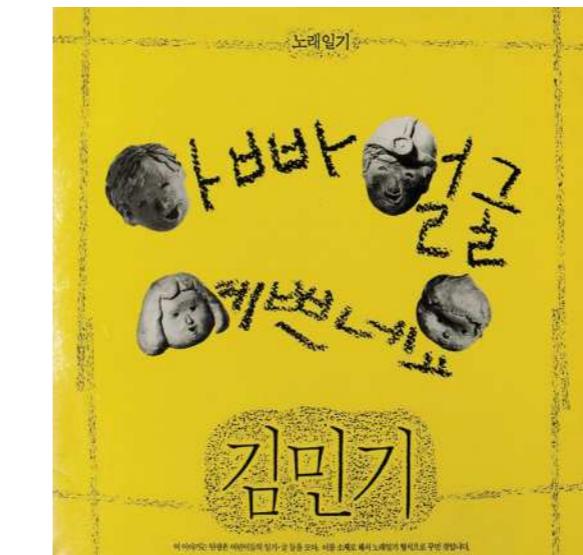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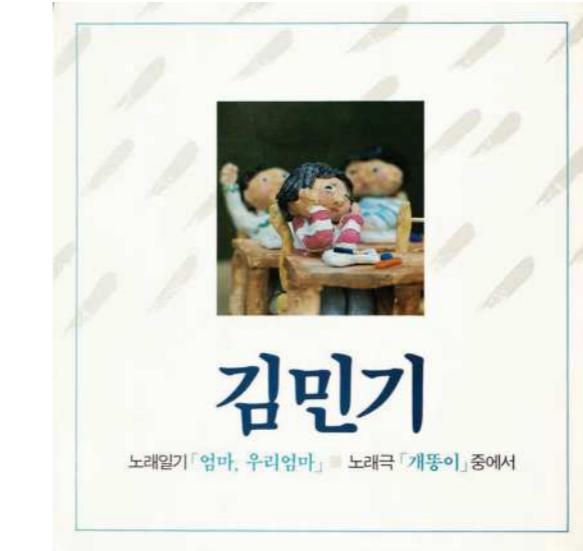
김민기 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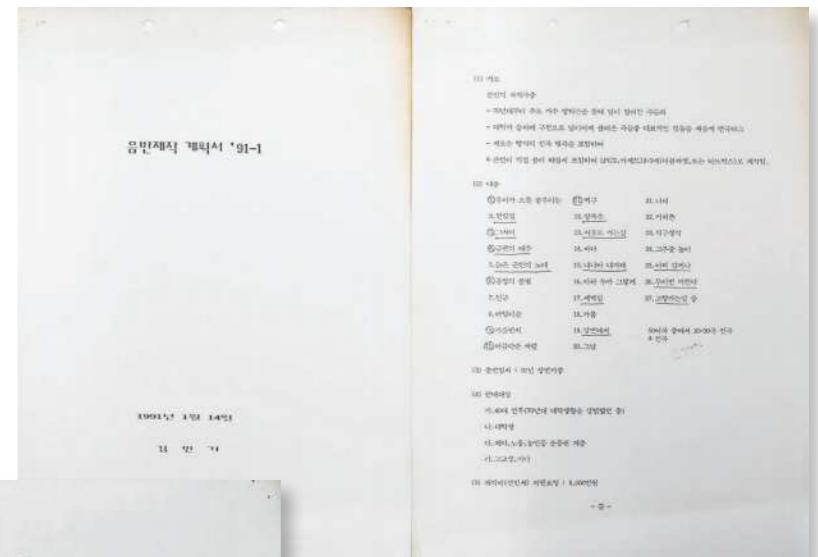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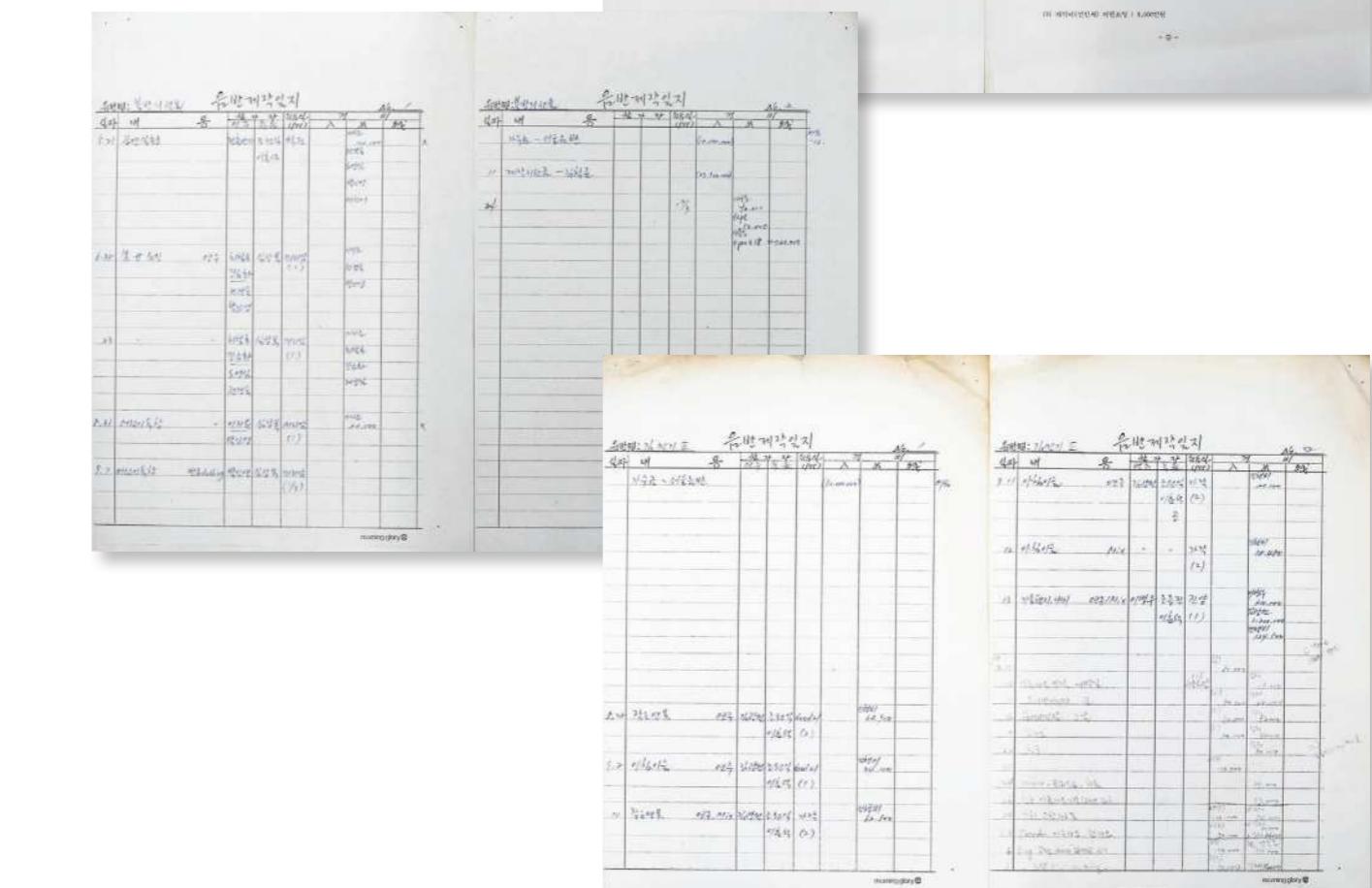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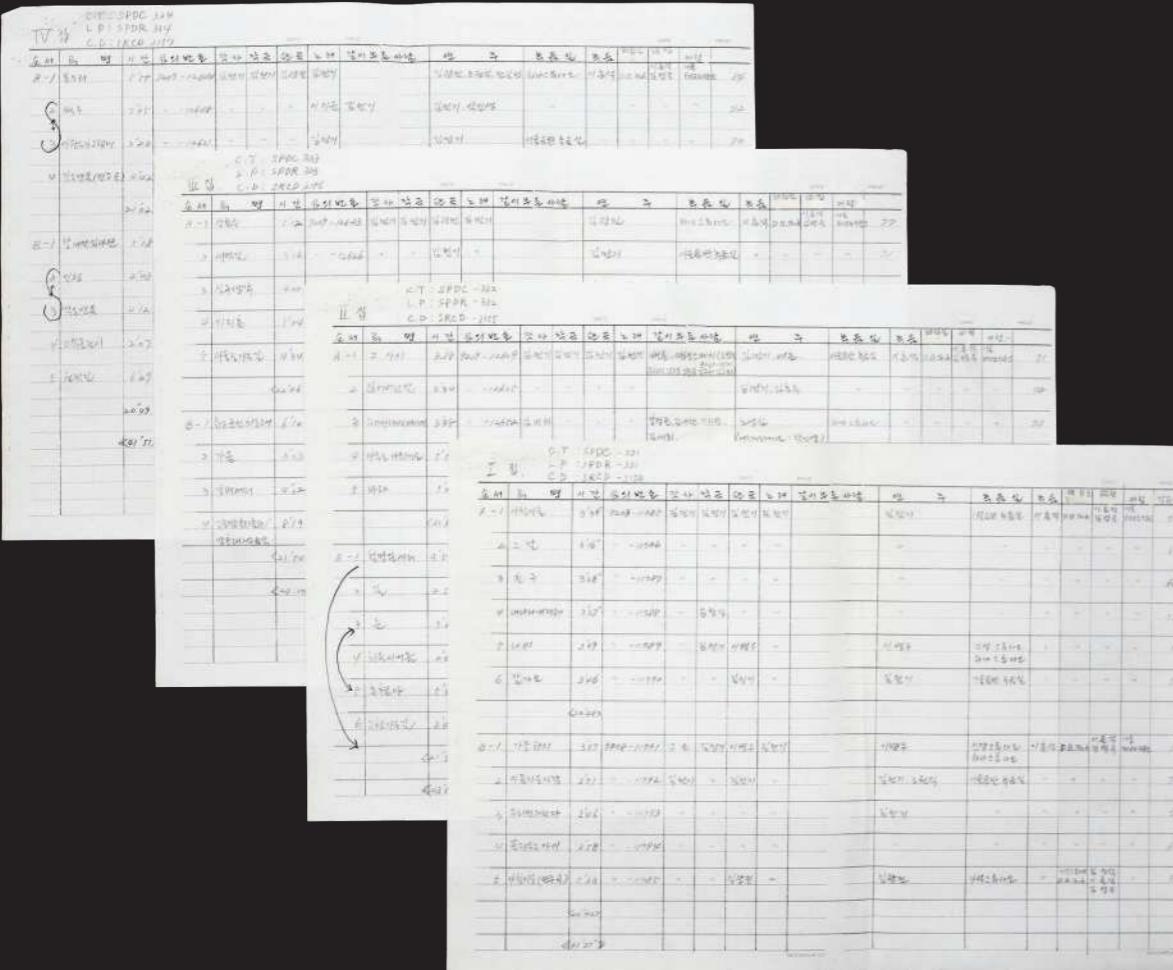
김민기
아카이브
50주년











No. 曲名 0101010101 作詞
作曲
編曲

Song: Gm F# Bb D# Bb E# F# Bb Gm Bb F# Bb D# F# Bb Gm F# Bb D# Bb C# Gm

(A) Gm F# Bb D# Bb E# F# Bb Gm Bb F# Bb D# Bb E# F# Bb Gm Bb D# A D E# (D)

(B) Gm F# Bb D# Bb E# F# Bb Gm Bb F# Bb D# Bb E# F# Bb Gm Bb D# A D E# (D)

(C) Gm F# Bb D# Bb E# F# Bb Gm Bb F# Bb D# Bb C# Gm

No. 曲名 0101010101 作詞
作曲
編曲

Intro F#

Bm Dm A P E# (?)

(A) A D A F#

Bm Dm A D E# (?)

Bm Dm A D E# (?)

Coda A D A F#

Bm Dm A D E# (?)

Bm Dm A D E# (?)

Fine

No. 曲名 01010101 作詞
作曲
編曲

Song F# B# E# Am D (G#)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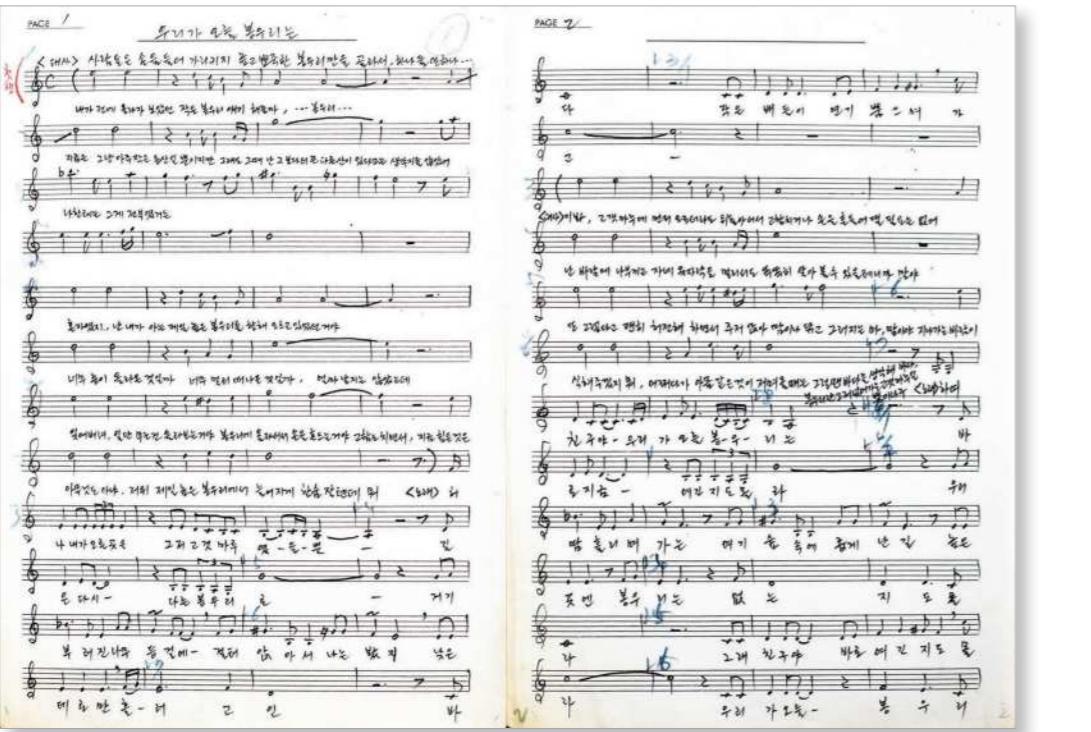
Bassoon B# Em C D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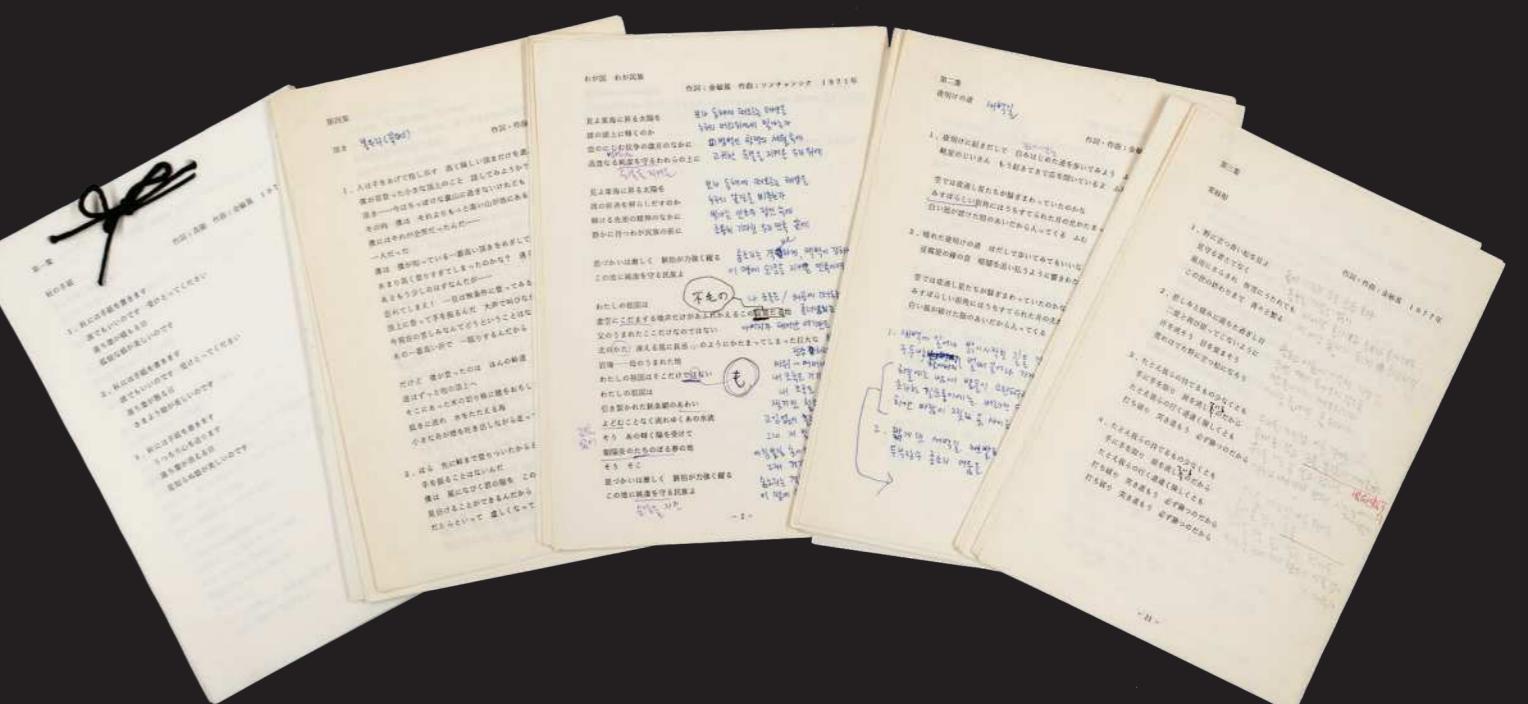
C Am Dm G# B# Am F# G# C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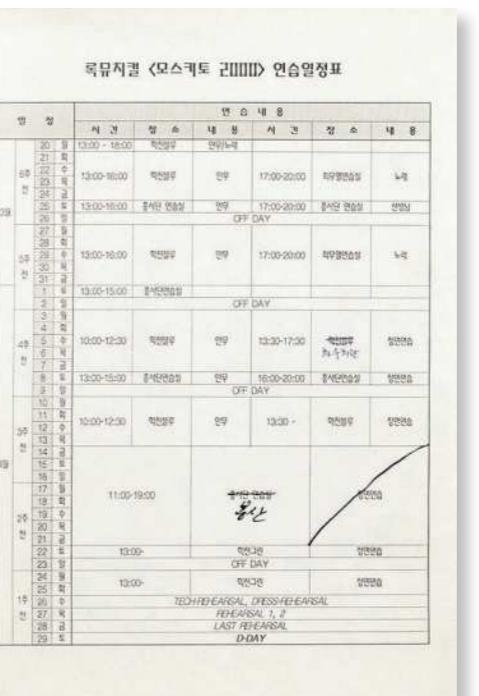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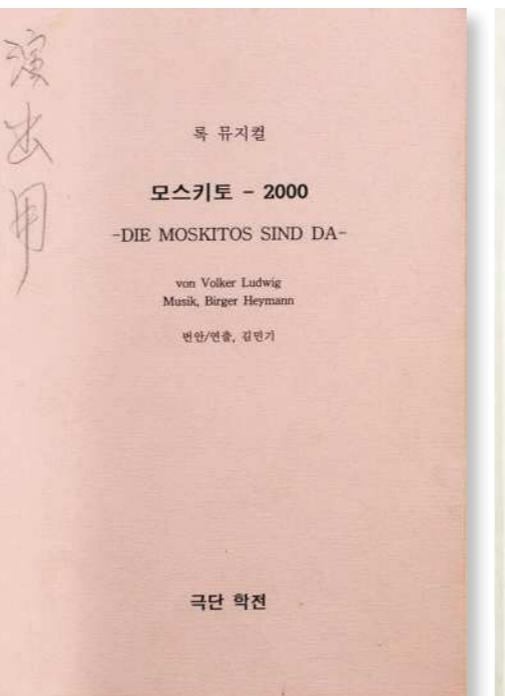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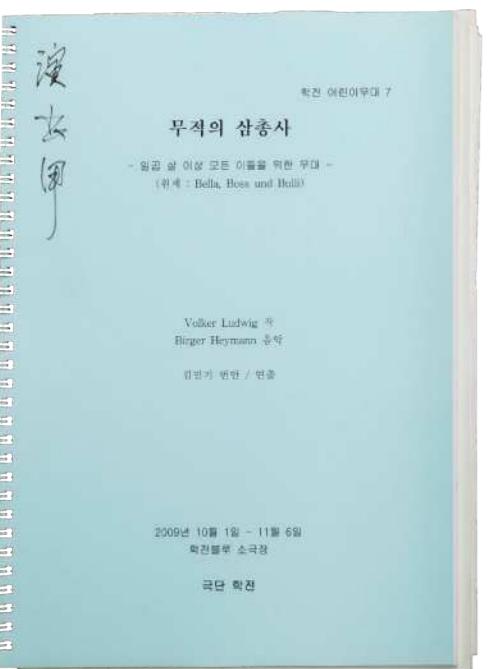
F# B# G# C ? B# Dm E#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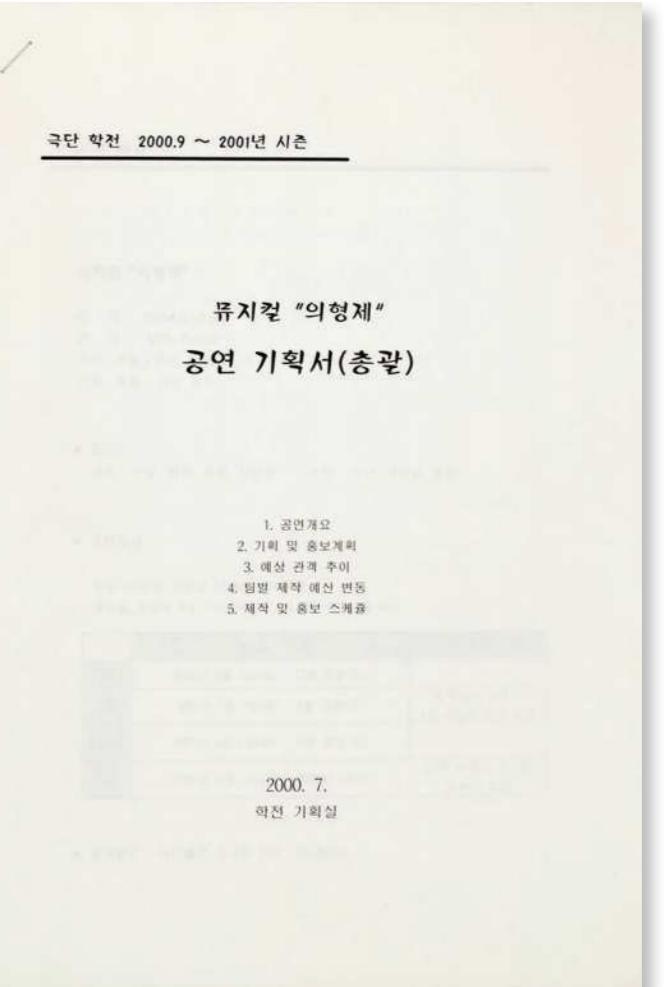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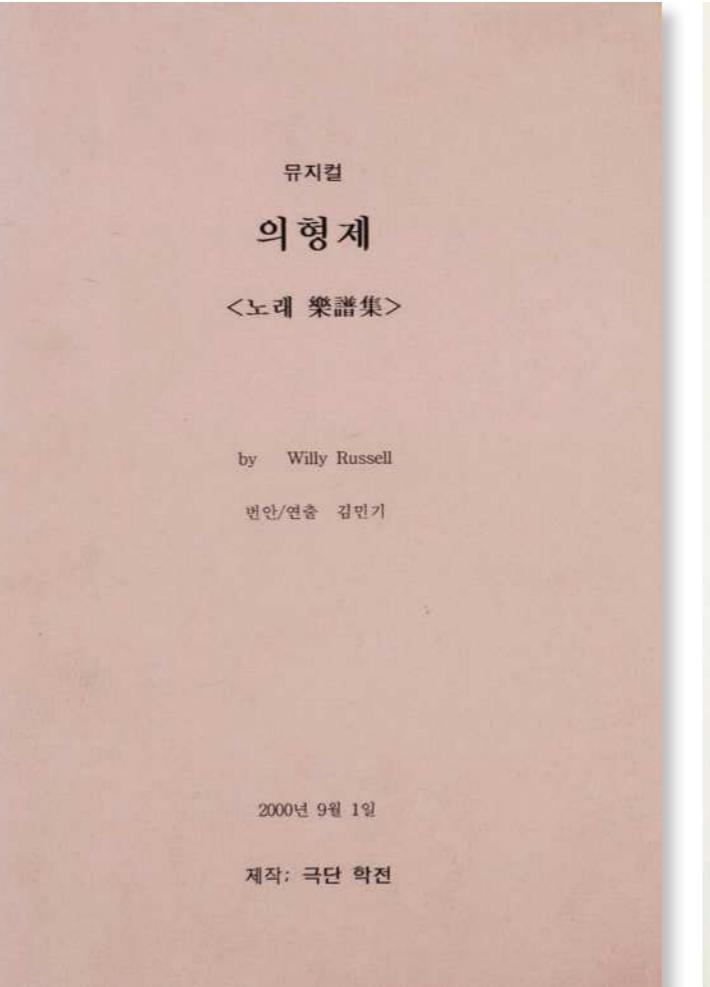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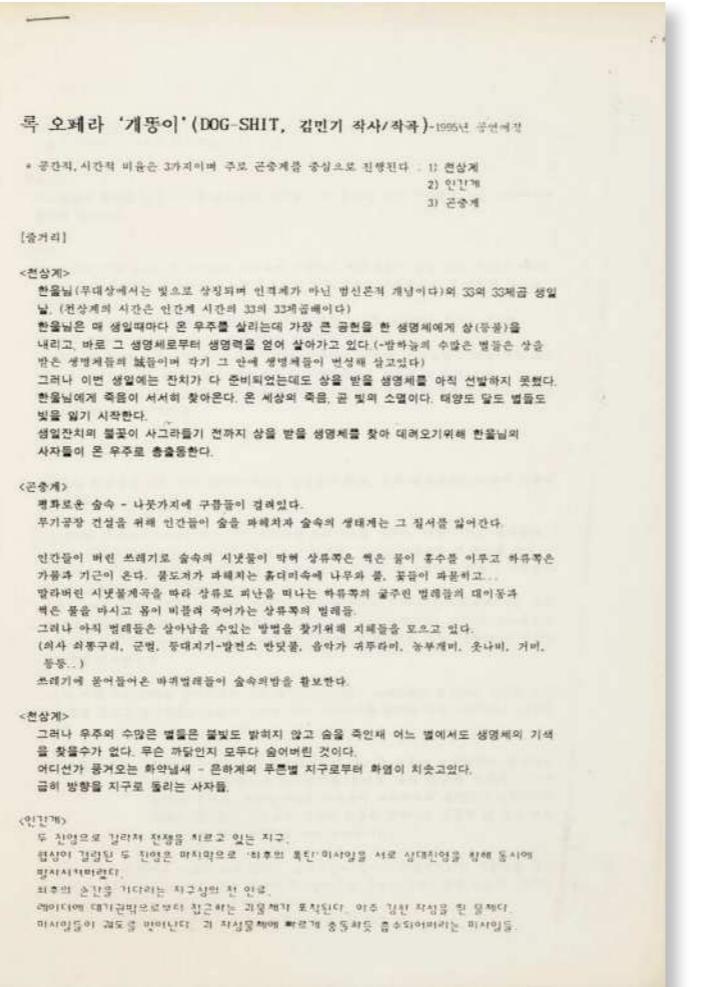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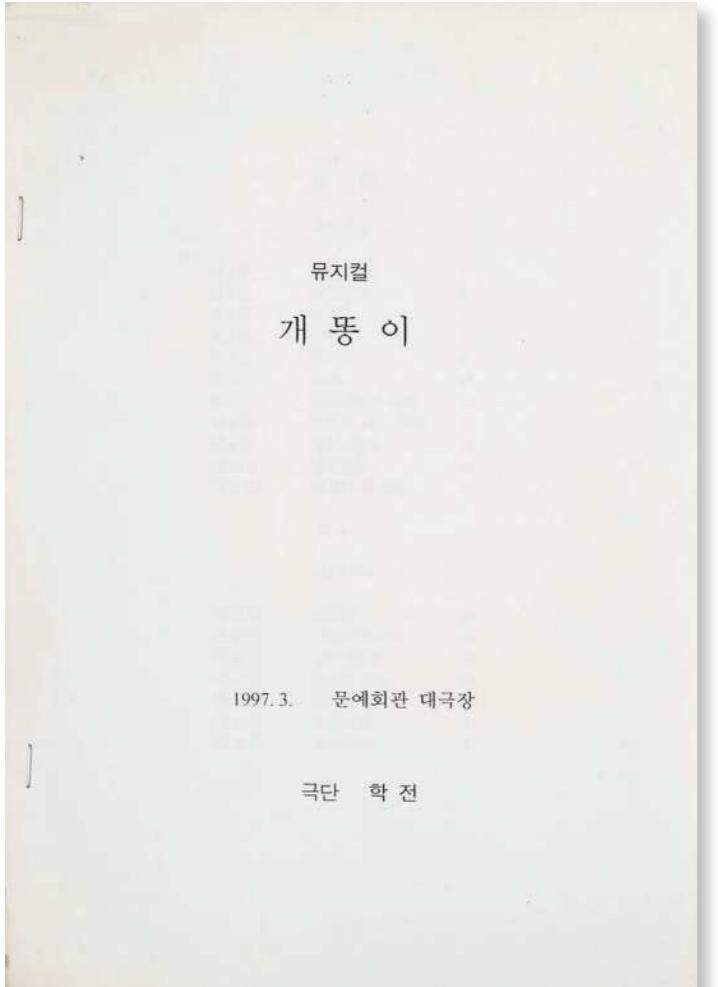
C B# F# F# B# C G# C F#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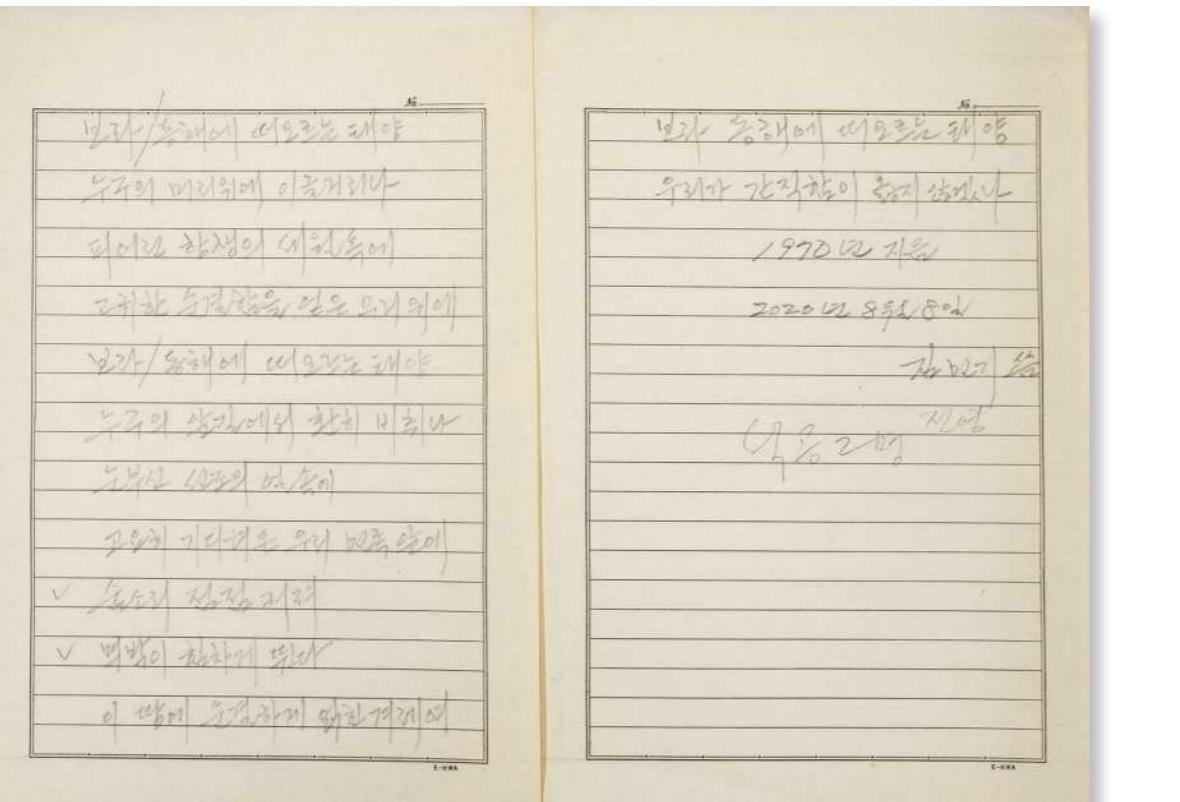












들도 애용하기념관 전정에 설치 된 '내 나라 내 경례' 노래비

10-1

番: 361-0420 이동영차장(영화부)
번호: 742-4444 휴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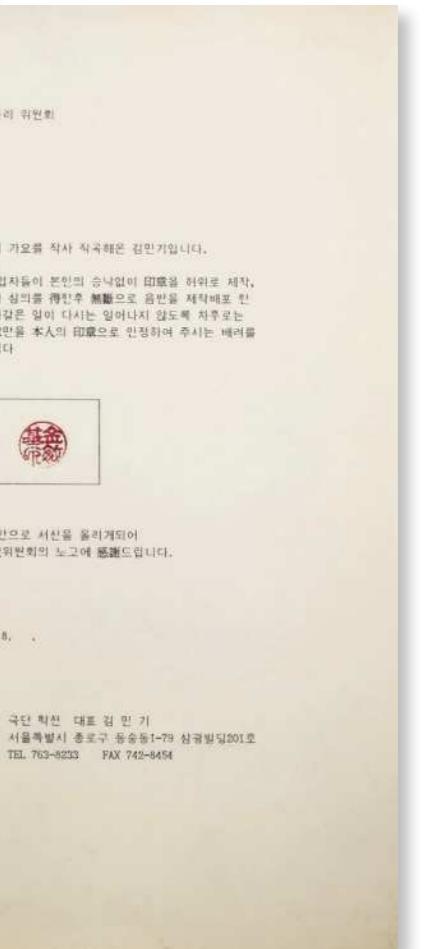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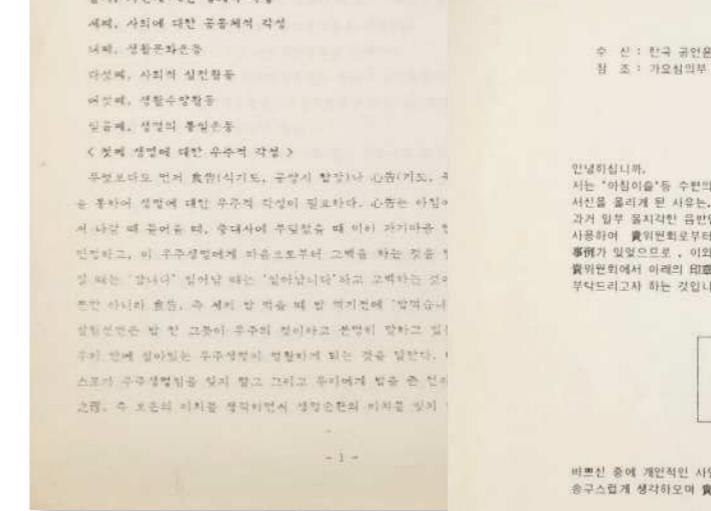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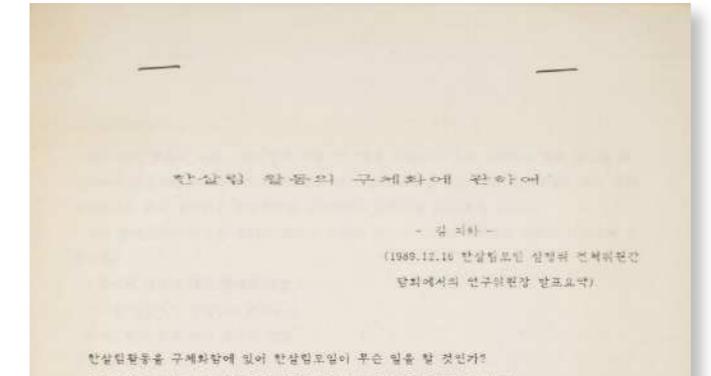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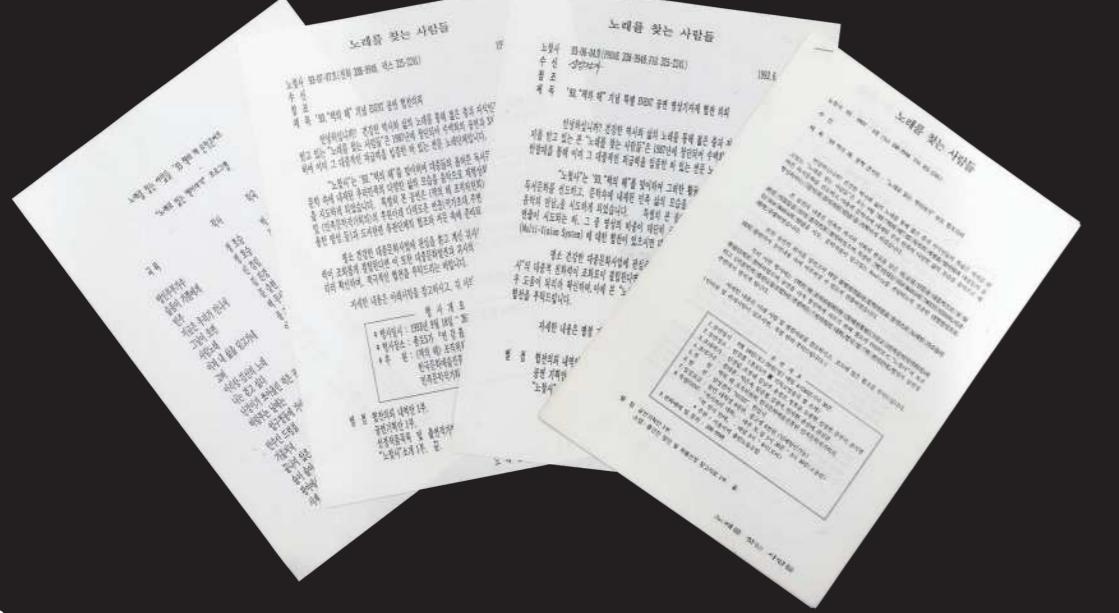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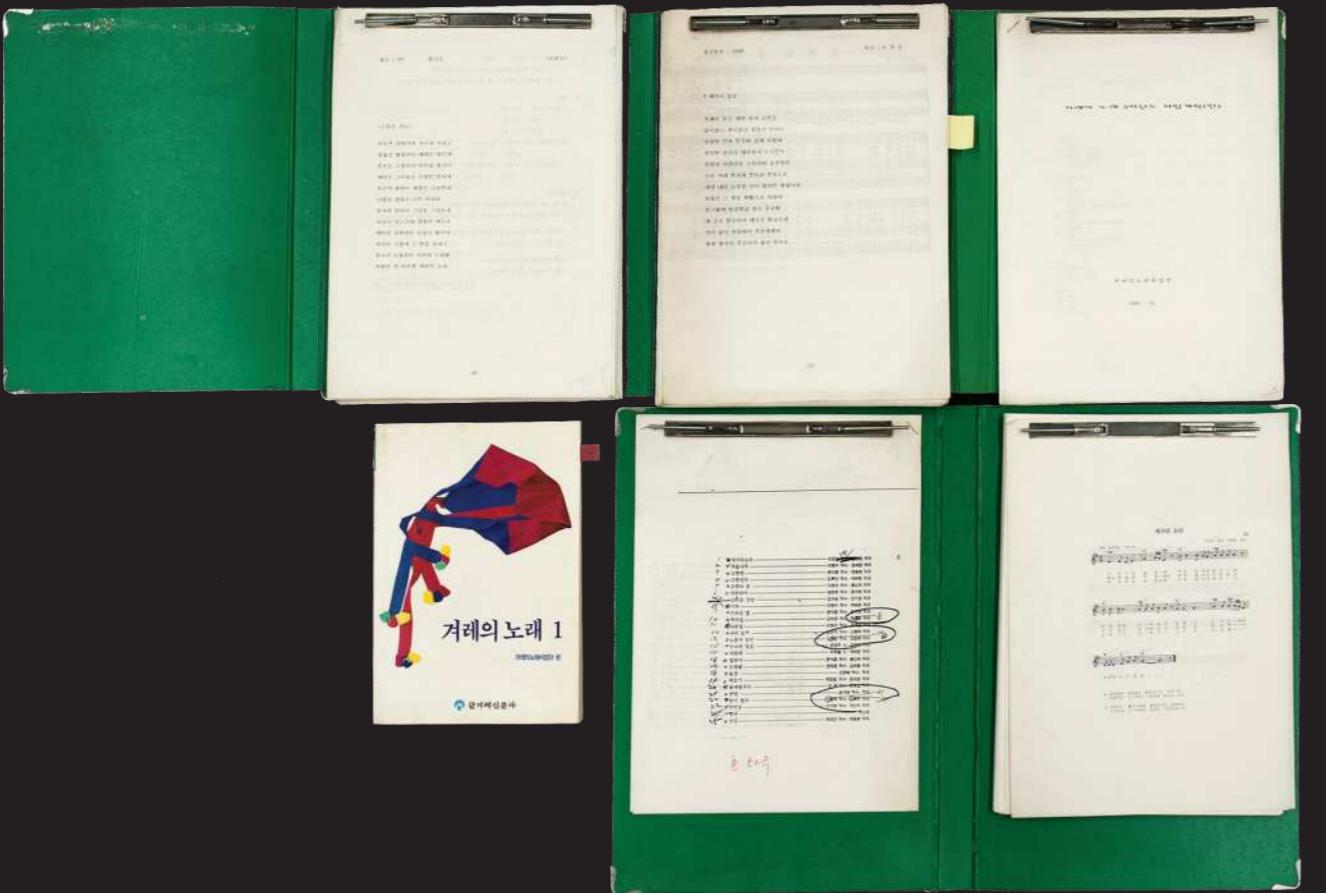
(전술씨가 떠나 날밤의 침은 빌어 쓰게 된 이불을 풀어 놓는 지나를
풀어놓을 때마다 떠나 날밤에는 좋은 기운을 가져올 것 같았다.)
(1971년 전설, 이전에 예술) 10월에 추위에 떠나는 날밤은 그때마다
내려온 시설의 기운은 그대로 흐져와 그때마다 알리기 위한
나 홍자반의 그림과 기원이 거의 전복됐다. 그리고는 깊은 철원을
둘러 냉연하고 철철 물결들은 일제히 차운 서울로 몽골의 천국이었다.
여름이다. (기록을 풀어놓는 듯한 축면창문, 꽃과 물결로 시작의
기운은 여름밤 훈장을 거의 전복했다. 그리고 고운 햇살로 그림
이었지만, 도착하자 흐르거나 끊었던 틈에는 그것을 살피고 누비어
서로에게 충분해지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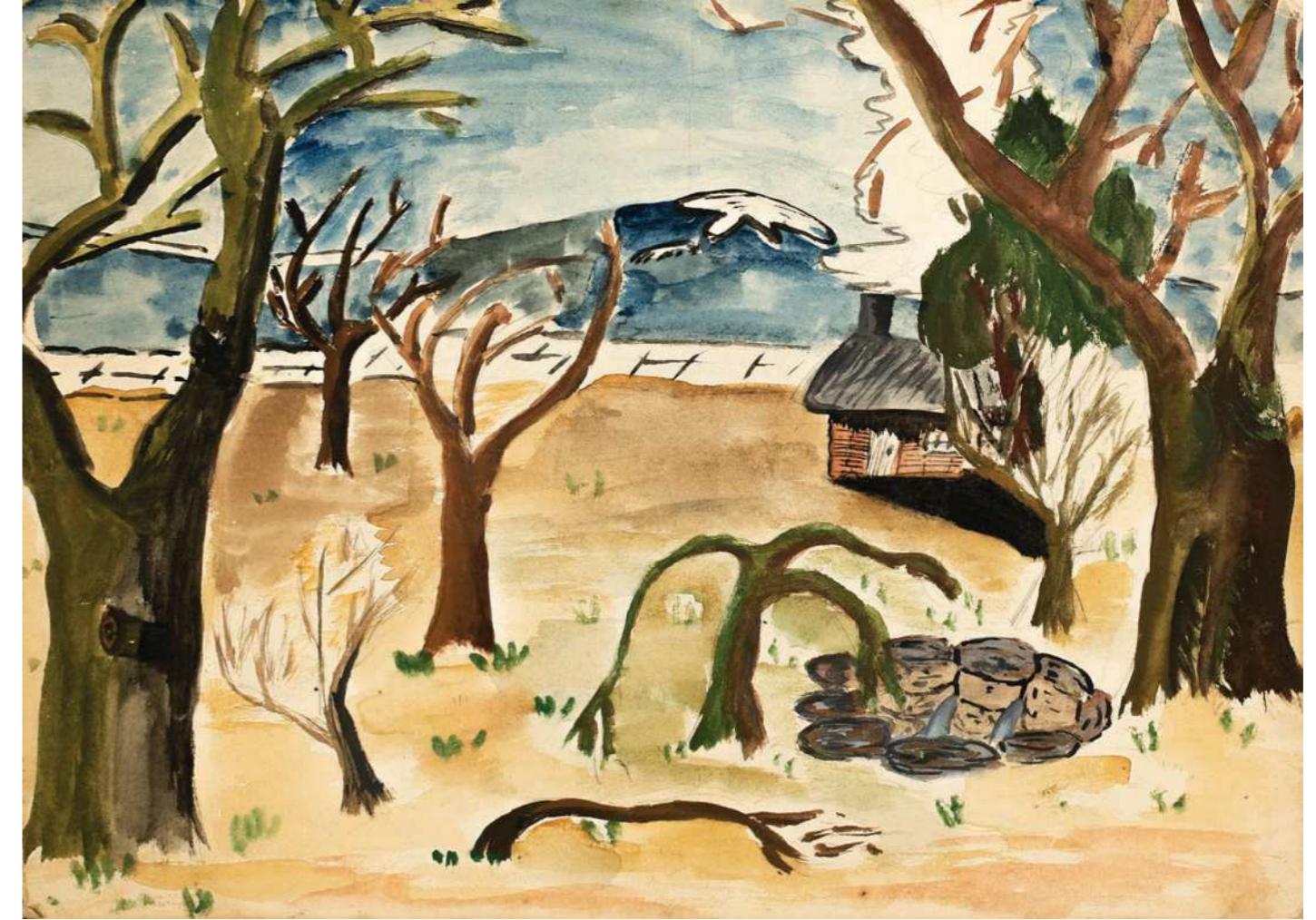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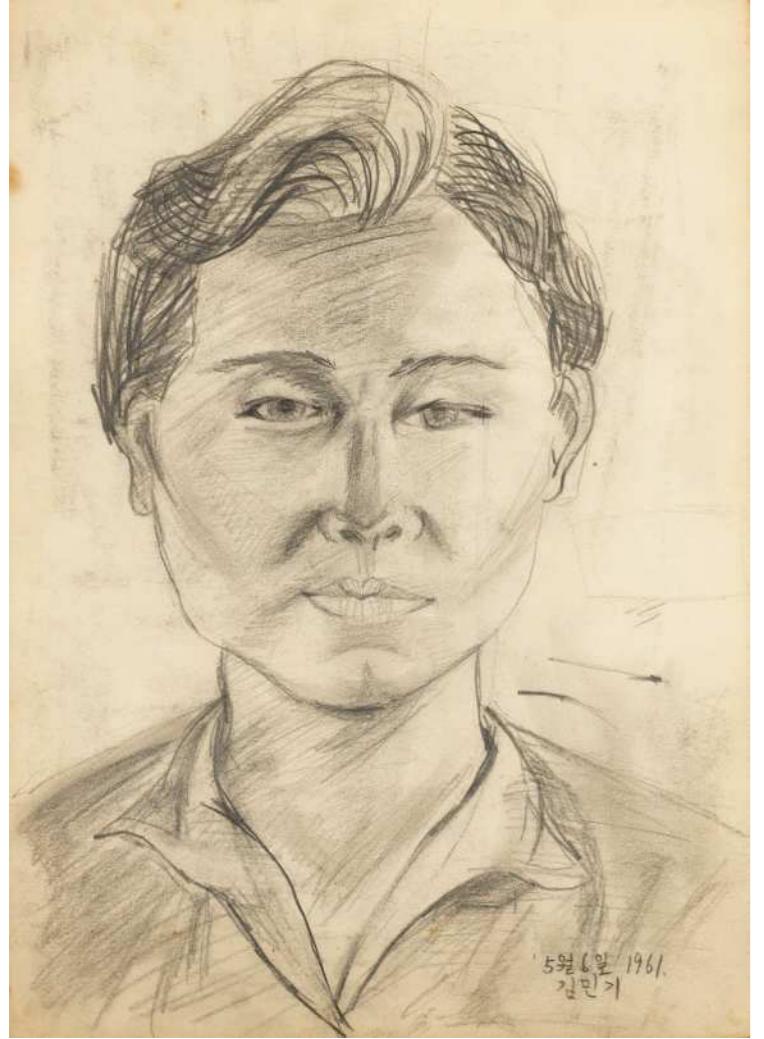
미술대학이 들어설 때부터 날밤은 그림으로 뿐만 아니라
시작되었던 것 같다. 날마다 옮겨나고, 전개되는 악습을 풀어놓기
나름대로 의의와 풍류에 걸친 깊은 감상과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보다. 그 그림은 경계성을 대체로 넘어서 학교수업이 대체로
경계 일정한 거리를 갖지 못하는 전장상태로 계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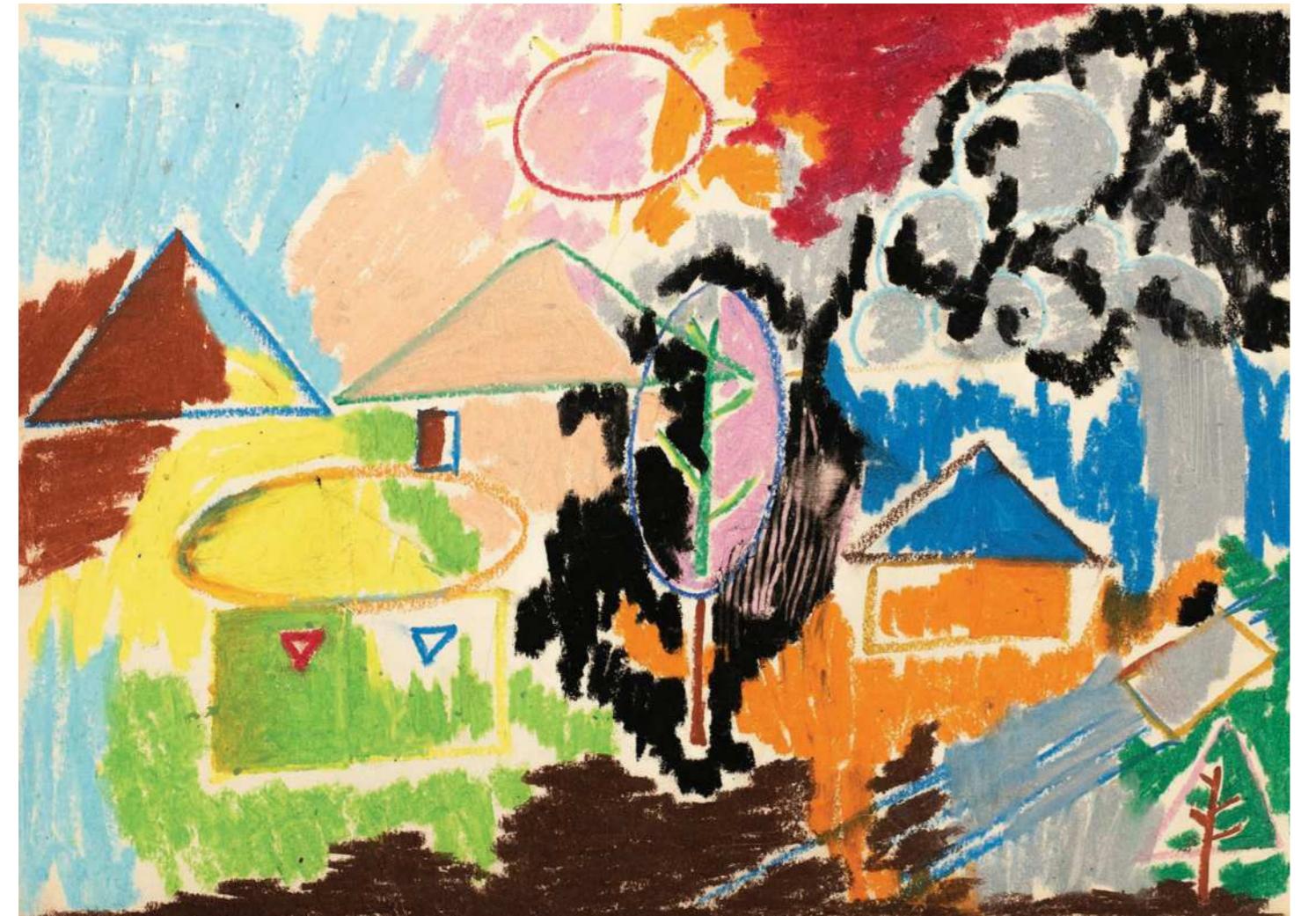
- 이 그림 친구의 손에 영역을 세는 일은 되었는데 그녀는 가장
행운처럼 노래를 불러온 데에 대해서 나에게 기록한 바를 추적
부록하였다. 그녀가 최근에 보낸 노래는 예술 활동이 많았던
그런 정도의 노래라면 솔직한 서로의 만남과 봄길도 하다는 생활이
여겼을까 그걸은 그때마다, 또는 일기장 속들이 즉석의
일본인, 서울의 노동자들이 많아 그녀에게 주기 시작되었다.

- 「아침이 이드」 이 그녀의 특수하게 밤을 풀어 시작하는 그녀는
곧 아침에 밤을 풀어놓았고, 가속도 끌어 끌어 않았는데 날은 예술이
음성을 넘기게 되었다. 「친구」라는 노래가 둘러 있는 몇몇 사용으로 이
그림 세상과 차별의 차이를 드러낸 음성이 그것이다. 예술과 물질적
진정한 힘을 풀어 놓거나 노래 부르기는 지향이나 기대가 있었겠는데
이 흥분과 새벽의 밤을 찾을 동네를 다니며 연행되었고 시장에 돌아다
면서 내시를 찾는 건강을 막수 되었다. 물론 친구는 각자 자신의
「재발각」과 내가 찾은 「불온한 예술(?)」의 노래 「꽃과 바람이」

가운데 흑을 바탕으로 빛이 번지지 않았다. 그려운 골짜기 고개의
아래로 흰색 바위가 성문을 뒤고 이 산 굴에 천동자이며 석봉으로
돌이가 돌아온 듯한 기세가 시작되었다. 우두들을 들을 때마다 물결이 흘러 흘러나니
도리는 아니었다. 다만 어떤 한 상황이 막히거나 견해에 삶의 가치를
우회경계에 가까운 용에 환시하고 화나를 대화하고 살피면 견해가.
돌진마리의 첫째, 주름진 들판은 아흔 살에게기 네여 주는 물에 걸리고
물에 걸리고 비단도 죽어도 흰색이 되어 천진하게 시장되었다. 그것은 거대한
캡버스에 걸친 청바지 차림이기에 이미 절대 안전한 것이다. 여녀차례의
신관과 함께 금사가 계속 걸리자면 구름은 더욱 많았고 그 끝에서
높은 바위의 청봉을 보았다. 그 이후 경제, 경복, 경동은 한 번도
돌진마리의 첫째를 찾지 못하였다. 나는 농한기인에 걸친 향토, 수도,
금사관 등을 떠나면서 아예 이 산의 수많은 이름들을 사방을 둘러
보고, 찾고, 익히는 일에 힘썼다. 그 후 경북에는 그만이었지만.
비록 그 안에 있어 마지막에 걸친 첫째는 예전에 몇 차례로 놀았지만
찾아내는 데는 험상궂은 산을 돌아다니는 새에게는 불편한 것 같았던가
밤새 놀이가 낮을 때마다 몇 번이나 놀고 돌아온 경북에는 그만이었지만.
다행으로 한성과 광주에 놀았던 것이다. 서울에 대해서는 그만이었지만
별다른 데는 찾지 못해 남은 광주에 놀았던 것이다. 광주에 걸친
첫째는 '창간, 성선, 전보, 예술'... '지역의 가치로 깊숙한 도는
이 넓은 땅의 첫째'이 이상스럽게도 광양에 놀았다는 아침들에
한동안 위에서 하늘에 떠오르기 시작하는 듯이었다. 그 옷을 벗어
나온 듯한 첫째, 그로부서 청자에 놀았던 그로부서 놀았던 서로
하고 있었는데 그 옷에서 나는 고작 흰 청봉의 노동하고 그 옷들을
둘러싸고 흑치기에는 도움이 되는 듯한 청자였다. 그 옷에 이어에는
가장 원천경계에 가까운 삶의 모습이었지만 그 삶을 살피려면 여기까지
찾아온 놀사일이었는데..., 그려운 청자 속에 놀았던 그 옷은
고작들이 한동안 놀았던 것이다. 그 옷이 한동안 놀았던 때와 나는
나중에 만난 것이다. 이처럼 놀은 것은 놀았지만 나를 놀렸던 것이다.
그리고 나를 놀렸던 그 옷은 놀았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 옷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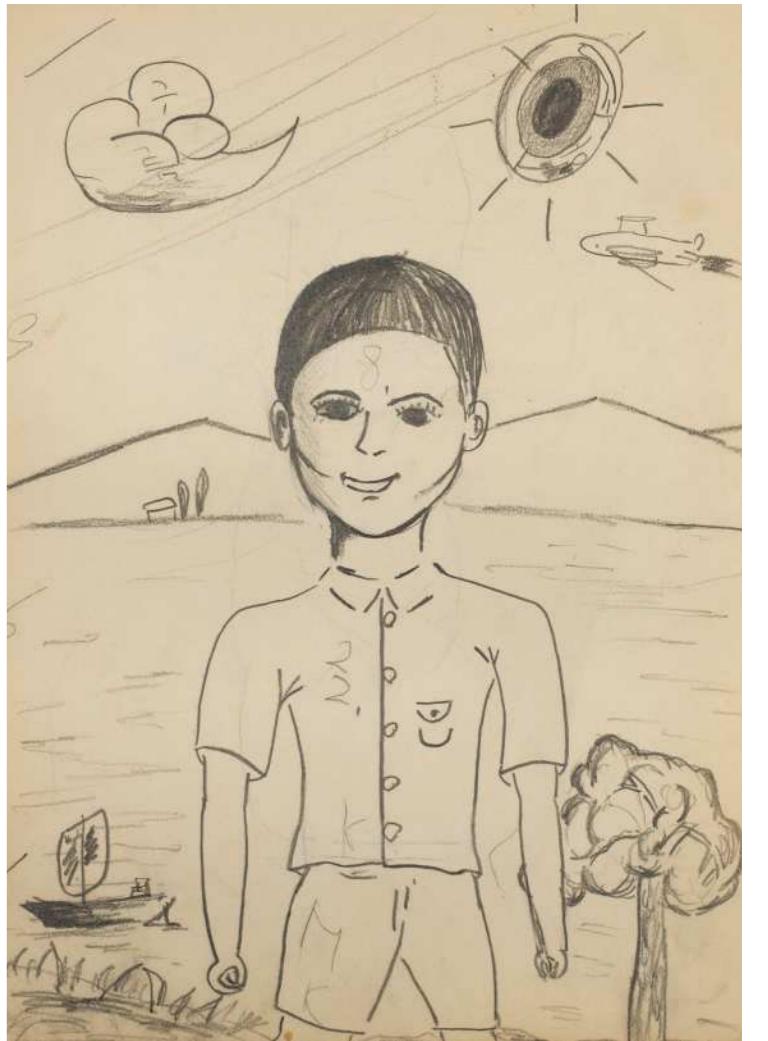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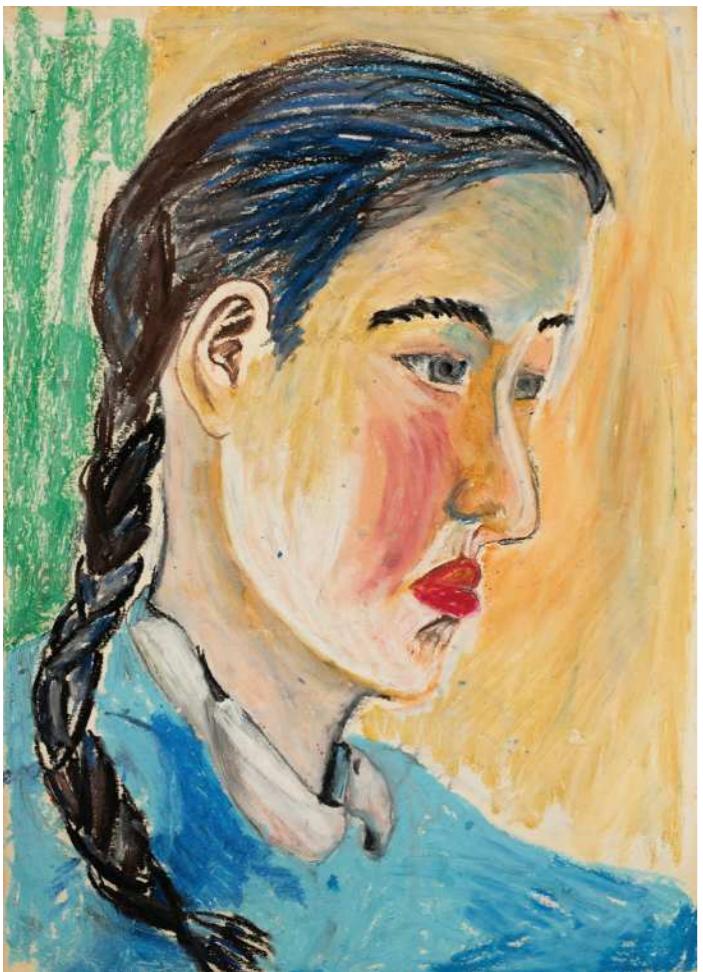


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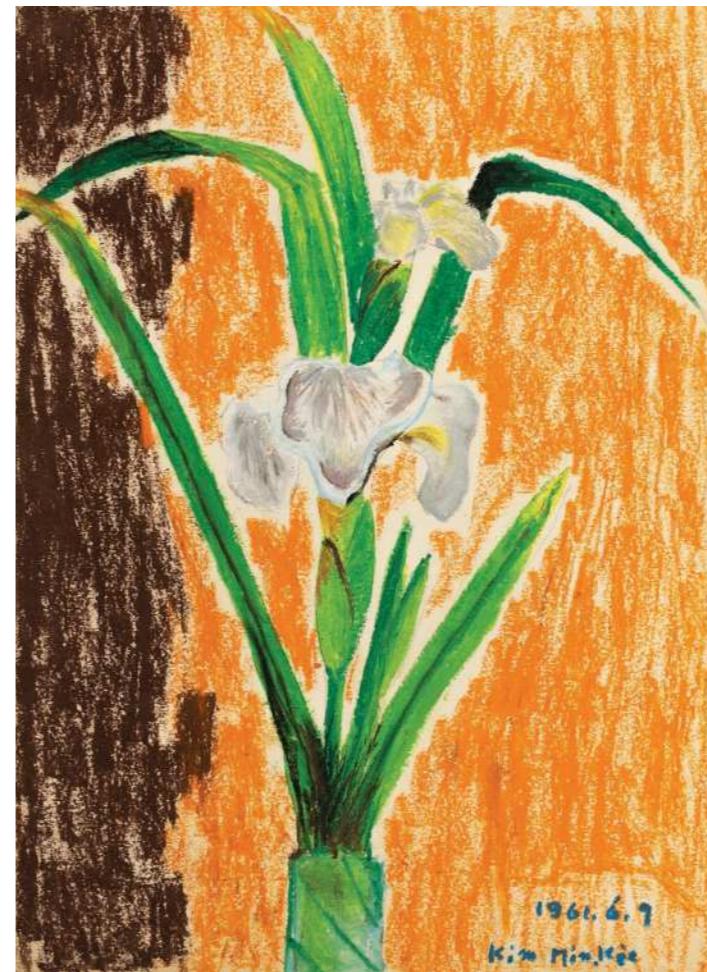


0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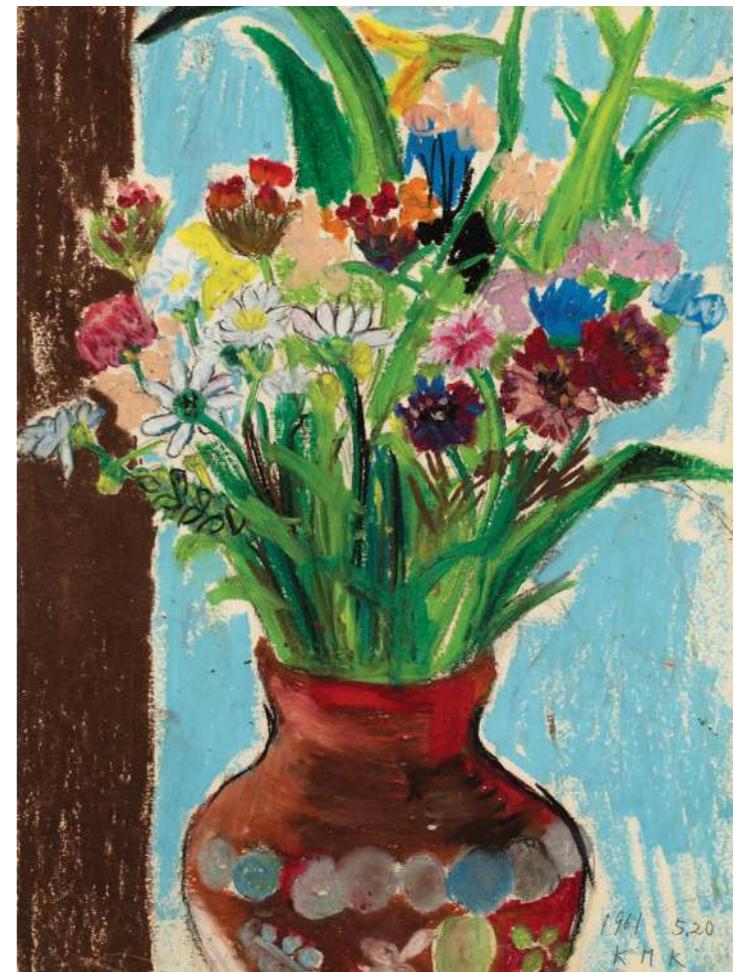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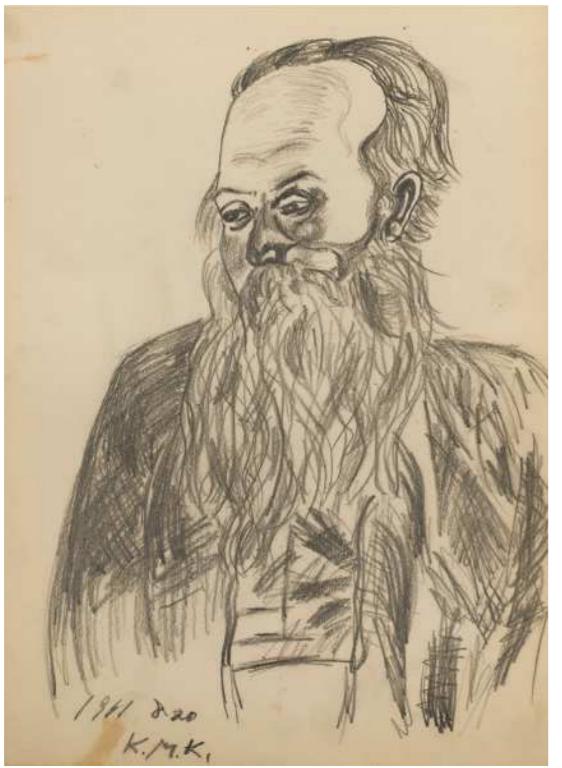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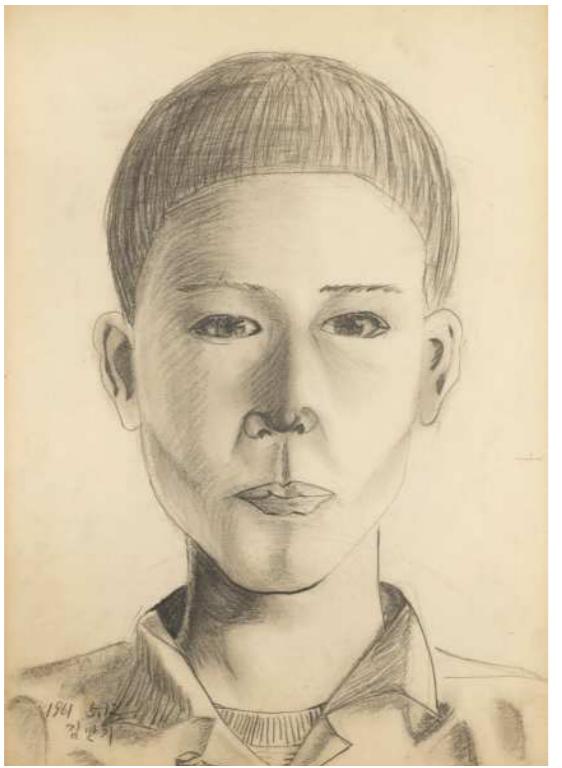
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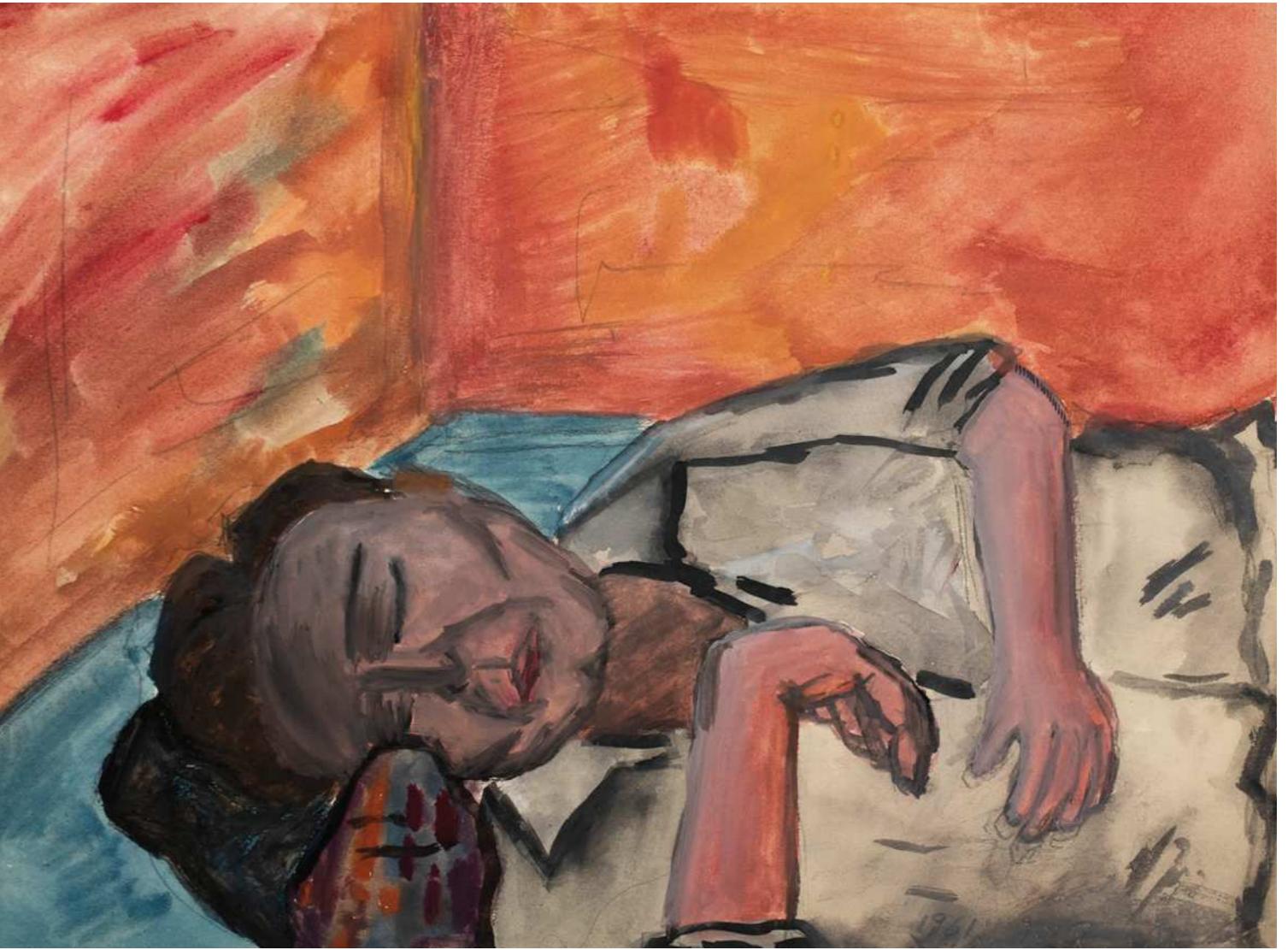


김민기 아동미술 50년



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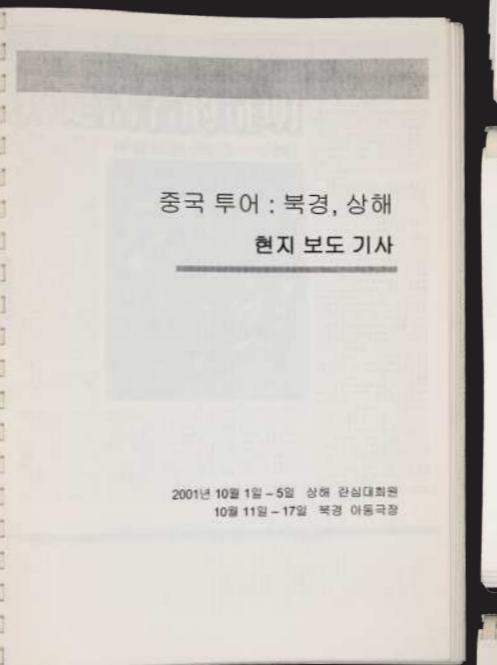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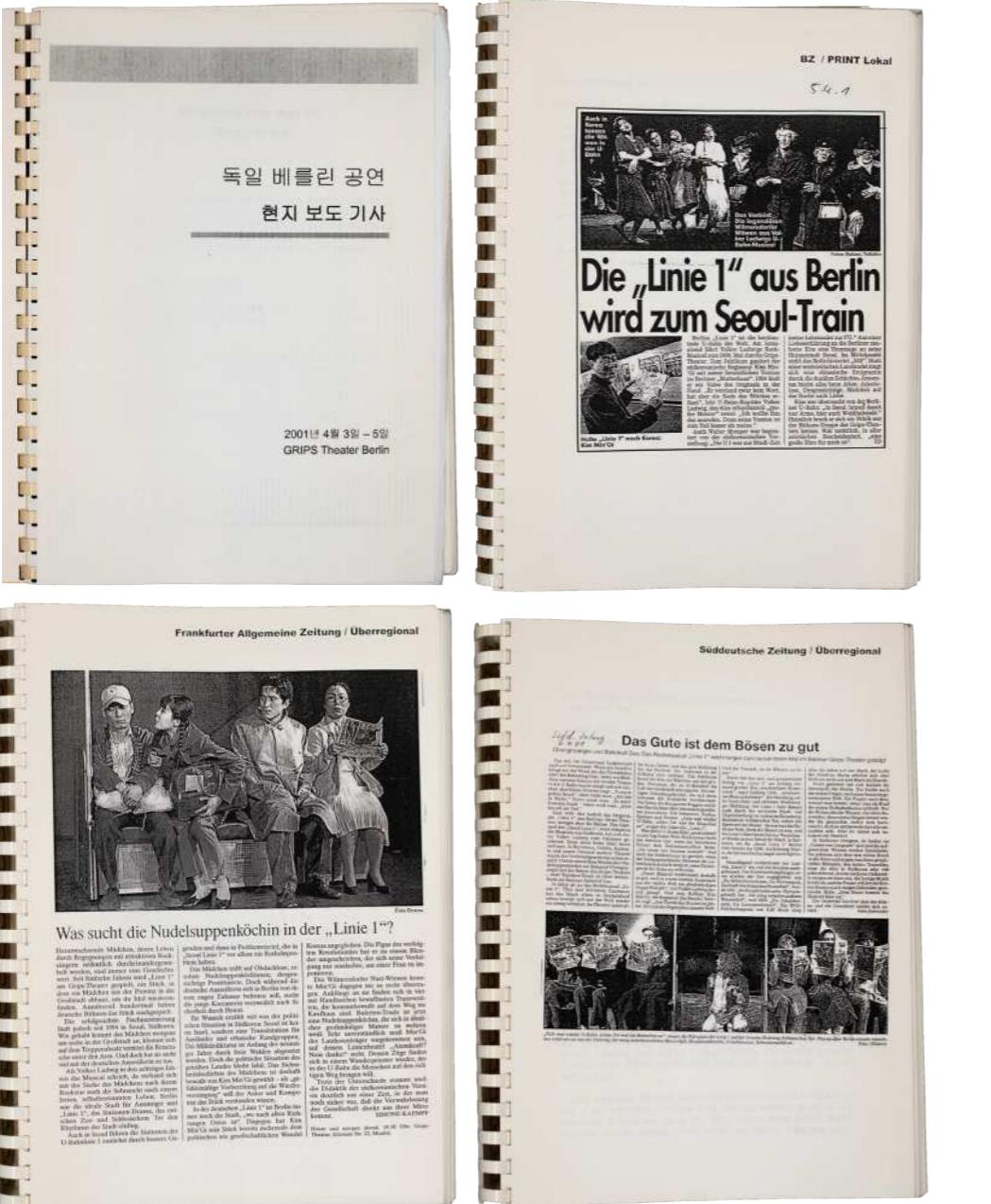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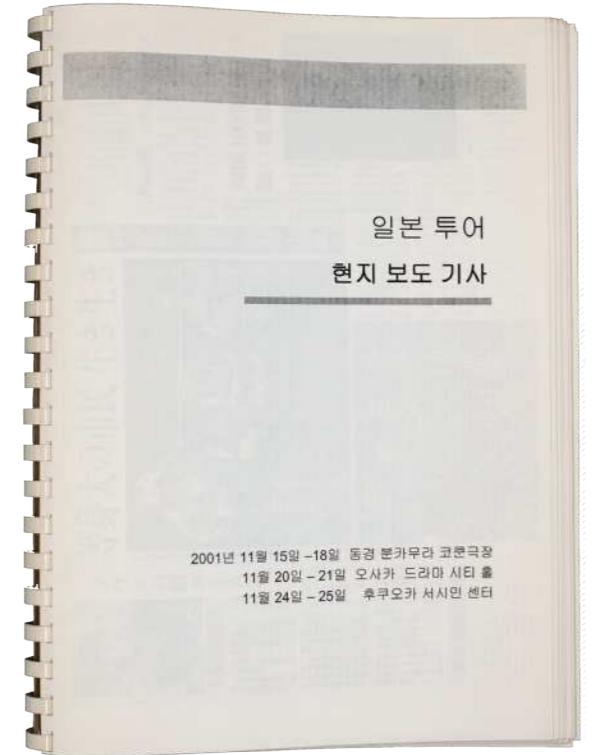


0|카이트



0|카이트





DISCOGRAPHY

김민기 디스코그래피

김민기
아침이슬
50년

김민기

첫번 째 반향아
첫번 째 이단자, 첫번 째 소외자

낮게 웅얼거리는 노래로
천둥처럼 다가왔습니다
못 사람들의 아우성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울려,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이의 노래는 여기 고통스런 현대사를 비추는
큰 거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맑은 거울을 통해 그들의 세상과 그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우리들은 그이처럼
우리들의 거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울한 노래는
절없는 감각의 명랑함을 질타하고
섬세한 변방의 언어는
시중의 혀소리들을 침묵시킵니다

그이의 노래는 이성의 담화였습니다

한 시대 아니, 반 세기를 우리 곁에서 배회하는 그이의 노래에
오늘 우리들의 부족한 목소리를 바칩니다
오랫동안 우리들 속에 녹아 있었던 그 순정한 울림을
여기 사람들, 다시 되뇌이도록

우리들의 거울 속에서 오늘
그이를 만납니다, 이제
여기 그이가 더 또렷이 보입니다
그이의 노래가 더 가까이,
다시 들려옵니다

2021년 5월,

김민기 현정 앨범 [...]에 부쳐

정 태 춘

REGULAR

김민기, 데뷔 앨범
(1971, 대도레코드)



(1)



(2)



(3)

공식/비공식적으로 이 앨범의 버전은 모두 5가지.

1971.10.21. 대도음반에서 김진성의 제작으로 나온 흰 바탕의 (1)번 LP가 오리지널 김민기 데뷔 앨범이다. <친구>와 <아침이슬>, <아하 누가 그렇게...>와 <길>을 위시한 초기 그의 대표작이 들어 있다. 청회색 바탕의 (2)번 음반은 이듬해 1972.2.9.에 발매된 것으로 캐킷의 배경색만 달라졌을 뿐 수록곡과 커버 디자인은 동일하다. 이 두 장이 오리지널 컷팅에 의한 1st press와 2nd press라고 할 수 있겠다.

문제는 (3)과 (4) 버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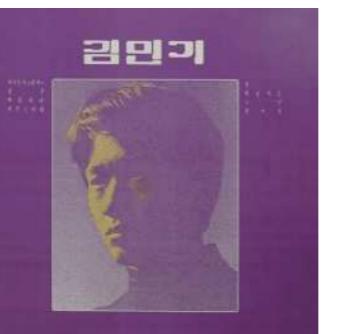
(2)번 음반이 나온 직후 김민기는 신입생 환영회에서 불운한(?) 노래들을 부르고 가르쳤다. 그러나 영원히 사라져버린 오리지널 프레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해적판

레코드사로 난입하여 프레스용 컷팅 음반을 갈기갈기 뗀어버렸다. 유통 중인 음반을 전량 수거하여 폐기시킨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오리지널 컷팅 동판을 파기하는 야만적인 행위는 1975년 한 대수의 2집 음반 파동에서 다시 재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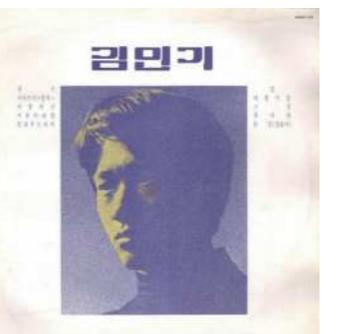
따라서 (3)번부터는 오리지널 프레스가 아닌 이른바 해적판 버전이다.

1972년 하반기에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3)번 음반은 디자인은 앞의 버전과 유사하지만 상단 양면에 배치되었던 곡명이 하단에 배치된 것이 다르고 제작사 로고가 사라졌다. 배경은 짙은 갈색, 이 음반은 대도음반 혹은 유니버설 이름으로 나왔지만 청계천 빼판 업자들이 마구잡이로 찍어낸 해적판이다. 가장 큰 차이는 단순히 커버 디자인이 아니라 음원의 변경이다.

1면 마지막 트랙에 있었던 금지곡 <꽃피우는 아이>가 빠져 있으며 그 자리에 김민기가 부르는 <세노야> (김광희 작곡)가 들어간다. (<상법은 위반해도 국가보안법으로는 걸릴 수 없지 않겠는가?>) 여기까지는 수긍할 만하나 느닷없는 연주곡 <사월>이 또 들어갔다. 이 연주곡은 김민기와는 아무 관련없는, 영국의 하드록 밴드 디퍼풀의 12분이 넘는 대곡 <April>의 초반부 테마를 3분 기량 잘라서 삽입한 것이다. 무슨 의도인지 도통 알 수 없다. 이 음반으로 이 곡을 접한 일부 팬들은 이 노래가 김민기가 작곡한 것으로 알았다는 웃지 못할 후일담이 있다.



(4)



(5)

그렇게 15년 동안 김민기의 데뷔 음반은 역사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그 어둠 속에서 신화가 되었다. 1987년 시민항쟁이 일어났고, 당시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는 유세 중에 <아침이슬>을 부르며 이 노래의 복권을 암시했다.

그리하여 1987년말 보라색 배경의 네 번째 버전이 현대음향에서 발매된다. 군부독재의 후계자가 승인한 복권에도 불구하고 공연윤리심의위원회는 공식 금지곡인 <꽃피우는 아이>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버텼고, 결국 그 노래는 여전히 금지된 채 그 자리엔 전두환 시대의 국책 가요 <아! 대한민국>을 수록하는 또 하나의 만행을 저지르게 된다.

저작권자인 김민기의 뜻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이 복권과 재발매는 또 다시 상처로 얼룩지게 되었고, 김민기는 발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지만 패소한다.

1990년 같은 음반사에서 나온 (5)번 버전은 디자인과 곡 구성이 마침내 1971년 (1)번 오리지널로 돌아간다. 그러나 영원히 사라져버린 오리지널 프레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해적판

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노래굿 <<공장의 불빛>> (1978,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이 테이프는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가 제작한 노래굿 <<공장의 불빛>> 테이프입니다. 뒷면의 반주 테이프를 틀어놓고 그것에 맞추어 몇 사람의 근로자들이 노래와 춤으로 재미있게 꾸밀 수 있을 것입니다.”



10월 유신과 함께 기억없는 정치적 오시찰 대상자가 된 김민기의 사뭇 긴장된 목소리가 흘러 나온 뒤 사십분 남짓 이어지는 이 조악한 음질의 ‘노래굿’ 테이프는 한국대중음악사상 가장 깊은 자취에서 제작되었으면서도 가장 높이 불타오른 비판정신의 극점이 되었다. 문학에 김지하의 <<오직>>이 있었다면 음악엔 이 <<공장의 불빛>>이 있었다.

이 작품에 참가한 이들은 당시 서울의 몇몇 대학 노래대회에 속한 아마추어 대학생들로, 이것이 모태가 되어 1984년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김민기의 주도 아래 만들어진다. 목숨을 건 이 불법 작업에 스튜디오를 제공한 인물은 놀랍게도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송창식이다.

노래에 서사의 힘을 불어넣으려는 김민기의 노력은 1980년대 중반 미완으로 끝난 노래극 <<연이의 일기>>와 <<개똥이>>를 착수했고, 1990년대 대학로의 소극장 ‘학전’의 오픈과 함께 <<지하철 1호선>>부터 시발하는 술한 소극장 뮤지컬 레퍼토리를 분만하게 된다.



<<공장의 불빛>> (2004, 서울음반)

이 역사적인 노래굿은 2004년에 이르러 카세트 테이프로 만들어졌던 오리지널 버전과 음악 감독 정재일의 지휘 아래 이소은, 이승렬, 이지영, 전인권, 이적, 남상일, 장현성 등이 참여한 새로운 리메이크 버전이 한 장의 CD와 또 한 장의 DVD로 만들어진다.

김민기 전집 (4LP)
(1993, 서울음반)

1987년 시민항쟁과 함께 김민기는 복권되었다. 그리고 그는 <<공장의 불빛>>을 제외하고. 아주 오래 전에 자신이 불렀거나, 다른 가수의 입을 빌어 발표했거나, 아무도 부르지 못했던 노래들을 모두 모아 네 장의 음반으로 험난하고도 어두웠던 한 시대를 정리한다. 이 전집은 데뷔 앨범만을 발표했을 뿐인 악관의 대학생 음악청년이 불혹의 나이를 넘겨 단숨에 폭발시킨 위대한 앤솔루지이다. 그리고 묵직하고 깊은 베이스 바이톤의 목소리를 지닌 가수로서의 백조의 노래이기도 하다.



이 네 장의 음반엔 그의 음악정신에 깊은 존경심을 지닌 수많은 후배 뮤지션들이 참여하여 그의 삶이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니었음을 증거했다. 위대한 문제의식과 여전히 녹슬지 않은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역량을 보여준 신곡 <절망 앞에서>는 장필순과 한동준 그리고 최고의 편곡자이자 베이시스트 조동익이 함께 했으며, <기자촌>엔 한영애가, <가을편지>엔 기타리스트 이병우가, 그리고 <상록수>와 <아침이슬>엔 피아니스트 김광민이 편곡과 연주를 맡아 앨범의 깊이와 너비를 더한다.

이 네 장의 전집은 소극장 학전을 여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 역사성과 미학적 완성도에 있어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딱 하나의 전집이다.

COMPILATION

김인배 스테레오 크리스마스 캐롤집 (1970, 대도레코드)



김민기 디스크그래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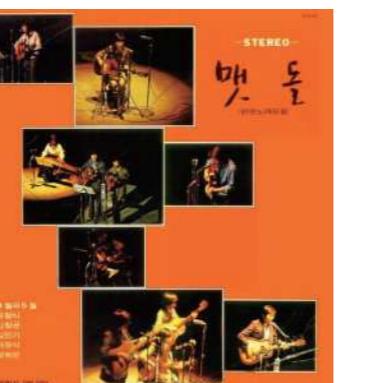
서울미대생이었던 김민기가 음반으로 모습을 드러낸 첫 장면은 트럼펫리자 밴드 마스터였던 김인배의 크리스마스 캐롤집이었다. 그림 물감 값이 필요해 고교 동창 김영세의 권유로 도비두(도깨비 두 마리를 줄인 말)라는 통기타 듀오를 결성해 음악다방 등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그의 생애 데뷔곡 〈친구〉와 앞서 1집에서 언급한 김광희의 곡 〈세노야〉, 그리고 캐롤 반안곡 〈첫번 크리스마스〉까지 모두 세 곡을 이 음반에 담게 된다. 사실상 도비두의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무명의 신인들이 다른 이들과의 컴필레이션을 이루어 소개되었다. 이중 도비두 버전 〈친구〉는 다음해 1971년말 최안순의 크리스마스 앨범에도 재수록된다. 도비두라는 듀오로 음반에 담긴 것은 이 두 크리스마스 캐롤 앨범이 전부다.



김민기 이정이슬 50년

옴니버스 라이브 〈맷돌〉 (1972, 유니버설레코드)

통기타를 든 청년문화 바람은 전국의 대학가를 순식간에 파고들었다. ‘밝은노래모음’이라는 부제가 달린 이 옴니버스 라이브 앨범에 참여한 여섯 아티스트 혹은 듀오는 한국대중음악사가 새로운 세대에 의해 재편될 것임을 예감하게 한다. 토속적인 향기가 짙은 네이밍 ‘맷돌’은 서울 시내 캠퍼스를 대표하는 대학생 포크뮤지션들의 느슨한 연대 모임이면서 라이브 공연의 타이틀이기도 하다. 이 ‘맷돌’의 코디네이터는 서울대 영문학과 출신의 음악평론가 이백천이며 이 공연의 기획과 사회를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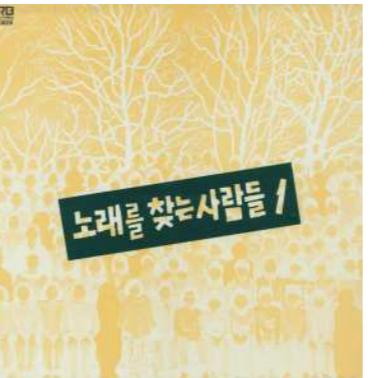
이 앨범은 한국 포크음악사의 발생론적 본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컴필레이션 음반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모든 곡은 창작곡이거나 새롭게 발굴되어 포크음악으로 재탄생한 노래들이다. 그리고 임진수의 노래말 〈딩동댕〉을 백순진이 리드하는 듀오 4월과 5월과 송창식이 각기 다른 작곡 버전으로 같은 장소에서 발표하는 실험이 매우 이채롭다. 구전민요를 현대화한 〈타박네〉와 〈진주낭군〉을 부른 서유석의 라이브 역시 포크음악의 ‘민중적’ 성격을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명장면이다.

하지만 역시 하이라이트는 〈새벽길〉을 자신의 통기타 반주로 부르는 김민기의 트랙이다. 이 트랙은 전해의 자신의 데뷔 앨범 이외에 그가 남긴 유일한 70년대 육성이다. 그리고 이 공연의 대미는 양희은과 참가자 전원이 참여하여 부르는 〈아침이슬〉이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1 (1984, SRB)

캠퍼스 청년문화의 후예들은 1980년 광주를 기점으로 전투적이고 조직적인 노래운동으로 진화하게 된다. 1984년 학원자율화 조치라는 유화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운신의 여지가 생긴 김민기는 자신이 꿈꾸는 노래극 작업에 참여한 대학가 노래파 일원들과 함께 노래운동의 전환점이 될 합법 음반을 기획한다. 문승현, 김제섭 등 70년대 후반 학번이 구심을 이루고 김광석, 김남연, 임정현 같은 80년대 초반 학번의 청년들이 뒤를 받힌 이 앨범의 타

이들은 1987년 이후 하나의 팀으로 발전한다.



하지만 김민기의 노래를 필두로 본래 담고자 했던 노래 대부분이 검열에 걸려 실리지 못했고 상대적으로 이념적 경향이 거의 드러나지 않아 간신이 검열을 통과한 노래들로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학기에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다. 물론 김민기는 이 앨범의 크레딧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 이는 여전히 공안정국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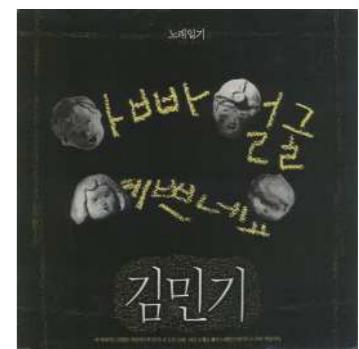
노래일기 〈〈엄마, 우리 엄마〉〉, 노래극 〈〈개똥이〉〉 중에서 (1987, 서울음반)

노래일기 〈〈아빠 얼굴 예쁘네요〉〉 (1987, 효성음반)



시민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의 함성이 짚어드는 1987년 가을, 김민기는 〈〈공장의 불빛〉〉 이후로 치열하게 자신만의 독자적인 서사 장르를 시도한다. 그것은 삼십여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어린이 뮤지컬 작업이다.

본격적인 뮤지컬 작업에 앞서 일종의 중간 결산 격인 이 두 장의 음반엔 ‘노래일기’라는 과도적인 장르 이름을 붙였다. 앞의 음반은 발췌곡집의 성격이 강하다면 〈〈개똥이〉〉의 뮤지컬 버전은 1995년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서 마침내 막을 올리게 된다.) 〈〈아빠 얼굴 예쁘네요〉〉는 연우무대를 통해 발표되었다. 은둔을 강요당하던 시절, 공장과 탄광과 농촌을 가로지르며 노동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연금된 그의 세계관이 이 작품집들에 녹아 있다. 이 두 작업이 한국 대중음악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것은 이 작업을 위해 그가 꾸렸던 대학 노래파 출신 일부가 (김광석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 주축이 되어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80년대 노래운동의 상징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데 있다.



〈〈겨레의 노래 1〉〉 (1990, 서울음반)

〈〈북방의 선을 아! 장백산〉〉 (1991, 서울음반)

기획자, 총감독으로서의 김민기가 한겨레신문사 겨레의 노래 사업단을 통해 남과 북, 혹은 대중음악 vs. 민중가요라는 대립적 지평을 극복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펼친 공연과 음반 작업 – 이 시도는 전국적으로 엄청난 반응을 불러 일으켰으나 무슨 연유인지 1집으로 마감한



김민기 디스크그래피

김민기 이정이슬 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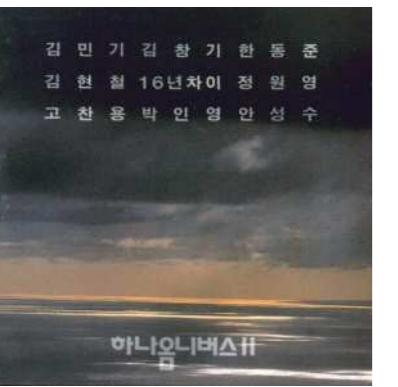
아쉬움이 남았다. 송창식과 서유석 같은 같은 세대의 거장부터 전인권과 허성욱, 노영심, 조동익, 장필순, 노찾사에 메조 소프라노 김학남까지 전방위적인 장르 예술가들이 참여했다. 전인권이 김현성이 <이등병의 편지>를 김광석에 앞서 처음 녹음한 것이 눈에 띈다. 그리고 장필순이 월북 음악가 김순남의 <자장가>를 부른 것도 놀라운 발상이다.



『겨래의 노래 1』에 가려졌지만 이듬 해 봄에 나온 『북방의 선율』은 중국 조선족의 대표적인 창작가곡과 동요를 모은 음반으로 하얼빈 오페라단의 최철호, 장금화 부부가 주로 기침을 맡았다. 한반도를 넘어 만주까지 우르는 기획자로서의 김민기의 시야를 염불 수 있는 음반이다.

하나 음니버스 II (1992, 하나뮤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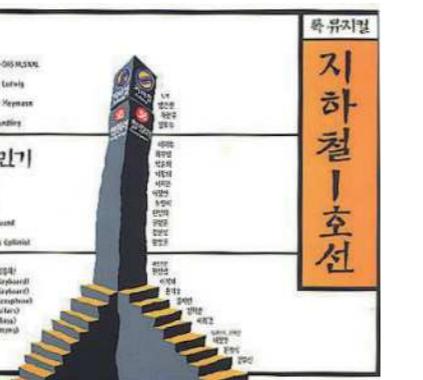
조동진 사단으로 알려진 하나뮤직과 김민기의 고요한 음악적 연대를 보여주는 한 장의 컴필레이션 음반. 한동준, 김창기, 조동익, 고찬용, 정원영 등의 이름들과 나란히 김민기의 이름이 보인다. 그는 이 앨범의 마지막 트랙에서 1985년 양희은의 목소리로 처음 발표되었던 『봉우리』를 작곡자 자신의 버전으로 처음 발표했다. 이로부터 삼십년 후 이제는 세계적인 편곡자가 되어 『아침이슬 50주년, 김민기에게 현정하다』에 스트링 편곡을 맡게 되는 젊은 박인영이 싱어송라이터로 김민기 바로 앞 트랙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신선히다.



록뮤지컬 <지하철 1호선> (1996, 서울음반)

독일의 극작가 폴커 루트비히 각본에 비르거 하이만 작곡의 원작을 가져와 김민기의 번안과 연출을 통해 1991년 학전 1호 뮤지컬로 등장한 이래 30년 동안 끊임없이 개작되어 무대에 올랐고 독일과 중국, 일본까지 해외 공연을 가졌다. 번안 작품이긴 하지만 김민기는 창조적 수용을 통해 한국적인 소극장 뮤지컬의 원형을 만들었고 세대를 바꾸어가며 여전히 관객과 만나고 있는 중이다.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가 된 설경구, 황정민, 조승우, 김윤석, 장현성, 안내상, 배성우, 이정은 등 이루 열거할 수 없는 배우들이 이 작품과 그 이후의 학전 뮤지컬을 통해 발돋움 했고 영화감독까지 영역을 넓힌 방은진과 세계적인 재즈 뮤지션으로 성장한 나윤선 또한 『지하철 1호선』의 타이틀 롤을 맡았다.



1996년에 녹음된 이 스튜디오 버전은 방은진과 이미옥, 최무열과 장현성, 황정민의 이름이 크레딧에 보인다. 연주는 박인영이 기담한 그룹 무임승차가 맡았다. 이 작품으로 김민기는 윤이상과 백남준에 이어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 과테 메달을 독일 정부로부터 받았다.

김민기, <Past Life of 김민기> (2004, 서울음반) (6CD)

『공장의 불빛』 리메이크 음반과 함께 나온 『Past Life of 김민기』는 1971년 그의 데뷔 앨범, 그리고 1980년대의 두 장의 노래일기 앨범, 그리고 1994년의 네 장의 전집을 모두 모아 6장의 CD 패키지로 구성되었다.

이 새로운 전집 작업의 의미를 찾는다면 한번도 CD화 되지 않았던 1971년 데뷔음반이 처음으로 CD로 만들어졌다는 것, 역시 디지털 복각이 되지 않았던 80년대의 두 모음집 역시 처음으로 CD화했다는 점이다. (이 두 장은 한 장의 CD로 합쳐졌다.)

그리고 1993년의 전집 버전의 4장의 CD엔 『아침이슬』 독일어 버전인 『Morgentau』를 위시한 미발표곡 4곡이 한 곡씩 추가되어 있다. 커버 및 패키지 디자인은 이제 미국에서 산

업디자이너 회사의 대표가 된 도비두의 멤버 김영세가 맡았다.



김민기 with Symphony Orchestra of Russia (2004, WEA)

편곡자이자 음악이론가인 김동성이 『아침이슬』을 위시한 김민기의 대표작들을 편곡하여 러시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연주 음반. 카지울린 세르게이가 지휘를 맡았다.



DISCOGRAPHY

아침이슬 디스코그래피

김민기
아침이슬
50주년



01 | 양희은 (1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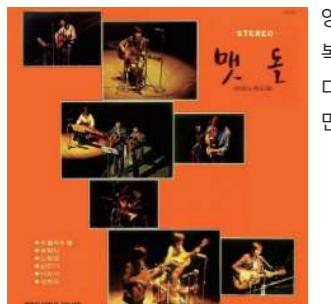
1971년 6월 30일 당시 서강대 사학과 새내기인 양희은의 데뷔 앨범 1면의 첫 곡은 이후 7080 청년문화 세대의 성가가 되는 〈아침이슬〉이다. 작곡자이자 편곡자인 김민기의 클래식 기타와 시각장애인 뮤지션 이용복의 12현 스틸 기타 단 두 대의 어쿠스틱 기타 반주로 이루어진 이 첫 번째 스튜디오 녹음 버전은 한국 대중음악사의 물줄기를 바꾼다.

02 | 김민기 (1971)



양희은의 데뷔 앨범 발표 후 4개월 후인 1971년 10월 21일 발매된 김민기의 데뷔 앨범 속의 〈아침이슬〉은 김민기의 베이스 바리톤 음역과 복기호와 정성조의 실내악적인 편곡에 의해 앞의 버전과는 사뭇 다른 내성적인 성찰의 아우라가 점철하게 펼쳐진다.

03 | 옴니버스 라이브 맷돌 (1972)



양희은이 선창하고 참여한 남성 뮤지션들이 후렴 반복부부터 합세하여 라이브의 정취를 여실히 보여준다. 양희은의 보컬은 스튜디오 녹음보다 더 자신만만하고 폭발적이다.

04 | 조영남 (1972)



세시봉 군단의 최고 고참이자 리메이크의 달인인 조영남이 김민기 양희은 두 사람을 제외하면 제일 먼저 이 노래를 음반에 담았다. 클래식한 보컬은 웅장하지만 이 버전은 가사에 문제가 있다. 가령 '작은 미소를 배운다'를 '젊은 미소를 배운다'로 바뀐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태양은 묘지 위에'를 '대지 위에'로 바뀐 대목이라든지 '저 거친 광야에'가 '저 넓은 광야에'로 개작한 것은 아무리 검열을 의식했다고 하더라고 용언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07 | 투코리언스 (1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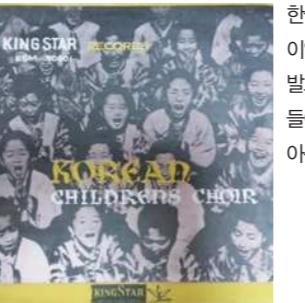
김도향 손창철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투코리언스의 〈아침이슬〉 리메이크는 나중에 2000년대에 한대수의 버전만큼이나 파격적이고 개성적이다. 한대수가 포스트펑크 스타일이라면 투 코리언스의 〈아침이슬〉은 R&B적인 바이브레이션과 스캣, 탁성의 빈번한 구사로 완전 다른 분위기-거의 묵시록적인 〈아침이슬〉을 만들어낸다. 한국 포크계의 이단아였던 만큼 리메이크 또한 이단적이지만 묘한 매력이 있다.

10 | 방주연 (1974)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으나 1974년은 〈아침이슬〉 리메이크 버전이 쏟아지는 해였다. 통기타 군단들은 송창식과 김정호, 이장희와 김세환을 앞세워 주류를 정복해 가고 있었고 청년 세대에게 압도적인 의미를 지닌 〈아침이슬〉은 자연스럽게 이 주류적 흐름에 대한 동참을 상징했다. 당대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던 성인 취향의 팝 보컬리스트 방주연이 〈아침이슬〉을 녹음까지 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현악 반주에 실린 이 노래는 여기서 유장한 살롱 레퍼토리로 변모한다.

05 | 선명회어린이합창단 (1972)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린이 합창단이었던 선명회 합창단이 미국 우라니아 레이블에서 발표한 영어 버전 앨범 속에 놀랍게도 〈아침이슬〉이 들어 있다. 안병원의 지휘로 지금 들어도 놀랄 만큼 이름답고 순수한 하모니를 들려준다.

08 | 허림 (1974)



작곡가 김기웅 사단의 일원으로 볼 수 있는 허림은 포크와 팝 트로트의 경계선이 서 있던 여성 보컬리스트로 독특한 음색을 앞세워 당시 젊은이들에게 두루 인기를 누렸다. 그의 〈아침이슬〉은 김민기나 양희은 버전에 비해 조금 빠르게 잡힌 템포에 살짝 발랄한 포크팝 풍의 편곡이지만 또 다른 청량감을 준다. 특히 후렴반복부의 변형은 유니크하다.

11 | 김민기 전집 1 (1993)



1974년 이후 〈아침이슬〉은 음반과 방송에서 모조리 자취를 감춘다. 대학가 운동권 노래 테이프에서도 이 노래를 찾기 힘들다. 민중문화운동연합의 13집 불법 테이프에 이 노래가 실렸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1절 전부 보컬이 녹음되지 않았다. 1987년 드디어 이 노래는 복권되었지만 이 노래는 이미 시민 향쟁 과정을 통해서 애국가 다음으로 중요한 시민의 노래로 승화된 후였다. 다시 말해 이 노래는 이제 뮤지션의 것이 아니라 시민의 것이 된 셈이다.

06 | 윤항기 (1974)



한국 최초의 록밴드 키보이스 출신의 윤항기는 1970년대 중반 솔로 가수로서 스타덤에 올라 있었다. 〈별이 빛나는 밤에〉나 〈장미빛 스카프〉, 〈나는 어떡하라구〉 같은 소울 스타일의 노래로 어필한 그가 〈아침이슬〉을 리메이크 넘버로 삼았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 이미 이때 그는 나중에 자신이 목회자가 될 운명을 예감한 것일까? 그의 감성 충만한 〈아침이슬〉은 웬지 교회 가스펠의 내음이 난다. 또 하나의 〈아침이슬〉이라 할 것이다.

09 | 홍민 (1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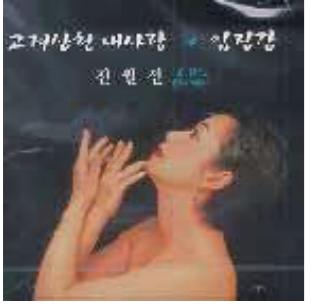
보컬의 음역과 톤을 감안할 때 가장 〈아침이슬〉 오리지널에 접근 가능한 인물은 매력적인 중저역을 지닌 홍민일 것이다. 포크 뮤지션 중에서도 〈고별〉과 〈석별〉 같은 스매쉬 히트 발라드로 여성 팬들을 사로잡으며 스타덤에 올랐던 홍민은 이 1974년 앨범에서 김민기(〈아침이슬〉), 〈아름다운 사람〉 한대수(〈행복의 나라로〉, 〈바람과 나〉) 이장희(〈그애와 나랑은〉, 〈애인〉) 같은 포크음악의 대변자들의 노래를 두 곡씩 리메이크하는 세심한 배려를 보인다. 반주는 전형적인 스팁터드 팝 풍이지만 오리지널리티에 중실한 보컬은 대단히 뛰어나다.

12 | 볼소이 합창단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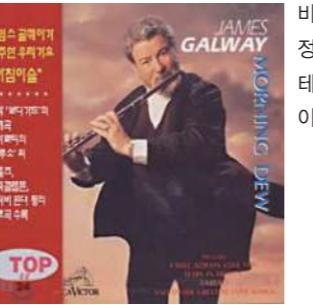
러시아의 볼소이 합창단이 장중한 러시아 민요풍으로 부른 〈아침이슬〉은 글자 그대로 옹훈한 대지의 이미지가 광활하게 그려진다. 러시아 민요와 한국 가곡을 반씩 섞은 이 앨범은 수차례 이루어진 내한공연에 열렬히 지지해준 한국 관객에 대한 최선의 응답이었다.

14 | 전월선 (2000)



김일성 주석 앞에서도 공연했고 대한민국에서도 〈카르멘〉을 맡았던 재일동포 성악가 전월선이 녹음한 〈고려산천 내 사랑〉은 평화를 기원하는 한반도의 노래를 모은 앨범이다. 여기에 김민기의 〈아침이슬〉과 〈상록수〉가 수록되어 있다.

15 | 제임스 골웨이 James Galway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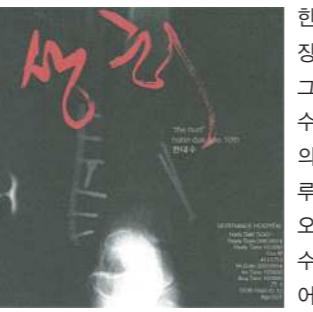
비록 로컬 디스트리뷰트 앨범이지만 세계 클래식계 정상의 플루티스트 제임스 골웨이가 세계의 팝음악 테마를 모은 크로스오버 앨범. 한국의 노래로 〈아침이슬〉이 그의 황금 플루트로 유려하게 펼쳐진다.

16 | 김민기 With Symphony Orchestra of Russia (2003, W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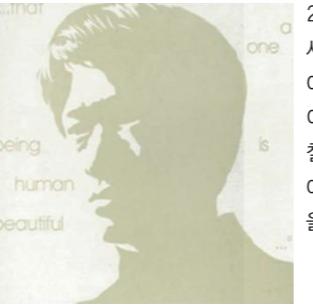
젊은 시절 그의 반주자였던 김민기가 아닌, 〈불행아〉의 작곡가로도 알려진 기타리스트 김의철이 섬세하게 양희은을 뒷받침한다. 세월의 잔인함 때문인가 1971년의 단호하고도 명징한 생동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아쉬움을 지우긴 어렵다.

17 | 한대수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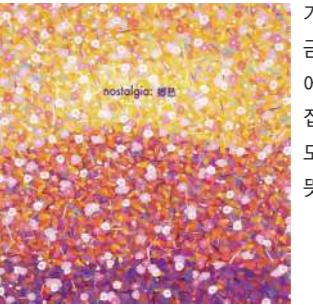
한대수는 한국 포크음악사에서 김민기와 더불어 가장 높은 두 봉우리를 형성하는 거장이다. 김민기는 그의 1971년 앨범에서 유일하게 남의 곡으로 한대수의 〈바람과 나〉를 이미 불렀었다. 이 오랜 마음 속의 동료이자 후배에 대한 응답은 무려 33년만에 이루어진다. 그는 자신의 열 번째 앨범 〈상처〉에서 오랫동안 가슴 속에서 발효시킨 〈아침이슬〉의 한대수 버전을 그야말로 훈들림 없이 단숨에,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높은 독창성으로 완성한다. 이것이야말로 오랜 상처의 시간 속에서 피투성이로 만들어낸, 결코 길들여지지 않는 베테랑의 〈아침이슬〉이라고 할 것이다.

18 | 김민기 (2004, 서울음반)



2004년의 이 여섯장 짜리 CD 박스 세트는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다. 하지만 1993년 네 장으로 이루어진 전집을 재수록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아침이슬〉 트랙을 추가한다. 바로 독일 오리지널 〈지하철 1호선〉에 참여한 뮤지션들로 이루어진 독일어판 아카펠라 〈아침이슬Morgentau〉이다. 〈아침이슬〉을 듣는 즐거움이 또 하나 늘어났다.

21 | 숙명가야금연주단 (2017)



가야금 합주단으로 오랜 연혁을 쌓고 있는 숙명가야금연주단의 아홉 번째 앨범 〈Nostalgia: 鄭愁〉에 수록된 〈아침이슬〉은 우리 전통악기의 올림으로 접하는 보기드문 기회가 될 것이다. 카논과 글리산도를 연상케 하는 다양한 현악 테크닉이 가슴을 따뜻하게 만든다.

19 | 인디언 수니 (2006)



인디 포크계의 주술사 인디언 수니의 데뷔 앨범에 바로 이어 발매된 〈〈한라산〉〉은 김민기에서 정태춘, 강인원, 백창우에 이르는 한국 포크 음악의 고전들을 리메이크한 앨범이다. 김광석 사후 한국 포크의 후계가 희미해진 상황에서 (리메이크의 황태자 김광석이 생전에 김민기의 노래를 리메이크하지 못했다는 것이 새삼스레 아쉽다.) 아주 작고 낮은 곳에서 포크의 정신을 수호하는 인디언 수니의 음악 애티튜드는 특이하게도 일렉트릭 기타 솔로로 전주를 장식하는 이 〈아침이슬〉 리메이크에서도 진솔하게 드러난다.

20 | 임재범 (2011)



록 보컬의 레전드 임재범이 〈아침이슬〉을 리메이크 했다는 사실은 놀랍게도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거친 턱성의 사우팅 창법을 전면에 걸쳐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 그의 보컬은 이미 전설이 된 이 노래에 새로운 해방감을 불어넣는다. 특히 마지막 코다는 일품이다.

TRIBUTE ALBUM

트리뷰트 음반

김민기
아침이슬
50주년

‘아침이슬’을 포함

김민기의 노래 18곡을

두 장의 음반에 담아 헌정



아침이슬 50년, 김민기에 헌정하다

1980년 5월의 봄 서울역 광장에 모인 대학생들부터 1987년 6월 광장의 시민들, 2016년 겨울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아침이슬'을 합창하던 광경을 기억한다. 지난 수십 년간 '아침이슬'은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저항을 의미했고, 한국 현대사의 온갖 격랑 속에 함께 하며 고스란히 하나의 역사가 되었다.

'전설'로 불리는 1971년에 나온 김민기의 첫 음반은 한국의 통기타 포크 음악이 한국 젊은이들의 정신과 감성을 표현하는 음악 양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음반이고, 싱어 송라이터 시대의 도래를 알렸다.

첫 음반이 권력에 의해 전량 압수 수거된 후에도 그는 꾸준히 노래를 만들었다. 그의 노래들은 대학생과 노동자 등 당대의 저항적 청년세대에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새로운 음악문화의 흐름을 만들어냈다. 그는 포크에서 록, 민요, 동요, 구전가요에 이르는 다양한 음악적 자원을 아우르면서 한국 대중음악의 스펙트럼을 확장적으로 넓혔다.

이 음반은 50년 동안 지속된 김민기의 예술적 여정에 대한 후배들의 존경을 담은 것이다.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다양한 음악인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김민기의 노래들은 그의 음악이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치열한 현재성의 의미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해준다.

-김창남 성공회대 교수, 한국 대중음악상 선정위원장 -

아침이슬 50년,

김민기에 헌정하다

1980년 5월의 봄 서울역 광장에 모인 대학생들부터 1987년 6월 광장의 시민들, 2016년 겨울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아침이슬'을 합창하던 광경을 기억한다.

지난 수십 년간 '아침이슬'은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저항을 의미했고, 한국 현대사의 온갖 격랑 속에 함께 하며 고스란히 하나의 역사가 되었다.

'전설'로 불리는 1971년에 나온 김민기의 첫 음반은 한국의 통기타 포크 음악이 한국 젊은이들의 정신과 감성을 표현하는 음악 양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음반이고, 싱어 송라이터 시대의 도래를 알렸다.

첫 음반이 권력에 의해 전량 압수 수거된 후에도 그는 꾸준히 노래를 만들었다. 그의 노래들은 대학생과 노동자 등 당대의 저항적 청년세대에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새로운 음악문화의 흐름을 만들어냈다. 그는 포크에서 록, 민요, 동요, 구전가요에 이르는 다양한 음악적 자원을 아우르면서 한국 대중음악의 스펙트럼을 확장적으로 넓혔다.

이 음반은 50년 동안 지속된 김민기의 예술적 여정에 대한 후배들의 존경을 담은 것이다.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다양한 음악인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김민기의 노래들은 그의 음악이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치열한 현재성의 의미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해준다.

가을편지 | 나윤선

김민기의 첫 음반을 주선했던 경음악평론가 최경식 씨의 동생인 가수 최양숙의 노래로 1970년대 초반에 널리 알려졌다. 노랫말은 시인 고은이 썼다. 시적인 노래말과 유려한 선율은 한국 대중가요사의 걸작으로 꼽아도 손색이 없는 작품이다. 이후 많은 가수들에 의해 리메이크되었고 지금도 애창되는 노래다.

강변에서 | 정태춘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노동자의 모습이 담겨 있다, '시커먼 연기와 '파란 실오라기'가 대비되고 '효사한 기차'와 '작은 나룻배'가 대비되는 노래 말은 여러 가지 상징적 함의를 느끼게 한다. 김민기가 군 생활 중일 때 송창식에 의해 처음 발표된 이 노래는 가사 중에서 '16살 순이'가 '19살 순이'로 둔갑해 있었다. 16살로는 근로기준법상 취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공연윤리위원회의 개작지시 이유였다.

교대 | 이날치

〈공장의 불빛〉 도입부에 나오는 곡이다. 아간 교대를 위해 동료를 깨우고 함께 어둡고 추운 골목을 지나 공장으로 향하고 수위실에서 출근 카드를 찍으며 정문을 통과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그 사이 | 웬디(레드벨벳)

김민기의 노래에서 자주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노래 가운데 하나. 낮과 밤이 겹쳐지는 시간 하늘과 땅이 맞닿은 저녁 들판의 풍경이 묘사되어 있다.

기자촌 | 이은미

이태원 근처의 풍경이 담겨 있다. 가수 윤지영('내 노래에 날개가 있다면' 의 작곡자)의 음반에 수록될 예정이었으나 기자촌의 풍경을 비판적 시선으로 담은 이 노래는 물론 심의를 통과할 수 없었다. 결국 가사를 바꾼 채 '황혼'이란 제목으로 녹음되었으나 대부분 김민기의 곡으로 채워진 윤지영의 음반은 끝내 사장되었다. 이 노래는 1970년대 후반부터 대학가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블루스풍의 멜로디가 기자촌의 퇴폐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늙은 군인의 노래 | 유리상자

군대시절, 정년 퇴직하는 선임하사의 술자리 푸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작곡하여 선물했다는 노래다. 이 노래는 양희은의 1978년 음반에 수록되었으나 곧 금지곡이 되었고 앨범도 판매금지 되었다. 1980년 이후 이 노래속의 '군인' 대신 부르는 사람에 따라 '투사' 혹은 '교사' '농민' '노동자' 등으로 다양하게 바뀌어 불렸다.

봉우리 | 한영애

1984년 L.A 올림픽이 열렸을 때 MBC TV에서는 초반에 메달권에서 탈락하면서 조기 귀국한 운동선수들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이 다큐멘터리의 작가는 나중에 〈여명의 눈동자〉 〈모래시계〉 등의 작가로 유명해진 송지나였다. 이 노래는 이 프로그램의 주제곡으로 만들어져 양희은의 목소리로 방송되었다. 물론 브라운관의 자막에 작곡자의 이름은 빠진 채로였다. 1985년 양희은의 음반에 '우리가 오를 봉우리는'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었다.

상록수 | 알리

1977년 군에서 제대한 김민기는 부평 근처의 공장에 취직한다. 그는 노동자들을 모아 새벽마다 공부를 가르쳤다. 노동자들 상당수가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살고 있음을 안 그는 노동자들의 합동 결혼식을 주선하고 이 노래를 추가로 불러주었다. 이 노래는 1978년 양희은의 음반에 작사 작곡자의 이름이 바뀐 채 '거치 른 들판에 푸르른 솔잎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김대중 정부 때는 IMF·환란을 함께 헤쳐가자는 메시지를 담은 정부의 공익 광고 캠페인 송으로 TV 방송을 타기도 했고,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노무현 후보가 기타를 치며 이 노래를 부르는 선거 홍보 영상이 제작되기도 했다. 한 시대의 펁박반던 작곡가의 노래가 느닷없이 국가 캠페인 송으로 변신하는 그 놀라운 신분상승의 드라마는 그대로 한국 현대사의 굴곡을 대변한다.

새벽길 | 윤도현

김민기가 다니던 서울대 미대 정문 옆에는 조그만 구두 수선방이 있었다. 새벽에 학교에 올 때나 밤늦게 귀가 할 때 구두방 주인이 일하는 모습은 몹시도 인상적이었다. 열심히 일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름답다. 이 노래는 바로 그런 느낌을 담고 있다.

이름다운 사람 | 태일(NCT)

'현경과 영애'의 노래로 처음 발표되었다. 1절의 울고 서 있는 사람, 2절의 들판을 달리는 사람, 3절의 산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각기 인식과 행동, 그리고 그것의 종합으로서의 실천적인 인간형을 상징한다. 가사에 등장하는 '하나이'라는 대목은 흔히 '한 아이'로 오해되곤 하는데, 작가 자신은 '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쓴 표현이다.

아근 | 노래를 찾는 사람들

〈공장의 불빛〉 중 한 대목이다. 입장이 다른 노동자들의 대화를 통해 노동자들 사이의 인식 차이를 드러내고 노동자의 현실을 이야기하며 노동조합을 조직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오래 전부터 군대 등에서 구전되어 온 구전가요의 멜로디를 차용하면서 다양하게 변주하고 있다.

이 세상 어딘가에 | 권진원+황정민(배우)

1978년에 제작된 노래곡 〈공장의 불빛〉의 대미를 장식하는 노래다. 1절은 아직도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꿈을 꾸는 여공의 이야기, 2절은 현실을 깨우치는 언니의 이야기, 그리고 3절은 다 함께 손잡고 싸우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1990년 한겨레신문사가 제작한 〈겨레의 노래〉 음반에 송창식과 조경옥의 목소리로 실렸다.

작은 연못 | 장필순

1970년대 초반의 포크송 선풍 속에서 양희은의 노래로 널리 알려진 김민기의 대표곡 가운데 하나다. 장조에서 단조로 바뀌는 멜로디의 진행이나 반전과 평화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상징적인 가사 모두 당대 대중가요에서 보기 힘든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주여 이제는 여기에 | 윤종신

김지하의 희곡 〈금관의 예수〉 도입부에 나오는 시를 토대로 작곡한 노래다. 〈금관의 예수〉는 기진 자들에 의해 왜곡된 예수상을 비판하고 민중적 의미의 예수상을 구현한 작품으로, 이 노래는 1973년 원주 가톨릭회관에서의 초연 당시에 만들어졌다. 1978년 김민기의 작품으로 구성된(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빌렸지만) 양희은의 앨범이 발매되자마자 수록곡 '늙은 군인의 노래'가 금지되고 앨범이 판금되었다. 이후 '늙은 군인의 노래' 대신 이 노래가 '주여 이제는 그곳(북한을 지칭한다)에'라는 제목으로 가사를 바꾸어 수록되면서 재발매되었다. '여기'에서 '그곳'으로 이르는 여정에 한국 대중가요의 초라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었다.

천리길 | 크라잉넛

처음 군에 입대했을 때 김민기가 근무한 곳은 카투사의 AFKN 방송국이었다. 비교적 편한 군생활을 하던 중 유신 반대운동이 격렬해지고 집회와 공연에서 김민기의 노래들이 자주 불리어지자 김민기는 영문도 모른 채 보안부대에 소환되었고 이어 최전방으로 배치되어 영장 생활을 한 후 제대할 때까지 근무하게 된다. 이 노래는 강원도 산골의 군 생활 중에 작곡한 노래다. 어린 시절의 캠핑경험, 청년시절의 여행경험이 녹아들어 있다. 순수하고 맑은 마음으로 들과 산을 뛰노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담았다.

절망 앞에서 | 메이트리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2년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 계획이 추진되었다. 그 가운데는 남북예술단 교환공연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남측 예술단의 공연 작품 구성이 처음에는 김민기에게 의뢰되었고 김민기는 이 공연의 피날레에 사용하기 위해 이 노래를 작곡했다. 그러나 남측 예술단 구성 단계에서 제작진이 바뀌었고 끝내는 계획 자체가 무산되었다. 1993년 김민기 전집 음반에 수록되었다.

친구 | 박학기

김민기의 고등학생 시절인 1968년도 작품이다. 고교시절 보이스카우트 대원들과 함께 동해안에 어流氓을 갔다가 동료 중 하나가 의사하는 사고가 났다. 선임자였던 김민기는 의사한 동료의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혼자 서울로 돌아와야 했다. 이 노래는 돌아온다 이간 열차에서의 참혹한 심경을 그린 것이다. 김민기의 1971년 앨범에 실린 이 노래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감옥에 갇히거나 군대에 끌려간 동료들을 생각하며 부르는 노래로 대학생들의 사랑을 받았다. 고등학생이 작곡한 노래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세련된 화음 진행과 상징성 풍부한 노래말을 가진 이 노래는 한국 모던 포크의 대표적인 걸작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아침이슬이상 참여자들 (합창)

1970년대 학생 운동의 정신을 상징하는 노래이며 금지곡의 대명사. 작곡자인 김민기보다 더 유명한 '아침이슬'은 1970년대 포크 음악은 물론이고 한국 대중 가요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대중에게 가장 오래 사랑받는 명곡 가운데 하나다. 처음 발표된 당시에는 '건전가요' 목록에 오르내리기도 했으나 1975년 가요제 심사 당시 다른 많은 가요들과 함께 금지되었다. 다른 금지곡들과 달리 아무런 금지 사유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 노래가 다시 방송을 통해 흘러나올 수 있게 된 것은 1987년 시민항쟁이 있고 난 후였다.

KIM MINGI ANNALS

김민기 연보

김민기
여침이술
50주년

1950~2020

김민기 발자취

1950

1951년 3월 31일,
전북 익산에서 10남매의 막내로 태어남

김민기의 모친은 산파였다. 부친은 그가 태어나기 직전에 패퇴하던 인민군에 의해 피살되었다. 유복자인 그는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아무런 기억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의 어머니(1907~1996)는 함경도 원산 태생이며 연희전문을 다녔다. 연희전문 4학년 때, 그녀는 기숙사내의 한국인 학생에 대한 차별대우에 항의하는 시위를 주도, 제적당했고 이어 일본으로 건너가 조선원자격증을 땄다. 귀국 후 남부지방의 여러 곳을 다니며 진료활동을 벌이다 익산의 병원에서 김민기의 부친과 만나 결혼, 10남매를 낳았다. 아버지없이 자란 김민기에게 활동적인 어머니의 영향은 대단히 컸다.

유년시절

그는 서너 살 때부터 어머니와 형 누나들이 각기 직장과 학교로 나간 후 늘 혼자 집을 지켜야했다. 텅 빈 집에서 하루종일 혼자 지내야 하는 어린 그에게 유일한 즐거움은 작대기를 가지고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는 일이었다. 글자를 배우기 훨씬 이전부터 그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스스로 대화를 나누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유년시절의 체험은 다분히 외로움과 공포의 기억을 동반한 채 아직도 그의 뇌리 속에 생생히 살아있다. 혼자서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다가 듣게 되던 방공훈련의 사이렌소리, 거의 매일 밤 되풀이되던 등화관제의 칠흘 같은 어둠, 그 어둠 속에 서 간간이 들리던 개 짖는 소리, 검은 것을 쏘운 전등아래서 듣던 꽤종시계 소리, 지붕 밑 흙통의 벗을 떨어지는 소리.... 그의 감수성 속에 최초로 자리 잡은 음악은 바로 그런 소리를 이었다.

1960

1963년 서울재동국민학교 졸업, 경기중학교 입학

중학교 시절 김민기 생활의 거의 전부를 차지한 것은 미술반과 소년단 활동이었다. 한국범스카우트 제 49호이기도 한 그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미술실에 들어박혀 그림을 그리고 주말이면 보이스카우트 대원들과 어울려 캠핑을 다니곤 했다. 물론 공부는 뒷전이었다.

당시 서울읍내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던 셋째 누나가 그를 음악의 세계로 이끈 최초의 스승이었다. 그는 피아노 밑에서

누나의 연주를 듣다가 잠이 들곤 했다. 그의 음악적 감각은 거기서 크게 차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누나의 연주에서 틀린 대목을 정확히 고집해 내는 출중한 '귀'를 가지게 된다. 그 당시 그가 다룰 수 있었던 유일한 악기는 소년단실에 있는 우크렐레였다. 캠핑 때마다 우크렐레로 노래를 반주하는 일은 항상 그의 뜻이었다.

1966년 경기고등학교 입학

고등학교에서의 생활도 중학교 때와 마찬가지였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에게 그 자신의 악기가 생긴 것이었다. 셋째 누나가 입학을 기념하여 선물한 클래식 기타는 그가 최초로 소유한 악기였다. 그는 혼자서 누나의 피아노 악보를 이용해 기타를 익혀 나갔고 얼마안가 학교 내에서 소문난 기타연주자가 되어 있었다. 누나가 선물한 기타는 그후 그의 삶을 결정적으로 뒤바꾸어 놓은 계기가 된 셈이었다.

1969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입학

어서부터 그림을 그려왔고 중·고등학교 내내 미술실에서 그림만 그리다시피 해왔던 그에게 대학교과정의 미술수업은 도무지 성이 차지 않았고 흥미롭지도 않았다. 따라서 학교 성적은 그리 좋은 편이 못되었고 결국 그는 1년 낙제를 하게 된다.

그가 학교 복도 구석에 칸막이를 치고 그곳에 들어박혀 그림에 몰두하고 있을 때 고교시절 그룹사운드 활동을 했던 동창 김영세가 그를 찾아왔다. 자기와 함께 듀엣을 만들어 노래를 하자는 제안이었다. 마침 그림 물감 값이 아쉬워 세차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1만원 가량의 빚까지 지고 있었던 김민기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둘은 함께 기타를 치며 대방에서 노래를 부르게 된다. 듀엣의 이름은 도비두(도깨비 두 마리라는 뜻)였다.

그가 낙제를 하고 두 번째로 1학년에 다니던 70년 어느 날,

고교동창 임문일의 소개로 양희은을 만나게 된다. 임사인정으로 스스로 돈을 벌어야 했던 양희은이 기수활동을 시작하며 그에게 노래반주를 부탁했고 김민기는 양희은의 노래반주를 해주며 그녀를 위해 본격적으로 작곡을 시작했다.

어지게 되었다. 어느 날인가 그는 아외에서 풍경화를 그리고 있었다. 화면을 수정하기 위해 칼로 긁어내다가 캔버스에 구멍이 뚫려버렸다. 그 뚫린 구멍사이로 방금 그가 그리고 있던 나무가 보였다. 그는 앞으로 그림을 그려서 무엇 할 것인가, 조금만 움직이면 저 나무를 내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는데....”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는 앞으로 그가 살아갈 삶의 방식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시사를 받은 느낌이었다. 그해 겨울 무렵을 기해 그는 완전히 서양화 붓을 놓아 버렸다. 기타라는 악기에 대해 서도, 회의가 들기 시작했고, 전통 국악이나 민요, 판소리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토록 아끼던 기타는 후배 누군가에게 주어버렸다.

1973년초, <금관의 예수>공연

이 무렵, 지학순 주교와 김지하 시인을 중심으로 가톨릭권의 문화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 일환으로 김지하의 희곡 <금관의 예수>가 전국을 순회하며 공연되었다. 이 공연에는 김민기 외에 많은 연극 팔레들이 참가했는데 이를 계기로 김민기는 연극 팔레들과 본격적인 교류를 가지게 되었다. 이 연극의 주제가이자 그의 걸작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노래 <주여, 이제는 여기에>는 첫 공연인 원주로 향하는 버스 속에서 작곡되었다.

이 때부터 그는 새야인사들의 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자주 참여하게 되는데 73년 겨울의 ‘민족문학의 밤’ 행사에서는 이종구의 북과 김영동의 아쟁에 맞추어 항일의 병장 우덕순의 시 <보난대로 죽이리라>를 낭송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그의 모습은 모 일간지의 신춘 문예 소설부문 당선작에 당 시대의 한 상징적인 젊은이의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했다.

1974년 4월 소리굿 <아구>공연

김민기가 국악에 대해 처음으로 눈을 뜨게 되는 것은 당시 미대에 함께 다니던 김구한을 통해서였다. 김구한은 국악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악과에 합격했으나 형편상 입학을 포기했다가 69년에 미대에 입학, 조소과에 다니고 있었다.

김구한에게서 단소를 배우면서 전통음악을 접하기 시작한 김민기가 보다 본격적으로 국악의 대중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작곡과 출신의 이종구와 김영동을 만나면서부터였다. 그 첫 작업은 음대의 써클인 ‘20세기 음악 연구회’의 발표회 무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신경림의 시에 이종구가 곡을 붙인 작품이 국악과 기타반주로 무대에 올려졌는데 기타부분의 편곡과 연주, 그리고 노래는 김민기가 맡았다.

73년말 김민기는 경음악평론가 최동욱의 주선으로 자구레코드사와 미국의 RCA와 함께 라이센스 음반을 만들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때 받은 계약금을 가지고 준비한 것이 1974년 4월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공연된 ‘이종구 작곡 발표회’였다. 이 작곡발표회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제 1부에서는 이 종구가 작곡한 작품들을 김민기가 노래불렀다. 김지하의 시에 곡을 붙인 <빈산> <서울길>를 비롯 <백제관음> <하나이었다더라> 등 여러 노래들이 국악반주로 발표되었다. 제2부에서는 한일관계의 문제를 특히 기생관광에 초점을 맞추어 풍자한 소리굿 <아구>가 공연되었다. 소리굿 <아구>의 대본은 남사당 덧뵈기중의 멍중과장의 기본골격을 원용하여 김민기가 집필한 것이었고 이종구가 작곡을 맡았으며, 채희완, 임진택, 김석만, 이애주 등이 참가했다. 이 국립극장 공연은 TV로 방영될 예정이었으나 녹화 도중 중단되었고 레코드 출 반계획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물론 그 노래들이 공연 윤리위원회의 검열을 통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공연단체는 대단한 성황을 이루어 입장료가 200원인데 암표가 무료 3,000원씩에 거래될 정도였다. 전통 탈춤양식이 오늘의 문제를 담는데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를 보여준 이 소리굿 <아구>는 이후 70년대 전반을 통해 크게 일어난 마당극 운동의 결정적인 시발점이 되어준 것이었다. 소리굿 <아구>는 이후 이화여대에서 재공연되었는데 재공연 당일 채희완과 임진택이 연행되었고 김민기가 쪽발이 역을 직접 맡아 공연 하였다.

1974년 10월 군에 입대

군에 입대한 그가 처음 배치 받은 곳은 카투사 중의 카투사로 불리는 AFKN방송국이었다. 그가 비교적 편한 군대생활을 보내고 있던 75년, 전국은 소위 유신천반국민투표문제로 온통 들끓고 있었다. 가톨릭권을 중심으로 국민투표 보이코트 운동이 맹렬히 전개되었고 투표당일에 명동성당에서 하루 종일 투표를 반대하는 집회와 공연을 벌이려는 계획이 세워졌다. 이 모임의 계획은 사전에 밝각되어 무산되었지만 이 일로 김민기는 영문도 모른 채 보안부대에 소환되었고 곧 이어 최 전방으로 재배치되었다.

전방으로 배치되어 갔을 때 그를 기다린 것은 2월 혹한 속의 차디찬 사단영장이었다. 내복도 못 입은 채 독방 영장생활을 마친 후 그곳에서 그는 나머지 군 생활을 보냈다.

1975년 수색중대가 작사, 작곡

군 복무 중 그는 연대의 수색중대장으로 있던 고등학교 선배의 부탁으로 수색중대가를 작사 작곡하게 된다. 이 노래는 김

민기가 만든 유일한 군가로 실제로 중대가로 불려졌다.

1977년 5월 제대

군에서 제대했을 때 이미 그의 노래는 방송가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었지만, 묘하게도 그는 자신이 입대 전보다도 훨씬 더 유명해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다른 한 쪽에서 그는 ‘위험인물’로 단단히 낙인찍혀 있었고 모든 공식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아야 했다. 대학기에서는 여전히 그의 노래들이 애창되고 있었지만 그를 인기가수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학기에서 불리는 노래가운데는 그의 노래 외에 과거 독립군이나 빨치산들이 불렀던 류의 작자미상의 구전가요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도 김민기의 노래일 것이라고 지레 단정 짓곤 했다. 그는 본의 아니게 대단한 투사로 인식되고 있었다.

제대하고 얼마 후 그는 가까스로 부평근처의 어느 공장에 취직하게 된다. 생산직은 아니었지만 그로서는 노동자들의 삶과 의식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는 그 공장에서 노동자들을 모아 새벽마다 공부를 가르쳤다. 소위 말하는 ‘의식화교육’과는 무관하게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는 소박한 생각이었다. 거의 매일 계속되는 아근 때문에 밤에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야학(夜學) 아닌 조학(朝學)인 생이었다.

이 때 그와 함께 생활한 노동자들의 합동결혼식을 위해 그는 <상록수>라는 노래를 만들어 불러주기도 했다. 그의 현장상황에 관하여는 소설가 조세희가 <난장이 미을의 유리병정>이라는 작품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공장에 다니던 중에 그는 당시 서울미대 학장이었던 조각가 김세중 씨의 배려로 대학 졸업장을 받게 된다. 중등교사 자격증도 함께였다. 대학에 입학한지 9년만의 졸업이었다.

더 이상의 공장근무가 곤란해지자 그는 퇴사했다. 그 후 한동안 그는 노동자들과 함께 기숙하며 막노동 생활을 해야 했다. 그로서는 몹시도 춤고 외로운 시기였다.

1978년 음반 <거치른 들판의 푸르른 솔잎처럼>제작

양희은이 노래한 이 음반은 그가 군대시절에 작곡한 <늙은 군인의 노래> <식구생각> 그리고 제대 후에 만든 <밤별놀이> <거치른 들판에 푸르른 솔잎처럼(상록수)> 등, 거의 그의 작품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정작 어느 한 곡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할 수는 없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김민기라는 이름으로는 심의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노래가 문제 가 아니라 작곡자의 이름이 문제였으니 심의기준치고는 기가 막힌 심의기준이 아닐 수 없었다.

남의 이름을 빌어 낸 이 음반은 그나마도 얼마인가 일부가 삭제되었고 곧 다시 판금되어야 했다. 밀씨가 된 것은 <늙은 군인의 노래> 때문이었다.

음반발매 후 군인들 특히 하사관과 일반 사병들 사이에 급속히 전파되던 이 노래에 대해 장교들은 심한 거부감을 가졌고, 국방부가 영내에서 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할 것을 전군에 하달했던 것이다.

이 음반은 그 후에 <늙은 군인의 노래> 대신 <주여 이제는 여기에>가 <주여 이제는 그곳에>로 둔갑하여 실려 재발매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의 힘법적인 음악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김민기는 새로운 작업에 착수한다.

1978년 겨울 노래굿 <공장의 불빛> 완성

<공장의 불빛>은 70년대 대표적인 노조탄압사례의 하나인 동일방지사건을 모델로 하여 노래굿이라는 새로운 양식으로 카세트테이프에 담아낸 것이었다.

익명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 제작된 이 테이프에 김민기는 자신의 이름 석 자를 비로소 뜻없이 밝힐 수 있었다. 이 테이프의 제작에는 당시 대학마다 태동하기 시작한 노래동아리들 즉 서울대 ‘메아리’ 이화여대 ‘한소리’와 경동교회 ‘빛바람 중창단’ 등이 참여해 노래를 불러 주었고 뜻있는 연주자들이 기꺼이 동참해주었다. 기관원들의 눈을 피해 가수 송창식의 연습실을 비롯해 여러 곳을 숨어 다니며 제작해야했던 <공장의 불빛>은 나오자마자 커다란 화제가 되었고 그는 당연히 연행되어 조사를 받아야 했다.

<공장의 불빛>은 그가 사천말로 “방에 길” 각오를 하고 만든 것이었지만 어찌 일인지 그는 구속되지 않고 곧 풀려 나왔다. 그후 그가 전해들은 얘기 한 토막, 청와대의 어떤 회의석상에서 나왔다는 얘기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건드리면 냄새만 나. 집어넣으면 김지하를 하나 더 만드는 셈이야.”

조사를 마치고 나온 그는 이제 더욱더 위험한 인물로 간주되고 있었고 아무데도 갈 곳이 없었다. 그는 부친의 산소가 있는 이리 근처로 내려가 조용히 묻혀 살 결심을 한다. 그는 처음으로 얼굴도 모르는 부친에 대한 짙은 그리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익산의 어느 농가에서 밤만 얻어먹으며 농사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생활조차도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 그의 주인집은 정기적으로 그에 관해 경찰에 보고를 해야 했다. 10,2601 터진 후 그는 김제로 옮겨 소작농사를 시작한다.

1979년 12월 유아원 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공연에 출연

10.26 직후 한국사회는 새로 맞을 봄의 기대로 잔뜩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김민기가 대학시절에 활동했던 야학의 후배 강학들이 그를 찾아왔다. 그들은 여성 해고 노동자들에게 보모교육을 시켜 유아원을 설립하고자 한다며 그에게 도움을 청했다. 10.26 이전 같으면 어림도 없었을 유아원 기금 마련 자선공연이 김민기에게 의해 기획되었고 그는 실로 오랜만에 무대에 섰다. 프로그램에 그의 이름은 한 줄도 비치지 않았지만 소문을 듣고 문화체육관에 몰려든 젊은이들은 김민기에게 열광적인 박수를 쏟았다.

그는 마지막 공연에서 계속되는 앵콜 요청으로 다섯 곡이나 더 불어야 했다. 이 공연에서 마련된 자금으로 경기도 난곡에 자그마한 유아원이 설립되었다.

1980

1980년 <국풍> 출연 거부

제5공화국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대대적인 관제문화행사를 계획하게 되는데 여의도 광장에서 펼쳐진 <국풍>이 그것이었다. 정부에서는 이 행사에 김민기를 참여시키기 위해 집요한 노력을 보였는데 정부 고위층인사가 직접 내려가 갖은 혜유를 다했으나 그는 농사일을 핑계로 끝내 출연을 거부했다. 이 행사는 결국 1981년 5월 <국풍81>이란 이름으로 열렸다. 대학생들을 동원해 의 의도와는 달리 전국의 특산물과 음식들을 전시하는 먹자판 축제로 치러지며 단발성 행사로 끝났다.

그는 마을의 젊은이들을 규합, 청년회를 조직하고 그를 통해 쌀 출하사업도 벌였다. 그곳에서 생산된 쌀을 도시의 소비자들에게 직매함으로써 쇠약한 유통과정의 문제점을 없애고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이익을 얻도록 하는 사업이었다. 이 사업의 결과 농민 층과 소비자 층에서 각각 250만원 정도의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청년회는 이 이익을 기금으로 쓸 수 있었고 그 중 일부는 마을 공동목욕탕 건립기금으로 적립시킬 수 있었다. 이 일로 그는 한때 ‘쌀장수’로 소문이 났고 시인 황명걸은 <쌀장수 김민기>라는 시를 발표하기도 했다. (<문예중앙>84. 여름)

1981년 마당극 <1876년에서 1894년까지> 창작 공연

김제에 자리를 잡고 농사를 짓는 동안 그의 집에는 전라도 지역의 문화패를 비롯, 전국 각지의 문화예술인들이 쉴 새 없이 들락거렸다. 모내기철이나 추수 때면 각지의 친구, 후배들이 모여들어 일을 도와주었고 그의 집은 마치 장터처럼 떠들썩하였다.

기 마련이었다. 이 때 김제, 전주지방의 젊은 연극파들이 자주 그를 찾아왔는데 그는 이들을 규합, 근대사 세미나를 겸한 마당극 <1876년에서 1894년까지>를 창작했고 81년 전주에서 소규모 워크샵 형식으로 공연을 가졌다.

1981년 경기도 전곡으로 옮김

81년, 김민기는 전곡으로 옮겨 작은 아버지와 함께 소작을 시작했다. 겨울철에는 추운 지역이라 비닐하우스도 할 수 없어 남해의 외딴섬 김 양식장에 일을 해 하루 세끼를 때워야만 했다.

전곡에서 농사를 짓던 중 그는 농민의 현실을 더욱 깊이 절

감하는 계기가 된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 그해 그는 약 5,000평 규모의 참깨농사를 시작했다. 그때 모(某) 비료회사에서 그 일대를 맡아 액체비료를 살포했는데 나중에 보니 싹이 농탕 타 죽어있었다. 김민기는 혼자서 원인조사에 나섰고 결국 비료회사에서 비료를 많이 팔기 위해 정량의 5배 이상이나 과다 살포한 턱임을 밝혀낸다. 그때 보상은 받아내기 위해 각지를 찾았더니 협조를 구했으나 도움 받을 길이 없었고, 그는 혼자서 비료회사를 상대로 외로운 씨움을 벌여야 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비료의 필요량과 실제 살포량 등에 관해 데이터를 작성해 냈다. 그는 이를 근거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 끝내 배상을 받아내는 점을 보인다.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소위 ‘새마을 운동’ 이후 마치 투기꾼처럼 변해버린 농민의 모습과 모든 운명을 자신의 터으로만 돌려버리는, 그래서 속으로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던 농촌의 현실, 그리고 농민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은 외면한 채 오로지 정치지향으로만 치닫는 당시의 일부 재야운동권의 실상을 빠져지며 실감할 수 있었다. 81년 겨울, 전곡의 민통선 북방지역에 5,000평 규모의 논을 소작할 기회가 생겼다. 단, 논 옆에 있는 흥가 하나를 매입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그 흥가, 김민기는 충남보령의 탄광에서 일해 50만원을 벌었고 그것으로 흥가를 매입, 그곳에서 생활하며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그는 마을의 젊은이들을 규합, 청년회를 조직하고 그를 통해 쌀 출하사업도 벌였다. 그곳에서 생산된 쌀을 도시의 소비자들에게 직매함으로써 쇠약한 유통과정의 문제점을 없애고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이익을 얻도록 하는 사업이었다. 이 사업의 결과 농민 층과 소비자 층에서 각각 250만원 정도의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청년회는 이 이익을 기금으로 쓸 수 있었고 그 중 일부는 마을 공동목욕탕 건립기금으로 적립시킬 수 있었다. 이 일로 그는 한때 ‘쌀장수’로 소문이 났고 시인 황명걸은 <쌀장수 김민기>라는 시를 발표하기도 했다. (<문예중앙>84. 여름)

1983년 연극 <멈춰 선 저 상여는 상주도 없다더니> 연출

83년, 극단 연우무대는 2년 전 김민기가 전주에서 만들었던 마당극 <1876년에서 1894년까지>를 대한민국 연극제에 출품, 본선에 올랐다. 이 연극은 김민기의 연출로 문예화관 대극장에서 공연되었는데 당시 제목은 <멈춰 선 상여는 상주도 없다더니>였다. 당시 연우무대의 대표였던 오종우 씨를 희곡작가로 내세워 출품되었던 이 작품은 평론가들로부터는 그다지 좋은 평을 받지 못했지만, 연출자 김민기의 명성에 힘입어 대학생층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고, 당시 문예화관 대극장 개관이래 최대의 관객동원이라는 기록을

수립하기도 했다.

1983년 12월, 화재발생. 84년 1월 서울로 나옴

그가 민통선 안에서 농사꾼으로 일하고 있던 83년 겨울, 그가 살고 있던 집에 화재가 나 기재도구와 가지고 있던 책까지도 몽땅 불타버리는 액운을 만난다.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이 새로 집을 지어줄 테니 계속 머물러달라고 했고 그 자신도 그렇게 할 생각이었다. 그때 미국에 유학 중이던 친구 김석만이 돌아왔다. 연극 작가이자 연출가인 그는 돌아오자마자 김민기를 만나 함께 일할 것을 종용했다. 마침내 김민기는 농촌생활을 일단 청산하고 서울로 올라왔고 그는 김석만, 오종우 등과 함께 사무실을 내고 새로운 작업을 시작했다.

맨 먼저 김석만과 함께 아동용 뮤지컬을 만들어 공연하고 레코드로 출판할 것을 계획했다. 그러나 레코드사와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아 시작한 이 기획은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

김민기의 작품이라는 이유 때문에 공윤심의를 위한 접수가 거부되어 심의를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 때문이었다. 아직까지도 그의 이름으로 음반을 낸다는 것은 그 내용을 불문하고 불가능한 일이었다.

1984년 음반 <노래를 찾는 사람들 1> 제작

어린이 뮤지컬 음반을 추진하던 김민기는 또 다른 일에 착수하게 된다. 70년대 후반부터 서울대, 이화여대 등을 필두로 노래 동아리들이 생겨났다. 이들은 70년대 문화운동의 주역이었던 마당극의 자리를 대신해 수많은 집회와 시위에서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 제공자로 떠올랐고, 이러한 상황에 따라 새로운 노래들이 폭발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했다. 이즈음 70년대 후반부터 대학에서 노래운동을 하던 노래패들은 대학을 졸업하면서 대학 밖의 사회공간에서 지속적인 노래운동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새로운 활동방식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민기에게 도움을 청했고 마침 아동용 뮤지컬 음반을 준비중이던 김민기는 이들과 함께 공식적인 음반을 제작발매하기로 했다. 이 시점에서의 음반제작은 대학 울타리안에 머물러 있던 노래운동의 성과를 일반대중의 광범위한 영역에로까지 확산시키면서 좀더 전문적인 노래운동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한 것이었다. 그러나 공윤은 김민기의 작품들을 출판 다음해에 국민학교 4년 도덕 교과서에 의문으로 실리게 되는 이 작품의 내용 역시 공윤심의 과정에서는 개작지시를 받아야 했다. 공윤은 작품의 전편에 여러 차례 걸쳐 나오는 '끼만집, 끼만길, 끼만물, 끼만산...'에서 '끼맙다'라는 표현을 전면 수정할 것, 시험의 악동에 시달리며 굴속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는 주인공 어린이의 독백 가운데 '나는 지옥이 어떤 곳인 줄 안다...'에서 '지옥'을 바꿀 것, 흑염소의 이름인 '검둥이'가 보신탕을 연상시키니 바꿀 것 등등 더무니없는 개작을 요구했다. 결국 '끼맡다'를 '하얗다'로 바꾸겠다는 작자의 협박 아닌 협박(탄광촌이 하얗다?) 끝에 '지옥'을 '굴속'으로 '검둥이'를 '흑염소'로 바꾸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졌고 카

반사에서 다시 출반되었고 그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연 활동을 시작한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활발한 활동에 힘입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후 89년에 출반된 '노래를 찾는 사람들 2' 음반의 성공과 함께 '노래를 찾는 사람들' 음반 1, 2, 3집은 레코드가의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잡았고 '노래를 찾는 사람들'은 문화운동 역량이 대중적인 성공을 거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부각되면서 한국 대중 가요사에 큰 획을 긋게 되었다.

1985년 8월 31일, 결혼

그가 새로운 각오로 추진한 뮤지컬의 시도는 또 한번의 좌절을 겪어야 했지만 그 작업을 계기로 그는 한 여자를 만날 수 있었다. 그녀는 그가 뮤지컬 출반계획을 추진하던 사무실에 상근하며 그의 작업을 도왔던 이미영이었다.

1985년 8월 31일,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서 서른 다섯의 김민기는 결혼식을 올렸다. 쏟아지는 비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이 있던 서울 미술관에는 수많은 하객들이 모여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고 그들은 불광동의 두 칸짜리 전세방에서 어머니와 두 조카들과 함께 새 살림을 시작한다.

1987년 9월, 음반 <아빠얼굴 예쁘네요> 출반

87년 6월의 시민항쟁이 6.29선언을 얻어낸 후 이루어진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에는 금자곡 해제 등 이른바 부분적인 문화해금이 포함되었다. <아침이슬> 등 김민기의 노래들도 이때 금자곡의 사슬을 벗게 되는데 해금된 김민기가 새로 선보인 첫 번째 작업이 아동용 뮤지컬로 제작된 <아빠얼굴 예쁘네요>였다.

<아빠얼굴 예쁘네요>는 탄광촌에 사는 어린이들의 눈을 통해 그들의 인간적인 삶을 진잔한 노래와 함께 펼쳐 보이는 작품으로, 작자 자신의 광부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80년대 초부터 뜻있는 일선 초·중등 교사들에 의해 수집된 어린이 글짓기 작품들을 원용하여 구성한 작품이다.

김민기는 80년대 초 모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대학 내 노래동아리들의 결성 배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노래동아리들은 그의 군 생활시절 대학 내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 그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고 그는 군에서 제대하고 한참 후에야 그와 같은 동아리들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 수사관은 그에게 기관내부 교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대외비 책자를 한권 펼쳐 보였다. 그 책자의 머리말에는 유독 김민기의 인적 사항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고 부피가 꽤 되어 보이는 그 책자는 원편쪽이 노래가사이고 오른편쪽이 그 가사의 해설편인 노래집이었다. 김민기는 그 책자에서 자신도 모르는 작자미상의 많은 독립군과 빨치산 노래 같은 것들이 자신의 작자 작곡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 수사관은 그 노래들의 작

세트 테잎과 그림책을 묶은 형식으로 출반은 되었지만 공윤의 지거울 정도로 자상한(?) 배려는 두고두고 웃음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김민기는 이듬해,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윤을 '군사문화회를 확대 재생산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통렬히 지적한 바 있다. 또 그는 늘 공윤을 해체하고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 육성하는 기구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자주 펴온 편이다.

출반에 앞서 <아빠 얼굴 예쁘네요>는 연우무대에서 3대의 Slide projector를 사용해 사진과 그림을 영상으로 비추고 노래와 음악을 Play back하는 방식으로 공연되었는데, 이때 처음 선보인 Multi Slide Projection 방식은 이후 수많은 공연과 접두, 특히 노래공연에서 서사적 효과를 위해 활용되면서 새로운 공연기법으로 자리 잡게 된다.

1987년 12월, 음반 <노래일기-엄마, 우리엄마>, <노래극-개똥이> 수록곡 모음 출반

공식활동을 재개한 김민기는 84년에 시도했던 좌절되었던 아동용 뮤지컬 작품을 비로소 음반으로 내놓게 된다. 이 음반에는 노래일기 <엄마, 우리엄마> 전편과 노래극 <개똥이>에 나오는 <날개만 있다면> 등 열세 곡의 노래가 실려있다.

<엄마, 우리엄마>는 <아빠얼굴 예쁘네요>와 같은 형식으로 이보다 먼저 만들어진 짧고 잔잔한 소품이고 <개똥이>는 윤기현의 창작동화 <사랑의 빛>에서 모티브를 차용해 만든 뮤지컬 작품이다. 그러나 이 작품 역시 공윤의 심의과정에서 몇몇 노래가 불허되어 음반에서 빼져야 했던 관계로 뮤지컬이라기보다는 조각난 노래들의 모음이라는 형식이 되고 말았다. 이른바 '문화해금'이나 '민주화' '개방시대'니 하지만 창작의 숨통을 옥죄는 검열장치는 여전히 엄존하고 있었고 김민기에 대한 당국자들의 시각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다.

70년대 아래 김민기에 대한 당국의 시각을 알게 해주는 일화 하나를 소개한다.

김민기는 80년대 초 모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대학 내 노래동아리들의 결성 배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노래동아리들은 그의 군 생활시절 대학 내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 그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고 그는 군에서 제대하고 한참 후에야 그와 같은 동아리들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 수사관은 그에게 기관내부 교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대외비 책자를 한권 펼쳐 보였다. 그 책자의 머리말에는 유독 김민기의 인적 사항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고 부피가 꽤 되어 보이는 그 책자는 원편쪽이 노래가사이고 오른편쪽이 그 가사의 해설편인 노래집이었다. 김민기는 그 책자에서 자신도 모르는 작자미상의 많은 독립군과 빨치산 노래 같은 것들이 자신의 작자 작곡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 수사관은 그 노래들의 작

곡동기를 캐어묻기 시작했다. 김민기는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다. 수사관은 이윽고 <아침이슬>의 가사를 펼쳤다. 가사의 첫 낱말인 '긴 밤'에 쳐진 밑줄에 눈이 갔다. 그리고 오른편쪽 해설을 보았다. '유신체제'였다. 그리고 또 몇 개의 밑줄과 장황한 해설들, 그리고 노래 후반의 첫 낱말인 '태양'에 쳐진 밑줄, 오른쪽 해설은 '김일성 체제를 뜻한다'로 되어있었다.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긴 유신체제의 밤을 마감하고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을 열렬히 맞이하자'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양희은이 <아침이슬>을 맨 처음 취입하고 그 다음 해에 김민기 자신이 직접 불러 출반한 것이 1971년이라는 사실을 밝힌 다음, 김민기는 수사관에게 되물었다. "10월 유신이 몇 연도였지요?" 수사관은 대답 대신 인상을 짓그리며 책을 큰 소리가 나게 덮었다. 그러나 이 책자에 많은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는 교재와 같은 것이었을 테고 새마을 교육과 같은 연수교육 등에서 참고자료로 쓰였을 것임을 추정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그 얼마 후 김민기는 어느 연수 교육엔가를 다녀온 자신의 친형으로부터 수사관이 물었던 것과 비슷한 질문을 받아야 했다.

음반의 발매와 함께 전국을 순회하는 '겨례의 노래' 공연이 이루어졌는데 이 공연에서 사람들은 참으로 오랜만에 <아침이슬>을 부르는 김민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겨례의 노래 사업을 벌이면서 김민기가 직접 쓴 발문을 보면 이 사업에 임한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1990

1990년, '겨례의 노래' 사업단 총감독 맡음

1990년 한겨레신문사는 한민족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발굴, 창작하는 '겨례의 노래' 운동을 펼칠 목적으로 '겨례의 노래 사업단'을 발족시켰고 김민기가 그 책임을 맡게 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중국 조선족의 노래들과 묻혀 있던 민족음악 인들의 노래, 대중가요, 가곡, 운동가요 등 폭넓은 영역의 노래들이 수집되었고 대대적인 창작곡 공모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엄선된 노래들로 노래집 <겨례의 노래 1>과 음반 <겨례의 노래 1>이 발간되었다.

음반의 발매와 함께 전국을 순회하는 '겨례의 노래' 공연이 이루어졌는데 이 공연에서 사람들은 참으로 오랜만에 <아침이슬>을 부르는 김민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겨례의 노래 사업을 벌이면서 김민기가 직접 쓴 발문을 보면 이 사업에 임한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로 출반되었다. 실로 22년만에 나오는 그 자신의 음반이다. 오랜 세월동안 '구전(口傳)'의 문화로서 존재해왔고 그래서 늘 현실이기보다는 '신화'에 가까웠던 그의 노래들이 작자 자신에 의해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이 음반은 단순히 한 개인의 창작물을 모은 것이라는 차원을 넘어 그 동안 자의건 타의건 한 시대의 커다란 문화적 흐름을 이루었던 정신사적 흔적을 살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는 자못 크다. 젊은 시절 캠퍼스 어느 구석인가에서 그의 노래를 숨죽여 불러 본 경험을 가진 세대에게 그것이 '추억'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것이라면 그런 경험을 가지지 못한 새로운 세대에게 그것은 '역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될 것이다.

1994년 5월 '지하철 1호선' 공연 시작

독일 뮤지컬의 틀 속에 한국의 현실을 놀라운 생동감으로 녹여 놓은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의 장정이 시작되었다. 아래는 당시의 신문기사 가운데 하나이다.

가수 김민기 <지하철 / 호선> 탄다

<아침이슬>의 작곡자인 가수 김민기(43)씨의 서울 동숭동 소극장 학전(762823)에서 족유지경 <지하철 / 호선> 이 1/4일 개막된다. 연출자도 김민기씨. 풀커 루드비히 원작, 비르거 하이만 작곡의 독일 작품을 연출자가 직접 번역 편곡했다. 6월30일까지 화~목요일 오후 7시30분, 금~일요일 오후 3시, 7시 공연.

70년대 말 최초의 '노동뮤지컬'이라 일컬은 <공장의 불빛>을 작곡했고, 탄광촌 어린이들을 통해 막강의 인생을 바라보는 노래곡 (<아빠 얼굴 예쁘네요>)을 시도했던 김민기씨가 뮤지컬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이기도 한다. 다만 왜 창작 뮤지컬이 아니라 외국 작품이나는 질문이 있을 법하다.

"굽할수록 돌아가란 말이 있잖은가."

예상대로 <지하철 / 호선>은 김민기의 '한국적 음악'으로 향하는 우파 노선이었다. 상업소에 가까운 브로드웨이식 뮤지컬에 휩싸이는 우리 무대를 바라보며 그는 "개인적으로 각오는 비장" 한 상태이고, "우리식의 대중문화 문법을 창조해내는 일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보면 <지하철 / 호선>도 김씨와 비슷한 강박을 당하던 독일의 연극인들이 비슷한 각오로 만들어낸 작품이다.

68년 학생운동 세대의 일부가 문학운동을 자기 일로 정하고 만든 서베를린의 소극장이 그립스. 교육국 활동으로 이름난 이 국장은 브로드웨이식 뮤지컬쇼가 휩쓰는 연극계에서 독일 뮤지컬의 작은 진지 구실을 하고 있다. 성인극으로는 그립스의 첫 작품인 <지하철 / 호선>이 86년 초연 이후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장기공연되고 있다.

1991년, 대학로에 소극장 '학전' 개관, 음반 '북방의 선율' 출반

김민기는 1991년 대학로에 학전소극장을 열고 대표를 맡게 된다. 연극, 음악, 무용 등 다양한 공연물의 종합적인 실험공간을 지향한 '학전'은 이후 TV프로그램으로 옮겨가게 된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를 비롯 김광석, 안지환, 노래를 찾는 사람들 등 다양한 한수들의 콘서트를 기획, 공연하면서 대학로에 소극장 콘서트 문화를 만들어낸다. 특히 이후 매년 학전에

되면서 새로운 세계관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된다. 서울대 미대 미학과 1회 선배이기도 한 장일순씨는 한학을 비롯해 동서학문에 해박한 시각을 갖춘 지역원으로서 '농촌개발 운동' '지역교육사업' '협동조합운동' 등을 벌이면서 70년대 재야운동권의 정신적 자주 역할을 하였고 시인 김지하에게 목학(난)을 기르친 서예가로도 알려져 있다.

장일순, 박재일, 김지하, 최혜성 등과 함께 창립한 '한살림모임'의 '한살림선언' 발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산업문명이 온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면서 굽숙히 생명을 파괴하고 있는 오늘의 죽임의 상황에 대하여 지금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요청은 바로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이에 일각한 새로운 생활양식의 창조입니다. 분단 상황에 놓인 우리나라에는 이 산업주의의 횡포가 특별히 심한 지역이며 이의 극복에 대한 요청도 민족통일에 대한 요청과 더불어 날로 커가고 있습니다."

1993년 음반 '김민기 전집' 출반

"공장의 불빛" "노래일기" 등 긴 노래곡 형식의 작품을 제외한 단행의 초기작품 39곡이 자신의 목소리로 담긴 4장의 음반으

통일 이전에 제작된 이 뮤지컬은 극우파와 좌파성향 사람들의 대립과 갈등, 외국인 노동자 이야기, 노인문제 등 서베를린 사회의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김민기씨는 그것을 오늘의 서울로 무대를 옮겨놓았다.

지방 공연은 쿠비드 가수와 '사랑에 빠졌다'가 그를 찾아 서베

를 끝으로 찾았다는 시골 아가씨가 독일판의 주인공인 데 비해, 서베를린에서는 그 아가씨가 백두산 관광단 일원으로 연변을 지나갔던 청년을 찾았다는 서베를린 결행한 연변에서 바뀌었다. 나윤선·방은진·윤영로·효숙·이두일 등이 출연하고, 5인조 쿠비드 무임승차가 연주를 맡는다.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만들고, 〈미녀와 야수〉나 〈인어공주〉를 끊임없이 새롭게 상품화하는 서양을 보라. 우리에게도 그런 자산은 한없이 풍부하다. 월트 디즈니 사라면 〈별주부전〉 한편으로도 영화 수백편은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벌써 다음 계획을 묻는 소리에 김씨는 팬소리 다섯마당을 읊악으로 만들었고, 재즈 피아니스트 김광민의 편곡, 국악인 남궁정애의 소리지도, 유니스 모리스의 안무 등이 합쳐졌다.

"우리 전통음악의 정서를 어떻게 오늘의 정서에 직접 이입시킬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 현대와 전통을 기계적으로 결합 시킨 '클라우'가 아니라 우리의 관객과 호흡하는 동시에 음악을 창조해야 할텐데."

<안정숙 기자> 한겨레 1994-05-12

1995년 5월 27~27일 '환경음악제'

노래극 '오션월드' 연출

KBS와 조선일보사가 주최한 환경음악제의 노래극 '오션월드'가 김민기의 연출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공연되었다. '오션월드'는 세계야생동물보호기구가 바다 생태계를 소재로 제작한 음악극으로 환경음악가 피터 로즈의 가사에 앤 콘론이 곡을 붙였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편곡자 피터 케이시가 구성한 작품이다. 이 음악제에서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이 지휘봉을 들고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연주했다. 바리톤 오현명, 소프라노 차수정, 가수 강산에, 한영애 등이 함께 무대에 오른 이 공연은 클래식과 팝의 만남을 통해 환경 보호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또 정명훈과 김민기가 함께 만든 작품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1995년 10월 록오페라 '개똥이' 공연

록 오페라 '개똥이'가 1995년 11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 무대에 올랐다. 환경문제를 우화적으로 다룬 이 작품은 원래 84년 무렵 농촌 생활을 청산하고 서울에 올라왔을 때 기획해 준비했던 작품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김민기라는 이름으로 공식적 활동이 불가능했던 시절이었

고 결국 이 작품 역시 무산되고 말았다. 대신 이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난 일군의 후배들과 함께 제작한 음반이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었고 함께 작업했던 후배들이 '노래를 찾는 사람들'과 '노래모임 새벽'이라는 80년대의 대표적 노래운동집단의 모태가 되었다.

'개똥이'의 무대는 벌레들의 왕국. 인간들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들로 인해 벌레들 사이에는 조금씩 반목과 갈등이 싹튼다. 그 가운데 주인공 개똥이(반디의 애벌레)가 이웃을 구하기 위해 자기를 회생해가며 어른 반디로 성숙해간다는 내용이다. 어린이용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공연형태를 보면 그럴지 않다. 노래와 춤, 영상, 첨단 무대미술을 복합적으로 결합시킨 멀티 장르 형태의 공연형식을 취하고 있고, 다만 청년을 찾았다는 서베를린 결행한 연변에서 바뀌었다. 나윤선·방은진·윤영로·효숙·이두일 등이 출연하고, 5인조 쿠비드 무임승차가 연주를 맡는다.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만들고, 〈미녀와 야수〉나 〈인어공주〉를 끊임없이 새롭게 상품화하는 서양을 보라. 우리에게도 그런 자산은 한없이 풍부하다. 월트 디즈니 사라면 〈별주부전〉 한편으로도 영화 수백편은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벌써 다음 계획을 묻는 소리에 김씨는 팬소리 다섯마당을 읊악으로 만들었고, 재즈 피아니스트 김광민의 편곡, 국악인 남궁정애의 소리지도, 유니스 모리스의 안무 등이 합쳐졌다.

"우리 전통음악의 정서를 어떻게 오늘의 정서에 직접 이입시킬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 현대와 전통을 기계적으로 결합 시킨 '클라우'가 아니라 우리의 관객과 호흡하는 동시에 음악을 창조해야 할텐데."

<안정숙 기자> 한겨레 1994-05-12

1996년 5월 학전그린 소극장 개관 / 〈지하철1호선〉 11개월 연속 공연

이동 청소년극 및 뮤지컬 전용극장을 표방하며 학전그린 소극장을 새롭게 개관하고 기존의 학전 소극장을 학전블루 소극장으로 이름을 바꾼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외부 대관을 시작한 1999년 3월 이전까지 학전그린 소극장은 국단 학전의 뮤지컬 공연과 연습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운영되면서 국단 학전의 창작공간으로 가능했다.

학전그린 소극장 개관기념으로 5월 1일 공연을 시작한 록뮤지컬 〈지하철1호선〉은 대학로 주관객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던 넥타이 부대를 중심으로 관객층이 확대되면서 연일 매진을 기록, 장기공연이라는 개념조차 보편화되지 못했던 당시에 객석점유율 100% 넘기면서 11개월 동안 연속 공연되는 진기록을 세우며 장기 상시 공연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1997년 3월 '개똥이' 재공연

'개똥이'가 다시 문예회관 대극장 무대에 올랐다. 84년에 기획되고 95년에 첫 공연된 이 작품은 97년에 다시 수정 보완되어 공연된 것이다. 그러나 97년의 '개똥이' 역시 여전히 미완성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초연의 '개똥이''는 에피

소드와 음악적 테마를 스케치한 것에 불과했고 "이번의 '개똥이'도 완성품이 아니라 스케치에 골조를 올린 정도"라고 했다.

1997년 5월 록뮤지컬 '모스키토' 공연

청소년들을 주인공으로 기성 사회와 정치판을 풍자한 록뮤지컬 〈모스키토〉가 처음으로 무대에 올랐다. 역시 독일 그림스 극단의 원작을 번역한 이 작품은 김민기가 예술감독과 작사를 맡고 외부 연출가와 작곡을 협업하는 제작방식을 시도했다. 당시 한보사태 등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국에 달하고 연말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이 열리는 시점에 공연되어 많은 화제를 모았으나, 번역과 번안, 정치극과 청소년극의 애매한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낳았다. 이후 이 작품은 한국 청소년들의 현실을 다룬 청소년뮤지컬로 전면 개작되어 1999년과 2000년 그리고 2017년 다시 공연된다.

1997년 10월 '지하철1호선' 부산 공연

'지하철 1호선'이 처음으로 지역에서 공연되었다. 김민기는 '지하철1호선'의 무대를 부산으로 옮겨 부산 지하철 1호선 주변과 원월동 등을 디자인하고 구수한 사투리, 온천장 주변의 삶 등을 집어넣어 부산 태양아트홀 무대에 올렸고 부산 시민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서울과 지역의 작품교류의 새로운 형태로 관심을 모은 이 공연은 국의 배경과 성격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작해 무대에 올린 새 판본으로, 연극 공연의 다양한 길 가운데 하나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98년 8월 뮤지컬 '의형제' 공연

극단 학전의 새 레퍼토리 〈의형제〉가 첫 무대에 올려졌다. 〈의형제〉는 영국 극작가 윌리 라셀의 원작을 김민기가 한국적 상황으로 번안·연출한 작품으로 이전의 학전 작품들이 독일 뮤지컬의 번안이었던 비해 영국 뮤지컬 형식에 대한 새로운 탐구를 시도했던 것이었다. 원작자는 공연도시인 리버풀을 배경으로 상반된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자란 생동이 형제의 삶을 통해 오일소크와 파운드화 폭락, 대량실직을 겪는 70년대 영국의 사정을 묘사했다. 멜로드라마적 형식 안에 사회의 어두운 면을 날카롭게 해부해 '배신과 부패에 대한 성난 우화'라는 평을 얻으며 리버풀, 런던, 브로드웨이로 이어지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김민기는 이 작품을 50년대에서 70년대 유신말기까지를 담는 한국 현대사의 이야기로 탈바꿈시킨다.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 온 '간난'은 남편을 잃은 뒤 네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사단장집 식모로 일하던 중 자신이 쌍둥이를 임신한 사

실을 알게 된다. 아이를 냇는 사단장집 '사모님'은 쌍둥이가 태어나는 대로 하니를 달라고 조른다. 그리고 쌍둥이의 태생 비밀을 영원히 감추기로 약속한다. 빈민촌과 부촌에서 따로 자란 '우남'과 '현민'은 둘 사이를 떠나온으려는 '사모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명처럼 친구가 되고 의형제까지 맺는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 어릴 적 친구 '영희'가 들어서면서 이들의 관계는 묘한 삼각관계의 틀로 발전하고 그 안에서 비극의 씨앗이 자란다. 세 사람이 커가면서 우정과 사랑을 교환하는 이 시기는 동족상잔과 분단고착, 근대화 과정의 질곡 등 현대사의 중대한 사건들이 망라된 시기다. 〈의형제〉는 이런 정치·사회적인 문제를 진지하게 되짚어 보는 데 목적이 있지만, 극의 형식은 김민기가 전작들에서 보였던 유쾌하고 별탈한 감성이 주조를 이룬다. 빠른 호흡으로 바뀌는 무대, 대중적인 선율의 노래, 유머와 위트가 넘치는 대사들이 극의 분위기를 이끈다. 6개월 동안 공연된 이 작품은 높은 완성도와 배우들의 뛰어난 팀워크로 연말 한국연극협회 '우수공연베스트 5'에 선정되었다. 이 작품은 2000년에도 재공연되었다.

1999년 한 해 동안 한국 포크음악 3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이벤트들이 개최되었다. 3월 이화여대 강당에서 개최된 '포크릴레이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다양하게 열린 이벤트의 마지막은 김민기 위한 현정 공연으로 장식되었다. 11월 20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김민기 현정 공연에는 정태준, 박은옥, 권진원, 낯선사람들, 노영심, 동물원, 박학기, 신현원, 인치환, 여행스케치, 윤종신, 이정열, 한동준, 유열 등 쟁쟁한 중견들과 신예 서문탁, 그리고 이적과 한상원. 정원영 밴드가 모인 그룹 킥스 등 다양한 가수들이 출연했고 특별 초대손님으로 시인 박노해와 성공회대 김창남 교수가 출연했다. 이 공연에서 '아침이슬' '천리길' '친구' '바다' '절망 앞에서' '늙은 군인의 노래' '작은 연못' 등 그의 대표작들을 후배가수들이 불렀고, 노래극 '공장의 불빛' 가운데 중요 대목을 노창사와 서울대 메리아가 부르는 무대가 마련되었으며 조용필 등의 영상 축하 메시지가 상영되었다.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2001년~2003년 뮤지컬 '지하철 1호선' 연이은 해외 공연

'지하철 1호선'의 성가는 해외에까지 이어졌다. 2001년부터 김민기 연출의 '지하철 1호선' 해외 공연이 계속되며 거의 모든 공연에서 평단과 관객의 높은 호응을 얻는다. 또 상복도 이어져 2001년 11월에는 국회 대중문화·미디어 대상 연극·뮤지컬 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2003년 12월에는 제1회 외신공로상 공연부문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시기까지 '지하철 1호선' 주요 해외 공연 연보는 아래와 같다.

2001.4.3~4.5 그립스 극단 초청 독일 베를린 공연 : GRIPS Theater Berlin

중국 대외연출공사 초청 중국 투어

10.1~10.5 상해 공연 : 蘭心大戲院 (란심대학원)

10.11~10.17 북경 공연 : 中國兒童劇場 (중국아동극장)

일본 국제교류기금 (Japan Foundation)

초청 일본 투어

11.15~11.18 동경 공연 : Bunkamura Theater Cocoon

11.20~11.21 오오사카 공연 : Drama City Hall

11.24~11.25 후쿠오카 공연 : West Civic Center

2000

2000년 2월 6일 뮤지컬 '지하철 1호선' 1000회 돌파

1994년 장기 공연의 대장정을 시작한 '지하철 1호선'이 2000년 2월 6일 1000회 공연을 맞았다. 단일 극단이, 단일 공연장에서, 단일 연출가로, 단일 작품을 1,000회 이상 공연한 것은 한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당시까지 모두 18만명 이상의 관객이 다녀 간 '지하철 1호선'은 한국 소극장 뮤지컬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얻는다. 독일보다 먼저 1000회 공연을 이룬 학전의 무대에 원작자 Volker Ludwig 와 작곡자 Birger Heymann이 독일에서 날아와 축하를 전했고 작품의 독창성을 인정, 2000년 1월 1일 이후 저작권료를 받지 않겠다는 선물을 안겨주었다. 99년부터 영어 지막을 서비스한 '지하철 1호선'은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한국 공연 문화의 대표작이 되었다.

1999년 1월

〈의형제〉 동아연극상 작품상 수상

동아연극상에서 극단 연우무대의 〈김치국씨 활장하다(연출 최용훈)〉와 학전의 뮤지컬 〈의형제(연출 김민기)〉가 작품상을 받았다.

1999년 5월 청소년 록뮤지컬 〈99모스키토〉 번안 연출

록뮤지컬 〈모스키토〉가 김민기의 번안, 연출을 통해 한국 청소년들의 현실을 다룬 작품으로 전면 개작, 공연되었다. 이 작품은 본격적인 청소년 뮤지컬을 표방하면서 스타크래프트, 인터넷 방송, PC방 등 10대들의 다양한 코드를 작품에 담으며 이들의 삶에 밀착하고자 노력한 것이 주효하여 청소년 관객들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다.

1999년 11월 김민기 현정 공연

관객들로부터의 광범위한 지지와 록뮤지컬 〈지하철 1호선〉의 국내외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김민기는 연극계 내에서 오랫동안 이방인으로 취급되어왔다. 연극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음악에서 출발하여 정극보다 뮤지컬 작업에 주력해온 그를 연극계에서는 연극인의 한시름으로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때문에 그가 뮤지컬 〈의형제〉의 번안·연출로 백상예술대상 연극부문 대상과 연출상을 수상한 것은 단순한 상의 의미를 넘어 그가 연극계로 성공적인 중심이동을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2003년 11월 지하철1호선 2000회 공연

94년부터 시작된 '지하철 1호선'의 장정은 2003년 11월 9일 마침내 2000회 공연의 위업을 달성했다. 2000회 공연을 기념해 독일 그립스 극단의 오리지널 팀이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성황리에 초청 공연을 가지기도 했다.

2004년 5월 록뮤지컬 〈지하철1호선〉 공연 10주년

2004년 5월은 '지하철1호선'이 공연을 시작한 지 꼭 10년이 된 시점이다. 김민기와 학전은 지하철1호선 10주년을 맞으면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전기를 맞는다. 이후 '지하철1호선'은 2008년 종연까지 상설 공연되며 15년간 4000회나 무대에 올랐고 71만 명의 관객을 불러모은 국내 최장수 뮤지컬이 되었다. '지하철1호선'은 이후에도 간간이 무대에 올랐지만 더 이상 상설 공연되지는 않는다. '지하철1호선'은 한국 뮤지컬 문화의 획을 그은 작품이다 외국 문화의 한국적 수용의 한 전범이며 그 자체로 한국 사회의 90년대를 담아낸 역사적 기록물로 남게 되었다.

2004년 5월 학전 어린이무대 시작 - <우리는 친구다> 공연
오랫동안 아동청소년극에 관심을 보여 왔던 김민기는 84년 아동용 뮤지컬 <개똥이>의 좌절 이후 20년 만에 <우리는 친구다>로 아동극을 시작한다. 풀커 루드비히의 원작을 번안, 연출한 이 작품은 초등학교 3학년인 '민호'와 유치원생인 '슬기' 남매, 그리고 이들이 놀이터에서 만난 '뭉치'가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어쿠스틱 라이브 연주를 바탕으로 섬세하고 진솔하게 그려 '환타지 쪽으로만 너무 많은 무게가 실리는 아동극계에 아이들 세계의 리얼리즘의 가능성을 보여준 동시에 음악이 아동관객들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흥미롭게 보여준 공연'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후 학전은 어린에 대비되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를 중심으로 놓고 아이들의 시각에서 자신의 일상생활에 자리 잡은 고민, 꿈, 소망 그리고 현실을 이야기하는 다양한 장르와 색깔의 어린이 공연들을 '학전 어린이무대'라는 이름으로 계속 선보이고 있다.

2004년 10월 12일 <공장의 불빛> 리메이크와 앨범 모음 <Past Life of Kim Min Gi> 발표

1978년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제작으로 세상에 나온 노래곡 <공장의 불빛>은 이른바 민중가요 불법음반의 효시라 할 수 있고 이후 1980년대 노래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민기는 이 음반이 나온지 25년만인 2004년 이를 새로운 각각으로 완전히 개작한 리메이크 음반을 발표한다. 이

리메이크 음반은 1978년 카세트테이프로 나온 원음 버전에 7,80년대 민중미술과 현장 기록 사진을 영상으로 편집한 DVD와 정재일이 새롭게 편곡한 리메이크 버전 두 장의 음반으로 구성되었다. 리메이크 음반에는 이지영, 이소은, 이은, 이적, 이승렬, 전인권 등이 참여했고 대본은 한글과 함께 영어, 일어, 중국어 번역까지 담았고 앨범 타이틀은 전태일 열사의 일기장에서 딴자해서 만들었다.
<공장의 불빛>리메이크와 함께 김민기의 노래들을 함께 모은

음반 전집도 함께 발매된다. 1971년에 발표된 김민기의 사설상 유일한 정규 음반과 1984년에 작업한 노래일기 <엄마 우리 엄마>와 1987년에 나왔던 <아빠 얼굴 예쁘네요>를 함께 담은 <연이의 일기> 복각CD, 그리고 1993년에 발매된 <김민기1,2,3,4>를 리마스터링하고 거기에 '님뱃놀이' '눈길' '아침' 그리고 '아침이슬'의 독일어 버전인 'Morgentau'까지 추가한 4장의 CD 등 총 6장의 CD가 포함되었다. Past Life of Kim Min Gi란 제목이 붙은 이 음반모음은 김민기의 친구이고 대학시절 함께 '도비두'(도끼비 두 마리)란 이름으로 듀오 활동을 하기도 했던 이노 디자인의 김영세 대표가 디자인했다.

같은 시기에 김민기의 창작곡 악보와 '공장의 불빛' 대본과 악보, '지하철1호선'의 대본과 악보, 김민기에게 대한 비평과 연보 등을 모은 책 <김민기>(김충남 역음, 한울, 2004)도 출간되었다. 10월 12일에는 서울 삼성동 백암아트홀에서 <공장의 불빛>리메이크 판과 음반모음 <Past Life of Kim Min Gi> 그리고 한울출판사의 책 <김민기>를 함께 선보이는 쇼케이스가 열렸다.

2008년 고 김광석 노래비 제막
받아 메달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2007년의 고토 메달 수상자는 김민기 외에 베를린 도이치 국립오페라(Deutsche Staatsoper Berlin)의 상임지휘자 겸 음악총감독인 다니엘 바렌보임, 작가 겸 번역가인 데쉬 탄도리 등 총 3명이었다.

고토 메달의 과거 수상자 중 한국인으로는 국립극장장을 역임한 연극인 고 서향석(1970년), 작곡가 고 윤이상(독일, 1995년), 비디오 아티스트 고 백남준(미국, 1997년) 등이 있으며, 한국 국적을 가진 수상자는 서향석 이후 김민기가 두 번째다.

시상식은 고토의 서거일인 3월22일 독일 바이마르에서 열렸다.

컬 <슈퍼맨처럼>이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장애인먼저실천상 우수실천상을 받았다. 이 작품 역시 독일 그림스 극단의 'Stronger than Superman'을 원작으로 김민기가 번안 연출한 작품이다.

제 길을 가는 청년 김민기들의 노래가 다시 필요한 때다. 그것이 오늘 김민기를 기리는 진정한 이유이다. 이제는 오늘의 김민기들이 출몰하고 날뛰어야 한다."

는 이야기를 '소극장 뮤지컬'로 풀어내며 한국 공연계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제작자 겸 연출가로 평가받았다.

2020년 8월 울릉도 <내 나라 내 거레> 노래비 제막

2020년 8월 8일 섬의 날을 기념해 울릉도에 '내 나라 내 거레' 노래비가 세워져 제막식이 열렸다.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안용복기념관 초입에 세워진 '내 나라 내 거레' 노래비에는 김민기가 친필로 쓴 노랫말이 새겨졌다. '내 나라 내 거레'는 1970년대 초 음악평론가 이백천 씨가 주도했던 통기타 그룹의 대학순회공연 팀의 단기로 불린 노래다. 김민기가 노랫말을 쓰고 송창식이 작곡해 조영남, 송창식 등 여러 가수들의 노래로 널리 알려졌다. 2020년 10월 독도의 날을 맞아 경상북도청은 김민기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2005년 11월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의 파라다이스상 수상

파라다이스 상은 고 전략원 파라다이스 그룹 회장의 '아호인 우경(宇耕)'에서 이름을 딴 우경문화예술상(1990년 제정)과 우경복지상(1996년 제정)이 통합해 2003년부터 시상해 온상으로 문화예술 부문과 사회복지 부문을 시상한다. 김민기는 국내 소극장 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5년 문화예술 부문 상을 받았다.

2007년 3월 독일연방공화국 문화훈장 고토메달 수상

김민기는 독일문화원(Goethe Institut)이 수여하는 '고토 메달'의 2007년도 수상자로 선정됐다. 1954년 제정된 고토메달은 독일과의 문화교류에 공을 세운 세계적인 예술가나 학자에게 독일문화원이 수여하는 훈장이다. 김민기는 독일 그림스 극장(Grips Theater)의 뮤지컬 '지하철1호선'을 한국 상황에 맞게 각색, 1994년부터 13년째 공연하고 있던 중이었고 당시 주한독일문화원은 "김 씨가 연극인, 작곡가, 작가로서 활동하면서 한국과 독일 연극 교류에 기여한 업적을 인정

2008년 서울 어린이 연극상 우수상 수상 <고추장 떡볶이>

2008년 김민기와 학전은 독일 그림스 극단의 '케첩 스파게티'(Spaghetti mit Ketchup)을 한국 정서에 맞추어 번안 연출한 <고추장 떡볶이>를 무대에 올렸다. 이 작품은 그해 서울 어린이 연극상 우수상을 수상했고 월간 <한국연극>이 선정하는 2008년 공연베스트7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국연극>은 매년 12월호에 그 해 공연된 작품 가운데 우수한 작품을 선정 발표한다. 2009년에는 학전의 <무적의 삼총사>, 2010년에는 <분홍병사>, 2016년에는 <우리는 친구다>가 각기 '공연 베스트7'에 선정되었다.

2010 2013년 12월 장애인먼저실천상 우수실천상 수상 <슈퍼맨처럼>

2013년에는 휠체어를 타는 초등학생을 주인공으로 한 뮤지

2010

2013년 12월 장애인먼저실천상 우수실천상 수상

<슈퍼맨처럼>

2014년 3월 제11회 아시테지 연극상 수상

김민기와 학전은 제 11회 아시테지 연극상을 수상했다. 국제 아동청소년연극협회(아시테지)가 주관하는 아시테지 연극상은 한 해 동안 아동청소년 연극인으로서 많은 활동과 업적을 남긴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아시테지) 한국본부(이사장 김숙희)는 "극단 학전은 척박한 아동청소년극의 제작환경에도 '우리는 친구다' '고추장 떡볶이' '복서와 소년' 등 사회적 이슈를 바탕으로 한 우수 공연물을 제작하고 지속적으로 공연했다"고 평했다.

2014년 10월 제8회 한독협회 이미륵상 수상

2014년 10월에는 한독협회가 수여하는 이미륵상을 수상했다. 한독협회는 김민기가 공연 연출기로 활동하면서 <지하철 1호선>(Linie 1. 원작 풀커 루트비히)을 비롯한 독일의 여러 뮤지컬 작품을 한국에 소개하는 등 두 나라 문화 교류에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시상식은 그해 10월 27일 서울 용산 주한독일문화원에서 열렸다.

2018년 10월 한국대중문화예술상 은관문화훈장 수상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한 문화예술인에게 수여하는 정부포상인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2018년 은관문화훈장은 김민기와 배우 이순재, 그리고 고 조동진이 받았고 방탄소년단이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시상식은 10월 24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렸다.

2020

2020년 호암상 예술상 수상

2020년에는 호암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경영철학을 기리는 호암상의 예술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수상했다. 호암상은 과학상, 공학상, 의학상, 예술상, 사회봉사상 등 다섯 부문으로 시상한다. 김민기는 '아침이슬' '상록수' 등의 작곡자로 1970~1980년대 청년문화를 이끌었고 이후 1991년 대학로에 소극장 학전을 개관해 한국인의 정서와 삶의 애환이 것



